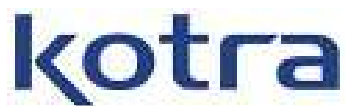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7
- 주요 산업 동향 /11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5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8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2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4
 - 대한수입규제동향 /29
 - 관세제도 /31
 - 주요인증제도 /35
 - 지적재산권 /43
 - 통관운송 /4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2
- 외국기업 투자동향 /56
- 우리기업 투자동향 /5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1
- 진출형태별 절차 /67
- 투자입지여건 /8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8
- 조세제도 /9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98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103
- 물가정보 /106
- 바이어발굴 /107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10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1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20
- 이주정착 가이드 /122
- 출장가이드 /128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48
- 유관기관 웹사이트 /150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아르헨티나(Argentina)
위치	아메리카 대륙 남부(남위 23~55도, 서경 54~74도) (서쪽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
면적	총 면적: 3,761,274km ² (세계 8위, 한반도의 12.6배 크기) 육지면적: 2,791,810km ² , 남극대륙: 969,464km ² , 남부도서: 4,617km ²
기후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인구 310만 명 23개 주정부 및 1개 연방수도로 구성(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 소유)
인구	3,954만 명(2007년 기준, 남 49%, 여 51%)
민족(인종)	백인 95%(이탈리아계 및 스페인계가 85%차지), 메스티소 4.5%(원주민과 유럽계 백인 혼혈), 원주민 0.3%, 기타 0.2%
언어	스페인어
종교	로마가톨릭교(92%), 기독교(2%), 유대교(2%), 기타(4%)
건국일	1816년 7월 9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1회 재임 가능)
의회형태	상·하 양원제(상원 72석, 하원 257석) (임기: 상원 6년, 하원 4년)
국가원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2007.12.10일 취임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나. 경제지표

GDP	2008년: 10,382억 페소 * 2008년 4분기: US\$1=3.33페소, 2009년 8월 :US\$1=3.84페소
실질 경제성장률	2007년: 8.7%, 2008년: 7.0%
1인당 GDP	2007년: US\$6,623, 2008년: US\$8,265
실업률	2007년: 7.5%, 2008년: 7.3%
물가상승률	2007년: 8.5%, 2008년: 7.2% *소비자물가 기준
화폐단위	페소[Peso(ARS)]
환율	2008년: US\$1=3.33페소, 2009년(8월 기준): US\$1=3.84페소
외채	2007년: US\$1,447억 2008년: US\$1,460억
외환보유고	2007년: US\$461.8억 2008년: US\$463.9억 2009년(8월): US\$450.0억
경상수지	2007년: US\$71.0억 2008년: US\$75.9억
산업구조	제조업(17.8%), 부동산(14.2%), 유통(13.4%), 물류 (10.7%), 교육보건(8.3%), 건축(6.8%), 농목축업(5.6%) 기타 (23.2%)
교역규모	수출 : 2007년 558억 달러, 2008년 706억 달러 수입 : 2007년 447억 달러, 2008년 574억 달러
교역품	수출 : 대두, 대두박, 옥수수, 밀, 해바라기유, 석유, 원유, 자동차 등 수입 :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 전화기, 비행기, 화물차 등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다. 행정부 구성

대통령(Presidenta de la Nación)	Mrs.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부대통령(Vicepresidente)	Mr. Julio César Cleto Cobos
총리(Jefatura de Gabinete de Ministros)	Mr. Sergio Massa
보건장관(Salud)	Mr. Juan Luis Manzur
외무장관(Relaciones Exteriores Comercio Internacional y Culto)	Mr. Jorge Taiana
국방장관(Defensa)	Ms. Nilsa Garré
경제장관(Economía y Producción)	Mr. Carlos Rafael Fernández
기획투자장관(Planificación Federal, Inversión Pública y Servicios)	Mr. Julio de Vido
법무장관(Justicia, Seguridad y Derechos Humanos)	Mr. Aníbal Fernández
노동장관(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Mr. Carlos Tomada
내부장관(Interior)	Mr. Aníbal Florencio Randazzo
사회개발장관(Desarrollo Social)	Ms. Alicia Kirchner
교육장관(Educación)	Mr. Juan Carlos Tedesco
과학기술장관(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Productiva)	Mr. Lino Barañao
생산장관(Producción)	Ms.Débora Giorgi

자료: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라. 주요 정당

여당	FV(Frente Para la Victoria), PJ(Partido Justicialista)
야당	UCR(Unión Cívica Radical), ARI(Afirmación para una República Igualitaria), PRO(Propuesta Republicana)

마. 한-아르헨티나 관계

체결협정	- 문화협정(1968) - 발명특허권 보호협정(1972) - 한국전력-아르헨티나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협정(1980) - 한아 경제 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1991) - 상용복수비자 협정(1992) - 투자보장 협정(1994) - 범죄인 인도 협정(1995) - 원자력협력 협정(1996) - 항공업무협력 협정(1996) - 과학기술협력 협정(2002) - 수산기술협력 약정(2003) - 일반여권 비자면제 시행(2003) -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2004) - 경제무역협력 협정 및 개정문화 협정 서명(2004) -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2004) - 농업분야 공동연구활동에 관한 협약 서명(2005) - 수산과학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서명(2005) - 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가서명(2006) - 한-아 교육문화협력 협정 발효(2007)
교역규모	- 수출: 2008년 US\$ 5.78억, 2009년(8월) US\$2.9억 - 수입: 2008년 US\$7.31억, 2009년(8월) US\$ 3.8억
교역품	- 수출: 기타동제품, 텔레프탈산, 칼라TV부품, 폴리에스테르수지, 자동차, 자동차부품 - 수입: 대두박, 대두, 동광, 어류, 가죽, 치즈, 포도주 등
투자규모	- 투자진출: 신규법인 49개사, US\$1.57억 (2009년 3월 기준) - 투자유치: 13개사, US\$150만 (2009년 3월 기준)
교인	1998년: 3만 5,000명 ⇒ 2009년(8월): 3만 명 추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KOTIS, 대사관 자료 종합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정치 사회 동향

1) 국내 정치

남편인 네스토르 카를로스 키르치네르(Néstor Carlos Kirchner)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드 키르치네르(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집권 2년째 맞이하여,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농업 부문과의 갈등, 인플레이션,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 빈곤 총 및 범죄 발생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대외적 신인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Cristina Kirchner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7년 취임 당시 지지율 72%에서 30% 미만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경제 침체가 좀 더 가시화될 경우 집권당으로서의 통치력 상실을 우려한 여당은 10월 총선을 4개월 앞당겨 6월 28일 조기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 이를 상원에 통과시켰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부는 금번 조기 총선을 통해 여당이 다시 승리를 확보하여 훼손된 정치리더십 회복뿐만 아니라 국정 안정적 확보, 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관계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과거 전임 정부보다 외교 문제에 비중을 두고,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뿐 만 아니라 스페인, 독일, 칠레, 멕시코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들어서, 인도, 스페인 미국, 아프리카 4개국, 칠레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주재국 대통령의 외교활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 사태 재위기에 대한 국제 언론 및 신용기관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상환을 전격 발표하는 등 국가 신용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주요 교역 대상국인 브라질과의 무역적자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차원의 수입제품 최저가격 제도 확대, 사전 승인 제도, 반덤핑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이로 인해 브라질과의 무역 마찰이 커져갔다. 브라질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아-브라질간 정상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균형 회복을 위한 협력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친선 노선을 강화하는 등 실 용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 최근 주요 이슈

1)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8년 초 수출세 인상으로 야기된 농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외신용도 하락,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가 2008년 하반기 국내경제에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침체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저소득층, 중산계층의 실질적 수입 감소를 초래, 광범위한 민심 이반 현상을 불러와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2) 대외 언론 및 신용평가기관들의 디폴트 위험 가능성 경고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언론 및 신용평가기관들은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농민 파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소비 위축, 정부의 통치 능력 상실 등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자 민간 채권단, 파리클럽 등 국제 채무 기관에서의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더해 대외 채무가 증가하자 위기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었다.

반면, 일부 경제계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인플레이션 및 물가 수치에 대한 통계 조작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경제 정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6월 28일 조기 총선 실시

2008년 3월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 논란으로 파급된 농촌 파업,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떨어지자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 대통령은 집권당 결속을 도모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10월 총선을 6월 28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상원에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임 대통령은 민심 재결속 및 차년도 대선을 목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연방 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여당 또한 주요 선거구에서도 패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권당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4)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확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아르헨티나 경제 침체 영향에 영향을 미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브라질산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위한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2008년 10월 발표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국내산업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9년 3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전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섬유 제품, 목재 가구류, 너트류, 농기계류

및 트랙터, 에어컨 제품 등 200여 개 제품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및 중국산 제품을 주요 타겟으로 한 동 조치로 인해 브라질과의 무역 마찰이 야기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 상기 조치로 인한 갈등이 대두되었으나, 전통적인 양국의 밀접한 통상관계로 인한 피해 해소를 위해 실무급 회담 제기 등 양국간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5) 아르헨티나 정부와 농축산업계와의 불협화음

2008년 3월 Martin Lousteau 전임 경제 장관이 국내 인플레이션 억제 및 재정 흑자 정책의 일환으로 곡물 변동 수출세 인상을 발표 후, 이에 반발하여 농축산업계 파업이 4개월간 지속되었다.

결국 이 사태를 둘러싼 수출세 인상안을 국회에 표결에 부쳤고, 결국 2008년 7월말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면서 농민 파업이 종결되었다. 농민 파업 사태는 종결되었지만, 정치, 경제적인 파장은 커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하였고, 소비 위축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후, 2008년 말 국제 농산물 가격의 폭락(40~50% 하락)하고 여름 가뭄으로 수익률이 급락하자 농민들은 수출세 인하를 요구하는 농민 파업을 재개했다. 2009년 3월 대두류 수출세 감소법안의 의회상정이 여당의 반대로 좌절된 후,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대두 수출세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분배하겠다고 발표하자 농민들은 대규모 파업 및 주요도로 점거 실시하였다.

2008년 3월 농촌 파업 이후 2009년에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농업파업은 농민들의 수출세 인하 요구가 수출세가 주요 세수원인 정부간의 반목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6) 가뭄으로 인한 곡물수확량 감소

2009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악의 가뭄 사태로 인한 곡물 수확량 감소가 크게 우려되자 농업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주요 수출 곡물 가격도 2008년 대비 최고 가격에 비해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두는 가뭄으로 인해 2009년 생산량은 '08년 대비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바라기씨는 30%, 밀은 25%, 옥수수 경우 26%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민들은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더불어 생산비 인상, 수익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출세를 인하하길 바라고 있다.

7) 에너지 부족 문제

최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증폭하면서 만성적인 국내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에너지 사태 해결을 위해 2008년 2월 브라질 정상회담 에서 파라과이 천연 가스를 아르헨티나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3월 베네수엘라 방문 시에는 천연 가스 및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우리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 연구 개시를 합의한 후 정부 간 공동연구를 4차례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KIEP의 한- MERCOSUR FTA 분야별 경제효과 분석(2004.10.27)에 의하면 한- MERCOSUR FTA 체결 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1.64% 증가하고, 총 고용은 15만 9,000 명이 창출되며, 가계소득은 추가적으로 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모니터, 의약품, 석유류이고 MERCOSUR는 쇠고기, 오렌지주스, 대두, 밀, 옥수수, 광물 등이다.

○ 개최연혁

- 2005. 5.4 ~5.5일: 1차 회의, 파라과이 아순시온
- 2005. 8.17~8.18일: 2차 회의, 서울
- 2006. 3.2~3.3일: 3차 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6.10.31~11.1일: 4차 회의, 브라질 상파울루

나. 수입 규제

2007년 8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최저가격제도를 강화하였으며 품목에 따라 영사확인을 거친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대상으로 냉연강판(12개 품목), 아연강판(8개 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고, 아직까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종료재심 중인 상태이다.

한국은 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간 관세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르헨티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발효일	기간
7209.15-28 7211.23 7225.50 7226.92	냉연강판	남아공,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반덤핑	2003년 11월 1일 (‘08.1.10 발효 연장)	5년
7210.49/61 7212.30/50 7225.90/99 7226.94/99	아연강판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반덤핑	2003년 5월 28일 (‘08.5.25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시까지 규제 유효)	5년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다.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

양국 간 제1차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위원회가 2006년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 측은 Agua Rica, Pachon 등 세계적인 동 광산의 한국 참여를 지원할 것과 아르헨티나 북부 Cu-Au-Pb-Zn 광화대 광산평가 기술협력에 합의하였다.

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들은 본국에서도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영업소득에 대한 35%의 소득세를 물고 있어 이중과세로 인한 영업손실 누적 및 과실송금 축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양국 간에서 협의 중이나 아르헨티나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 대 아르헨티나 투자 및 기술 이전 관계

한국의 투자 진출 및 기술 이전을 위해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ProsperAr)의 투자진흥청장이 2008년 5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투자진출 활동 조사, 기업 상담 등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특히 CJ, 현대자동차,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을 방문하여 대 아르헨티나 투자 진출 여건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바. 2008년 한-중남미 경제 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2008년 9월 9일 ‘한-중남미 경제 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자원 협력 및 교역 분야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상호 이해 관계 제고 및 경제 협력관계 구축하였다.

동 포럼에 아르헨티나 공업차관, 아르헨티나 대사 등이 참가하여 아르헨티나 광업, 자동차, 건축 분야에 대한 투자 홍보를 하였으며,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관련 토론에도 참석하여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공업차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KORES)와 LS-Nikko로부터 총 투자액 5억 달러에 달하는 동광 정제소 건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감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전임 대통령 정부가 집권한 2003년부터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되어 ‘05년까지 3년간 연평균 9% 대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06년 8.5%, 2007년 8.7%, 2008년 7.0% 성장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GDP)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1인당 6,705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 장기간에 걸친 농촌 파업 사태 영향, 인플레이션 문제 등의 국내 경제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2008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낮은 수치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7.1%로 기록하였다.

1인당GDP 추이

(단위: US\$)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인당GDP	3,380	3,980	4,715	5,463	6,623	8,265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주: 2009년 9월 기준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8.8	9	9.2	8.5	8.7	7.0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주: 2009년 9월 기준

2) 물가상승률: 가격 통제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 정책 유지

네스토르 전임 대통령 정부 시절 최대 현안인 물가 안정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생산, 유통업체와 소비자 가격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물가 안정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Kirchner) 대통령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내수 공급 부족 및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변동 수출세 인상 법안(44%)을 발표, 수출 억제, 물가 안정 정책을 시도하려다 농민 파업 및 상원 법안 부결로 철회되었다.

2005~06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시중 통화량이 확대되어 소비자물가가 2005년 12.3%, 2006년 9.8% 상승한 바 있으며, 2007년 8.5%, 2008년 7.2%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8년 말 정부의 보조금 부담 가중으로 전기, 가스, 통신 등 공공부분에서 30% 가까이 가격이 인상되고, 노조 등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INDEC)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통계 수치가 정부의 개입으로 고의적으로 낮게 발표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컨설팅기관에서는 실질 물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20~30%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비자물가	3.7	6.1	12.3	9.8	8.5	7.2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주: 2009년 9월 기준

3) 환율: 수출 및 외환보유고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고환율 정책 유지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2001년 12월) 이후, 태환정책(US\$ 1=1페소 유지 정책, 1991년 4월 실시)을 폐지시키고, 페소화 평가절하(US\$1=3페소) 정책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다.

2003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세 징수 및 재정 흑자 정책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 고환율 유지하여 국내 기업의 대외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확대, 외환보유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IMF는 아르헨티나의 시장 적정 환율을 2.2~2.4 페소(브라질 헤알화 + 0.2~0.3 페소)로 보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추이

(단위: 페소/ US\$)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대미환율	2.95	2.94	2.92	3.06	3.12	3.33	3.84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주: 2009년 9월 기준

4) 실업률: 일자리 창출 요구 대두

2003년 이후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2006년 16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가로부터 생계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업 가구주들은 실업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3% 포인트 이상 상승한다.

2008년에는 실업률은 7.3%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 둔화는 2009년에도 지속되어,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률	21.5	15.6	10.1	8.7	7.5	7.3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주: 2009년 9월 기준

나.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

1) 개요

네스토르(Néstor Kirchner) 전임 대통령 집권 시기의 정부는 가격통제 정책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유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환율 정책, 재정흑자 유지 및 수입 대체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정책이 정책 기조를 이뤘다.

크리스티나(Cristina Kirchner) 대통령은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정책이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2) 주요 경제정책

□ 고환율

디폴트 사태 이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수출증가 및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를 목적으로 미 달러 대비 3 페소의 평가 절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US\$1:3페소 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 재정흑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세 징수 등을 통해 재정 흑자를 유지해 실업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재정 운용과 고환율 정책 유지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율이 낮은 1 차 상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고 추가세입을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위한 공공서비스 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8 년 초 농민 파업 및 상원 부결로 실패한 변동 수출세 인상안(44%)은 정부가 재정 흑자 정책 유지를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 인플레이션 억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화 협약, 수출세 부과, 수입제한 등 가격 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물가 조작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산 및 서비스 기업과의 가격안정화 협약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실질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일부 현지 생산자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율성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러한 정책이 국내 생산 하락 및 내수 침체를 가져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수입대체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장려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수입 대체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 년 8 월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총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강화하였다.

□ 투자 및 외환보유고 정책

내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BT, 광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전기, 천연가스, 석유 등의 경우 가격동결 정책 시행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고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 매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농민 파업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한때 외국인 투자가 철수하고, 14억 달러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3) 2009년 경제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 경제 정책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의 골자는 고향을 ▷ 수출증대 ▷ 수출세 징수 ▷ 재정흑자 ▷ 공공서비스 보조금 확대 ▷ 인플레이 억제 정책이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크리스티나(Cristina Kirchner) 신임 정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임 정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를 위하여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기업의 손실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및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 년 에너지 부문 인력의 임금 상승과 정부 보조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7 년간 동결되었던 전기세가 30% 가까이 인상되었고, 그 밖의 공공 부문 및 일반 소비재 부문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2008 년 초 곡물 수출세 인상 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농민 파업 및 상원의 관련 법안 부결은 경제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크리스티나 정부의 재정 확보 및 물가 억제 정책 등 지나친 경제 개입 정책이 경기 지표하락에 영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교류가 적었던 아르헨티나는 2008 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브라질 등 인근국가 등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국내 경기 침체 방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 강화

2008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평가절하된 브라질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국내산업보호차원에서 2008년 10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저수입가격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건별 수입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브라질 및 중국산 제품 200여 개에 대해 수입사전승인제를 추가 강화 시켰으며, 해당 제품으로는 섬유 제품류, 목재 가구류, 너트류, 농기계류 및 트랙터, 에어컨 등이 대상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구조

1)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 분야 신장세

전통적인 농축산물 산업구조를 가진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3년부터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건축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건축 등 부동산 업종이 성장세를 유지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내수 경기 둔화

2008년 초 4개월간에 걸친 농촌 파업으로 인해 농축산업계의 산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내수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가 국내경기 침체에 가중되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산업별 비중 및 동향

산업 업종별 비중 및 동향

(단위: 백만 페소, %)

구분	2006	2007	2008		
	금액	금액	금액	비중	증감
GDP총액	654,439	812,072	1,038,188	-	8.7
농축산업	48,759	68,559	91,160	8.4	10.2
수산업	2,001	1,849	2,365	0.2	-6.3
광업	36,235	35,552	35,699	4.4	-0.5
제조업	134,709	158,878	204,575	19.6	7.7
전력/가스/상수도	9,712	10,985	12,362	1.4	5.7
건설	34,897	46,317	56,434	5.7	9.9
도소매업	69,127	86,314	113,228	10.6	11.3
호텔/요식업	16,344	19,970	25,069	2.5	8.2
수송/물류업	53,565	63,986	80,565	7.9	13.8
금융서비스	28,048	36,349	48,525	4.5	18.5
부동산	65,962	81,902	104,434	10.2	4.7
정부서비스	33,629	43,511	58,387	5.4	3.5
보건교육	46,943	61,172	81,320	7.5	4.7
통근/가내근로 등	24,862	30,440	38,352	3.7	6.2
기타(세금 등)	55,593	77,993	101,110	9.6	19

주: 2009년 8월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나. 산업별 동향

1) 농축산업

농축산업은 인구의 약 10%가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14%를 구성하는 주요한 업종이다.

최근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부터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30~40% 수준의 농축산물 수출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4,900만 톤으로 전체 농산물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작지가 230%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2008년 1,300만 톤 생산되었으며, 전년대비 수출은 약 20% 감소하였다. 2008년 연간 수출 금액은 14억 달러 수준이다. 2008년 경기 침체, 가뭄 등으로 2009년도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농산물 현황

구분	세계 순위	구분	세계 순위
해바라기 기름	생산 1위/수출 1위	대두	생산 3위
콩기름(대두유)	생산 4위/수출 1위	레몬	생산 5위/수출 1위
꿀	생산 3위/수출 1위	쇠고기	생산 4위
옥수수	수출 3위	포도주	생산 6위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 Invest Guide

주: 2008년 12월 기준

연도별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밀	15,960	12,574	14,600	15,400
귀리	536	227	243	259
보리	886	796	1,266	1,600
라이보리	92	33	17	22
옥수수	20,483	14,446	21,800	20,500
수수	2,894	2,328	2,795	4,000
쌀	956	1,193	1,075	1,135
대두	38,300	40,067	47,482	49,850
해바라기	3,700	3,798	3,497	4,014
땅콩	445	343	600	553
합계	84,328	83,242	93,436	97,407

주: 합계는 기타 곡물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아르헨티나 농수산청

주: 2009년 9월 기준

연도별 축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연도	2006	2007	2008
쇠고기	13,418	14,924	13,338
돼지고기	2,609	2,704	2,757
가금류	450	487	1,399
우유	10,161	9,424	-

자료: 아르헨티나 농수산청

주: 2009년 9월 기준

2) 광업

아르헨티나 광물자원은 세계 6위로 전체 75%의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어 투자 기회 면에서는 2위로 평가된다.

광산 채굴 가능면적 75만km² 중 75%가 미개발 상태에 있다. 1993년 광업투자법 도입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광물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광물은 금, 은, 동, 납, 아연 등이다. 아르헨티나 광업 실효세율은 41%로 중남미 주요 광산국가보다 6%, 캐나다 및 호주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8년 기준 원유 36백만m³, 천연가스 50조m³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로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금속광물 생산현황

(단위: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카드뮴(Cd)	126	111	124	122	120
아연(Zn)	29,839	27,220	30,227	29,808	29,395
구리(Cu)	199,020	177,143	187,317	180,144	173,246
리튬(Li)s	2,805	4,225	5,904	6,256	6,629
금(단위: kg)	29,749	28,466	27,904	44,131	69,795
은(kg)	133,917	172,387	263,766	248,227	255,000
납(Pb)	12,079	9,551	10,683	12,778	15,284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광업청

연도별 석유 천연가스 생산현황

구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유	천m3	38,323	40,150	38,323	38,268	31,217	36,537
천연가스	십억m3	48,876	50,254	48,738	51,779	42,704	50,309

자료: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주: 2009년 9월 기준

3) 제조업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폐소화 평가절하의 환율 정책을 통한 국내 제조품의 대외 경쟁력 확보로 수입대체 상품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계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며, 전체적인 제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외국 기업의 참여율이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대부분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외환위기 직후 일부 기업의 철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04년 이후 외국인 투자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2003년 이후, 최근까지 가장 성장이 두드러진 업종으로 연평균 25.4% 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 초 농민 파업 사태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가 2008년 말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내수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판매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건설업

건설업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이었다. 그러나 평가절하로 인한 상대적인 건축비용 저하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2006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7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9.9% 신장하면서 성장주도 산업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말 경제 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5)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전통적으로 가게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말 체인 형태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유발하였다. 대형 마켓은 대량구매, 선진 경영기법 활용, 전산화 등

을 바탕으로 공급업체와 협상력이 높아져 전체 소매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GDP비중은 2007년 10.6%이며, 11.3%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6) 금융서비스업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3년까지 금융기관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2004년 신뢰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정상적인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금융기관 평균 자산 수익률(Return on Assets)은 1.8%를 기록했다.

증권시장은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이다. 주가지수(Merval)는 2008년 1,05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증권시장은 10개사가 전체 거래금액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분야는 GDP의 4.5% 수준인 560억 달러에 불과하다.

다. 향후 전망

1) 제조 및 유통 중심의 성장 지속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본재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기계 및 부품,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재의 경우 고기능 휴대폰, LCD TV, 에어컨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생산 및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2008년 자동차 내수 증가로 제조 및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외국기업 투자 확대

국내 생산 수요 증가와 높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생산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들어서 정부의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 장려, 수입업체 정책 강화로 인해 현지 생산기반 구축 확대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더욱 절실하다.

3) 축산업 생산 감소

2008년 경제 위기 및 가뭄 등으로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0년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축산업의 위기는 정부의 수출억제책 및 소비가격통제 등으로 인한 개입이 축산업자로 하여금 생산량을 줄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 관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남미 공동 시장 차원에서 공동으로, 낮은 차원의 경제보완협정은 개별국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구 분	단 계	협정내용(발효연도)	비 고
MERCOSUR 공동	기체결	경제보완협정: 볼리비아(1996), 칠레(1996), 멕시코(2002), 쿠바(2006), 이스라엘(2007), 페루(2003) 특혜관세협정: 인도(2004) FTA: 안데안공동시장(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2003)	특정분야에 혜택적용
	협상중	특혜관세협정: SACU	
		FTA: EU, GCC, FTAA, 모로코	
	검토중	FTA: CARICOM,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뉴질랜드, 터키, 인도-SACU	
아르헨티나	기체결	경제보완협정: 멕시코(2006) 부문별협정: 멕시코 자동차·유제품(2004)	4,500개 품목 관세 인하

자료: KOTRA, 무역협회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역내통합을 최우선시하고, 전 세계 각국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 GCC 등과는 협상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는 검토단계에 있다.

메르코수르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EU 등과 FTA 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주도의 FTAA 협상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2007년 5월 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지역 8개국의 다자간 협의체인 중미통합 체제(SICA)와 FTA 협정을 제안했다.

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목적
 - 회원국 간 관세동맹(특혜관세 부과)
 - 역외공동 관세부과
 - 점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추진
- 회원 현황
 - 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준회원국: 칠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 본부: 몬테비데오
- 설립연혁
 - 1985.11월 : 이구아수 의정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간 지역통합 의지 확인
 - 1990. 7월 :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정서: 공동시장 창설합의 및 우루과이, 파라과이 참여 결정
 - 1991. 3월: 아순시온 조약, 공동시장 창설 조약문 결정
 - 2005. 1월: 관세동맹 출범
 - 2006. 7월: 베네수엘라 Mercosur 가입 결정

○ 시장규모 (2008년 기준, IMF)

- 인구: 262백만 명
- 면적: 12,827Ksm
- GDP: 2,267,025백만 달러
- 수출: 278,914백만 달러
- 수입: 248,014백만 달러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 함께 남미 지역의 또 다른 경제블록인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이었으나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해 탈퇴한 뒤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입을 추진해 왔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 회원국 정상들은 2006년 7월 초 베네수엘라 가입에 합의했으나 브라질과 파라과이 의회가 심의와 표결을 늦추는 바람에 3년 가까이 가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이미 의회 승인을 마친 상황이다.

다. 남미국가연합(UNASUR) 출범

2008년 5월 23일 남미 12개 국가가 모여 남미국가연합 기구(UNASUR) 출범을 선언하였다. 이 기구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안데스공동체(CAN)을 합친 기구로,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비공식 기구였으나, 2008년 5월 23일 공식화되었으며 조화로운 정치, 자유 무역 협상 지향, 에너지 통신 부문 통합 가속화, 농업 및 식량 정책 공조, 과학 기술, 문화 및 교육 협력 확대, 기업 및 사회 공동체 통합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남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환경 및 식량 등의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남미은행 시행

남미은행은 2007년 2월 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순방 시 처음 제안한 후, 12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7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7개국 회원 국가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2009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본부를 둘 예정인 남미은행 초기 자본금은 100억 달러이며, 남미국가연합(UNASUR)을 구성하고 있는 12개국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자본금을 2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 MECOSUR-SACU 특혜관세협정

2008년 7월 1일 아르헨티나 두꾸만주 두꾸만시에서 개최된 제35차 MERCOSUR 정상 회의에서 MERCOSUR-SACU 간 특혜관세협정 체결이 승인되었다.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아프리카 5 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동 협정 체결에는 우선 양쪽간 1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바. 주요 FTA 추진동향

1) MERCOSUR-EU FTA

EU는 FTAA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중남미 주도권 견제와 중남미에서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1995년 말 협상 시작하였으나, EU와 메르코수르는 협상시한으로 정한 2004. 10월 협상안 타결에 실패하였다. 양 블록은 2005년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2006. 11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협상을 가졌다.

양 블록 간 협상은 EU의 농업개방과 메르코수르의 서비스·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에 있다. 유럽의회는 최근 WTO 협상과 별도로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해 빠른 시일 안에 FT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협상에 적극적이다.

협상 주요 쟁점사항

구 분	쟁점사항	협상 내용
MERCOSUR	농산물 개방 농산물 보조금 지급	EU, 농산물 수입쿼터 확대 제안(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 등)
EU	자동차 시장 개방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메르코수르, 향후 18개월간 수입관세 점진적 인하 제안

2) FTAA

미국의 주도로 1994년 1월 미주정상회담(마이애미)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회원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FTAA 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출범 시 인구 8억 명, GDP 12조 달러, 교역량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에서 개최된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 및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FTAA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기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FTAA 창설협상에 앞서 메르코수르의 입지를 탄탄히 한 후 FTAA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2008년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705억 달러, 수입은 28%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131억 달러로 흑자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아르헨티나 무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수출	30,280	34,358	40,352	46,456	55,933	70,589	36,546
수입	13,851	22,447	28,689	34,150	44,780	57,413	24,214
수지	16,429	11,911	11,663	12,306	11,154	13,167	12,332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 2009년 9월 기준

나. 수출입동향

1) 수출 동향

품목(분야)별 수출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34,453	40,352	46,456	55,779	70,589	27
1차산품	11,932	8,098	8,953	12,351	16,425	33
농축산가공품	6,828	13,138	15,244	19,187	24,050	25
공산품	9,522	11,984	14,825	17,321	22,209	28
원유 등	6,171	7,132	7,759	6,918	7,905	14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 증가율은 2007년 대비

2008년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농축산가공품, 공산품, 1차 상품,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전년도 대비 여타 상품에 비해 농축산가공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상반기 4개월간 진행된 농민 파업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수출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07	2008	증가율
1	230400	대두박	5,737	7,110	23.7
2	150710	대두유와 그 분획물	4,405	4,690	10.1
3	120100	대두	3,426	4,582	33.4
5	100590	옥수수	2,249	3,411	55.8
6	100190	밀과 메슬린	1,995	2,542	26.1
7	271011	석유와 역청유(원유제외)	2,275	2,218	-2.5
8	870323	승용차	1,420	1,705	20.1
9	270900	원유	1,293	1,624	25.3
10	151211	해바라기유, 면실유, 분획물	563	1,424	153.1
11	870421	화물차(디젤, 5톤 이하)	1,126	1,292	14.7
12	260300	구리와 그 정광	1,358	1,208	-11.1
13	271019	원유부산물	1,006	1,036	3
14	730429	철강제의 관과 무계목	823	1,000	21.6
15	20130	쇠고기(신선, 냉장)	790	826	4.5
16	710812	금	562	702	24.8
17	870840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8	555	11.5
18	870431	화물차 (5톤 이하)	513	520	1.2
19	220421	포도주 및 포도즙	418	516	23.4
20	410441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	504	462	-8.3

자료: World Trade Atlas

주: 2009년 9월 기준

2008년 기준 품목군별로는 대두 및 관련제품이 수출 순위 1위(대두박), 2위(대두유), 3위(대두)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했다. 승용차 수출이 수출 증가율 면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가축관련 상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국가별 수출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증가율
전체		45,645	55,780	70,588	26.5
1	브라질	8,141	10,486	13,376	27.6
2	중국	3,476	5,167	6,397	23.8
3	미국	4,025	4,151	5,225	25.9
4	칠레	4,404	4,175	4,732	13.3
5	네덜란드	1,445	1,797	2,982	65.9
6	스페인	1,824	2,059	2,805	36.2
7	우루과이	1,175	1,172	1,784	52.2
8	이탈리아	1,096	1,387	1,690	21.8
9	독일	1,124	1,221	1,509	23.6
10	베네수엘라	809	1,176	1,416	20.4
11	멕시코	1,519	1,434	1,364	- 4.9
12	페루	729	958	1,319	37.7
13	이란	6	319	1,092	242.3
14	이집트	324	577	1,085	88.0
15	파라과이	623	779	1,080	38.6
16	러시아	901	784	971	23.9
17	알제리	538	765	897	17.3
18	프랑스	553	604	882	46.0
19	스위스	519	535	769	43.7
21	한국	429	675	620	- 8.1

자료: World Trade Atlas

주: 2009년 9월 기준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2008년 27%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3%로 지금까지 최대 교역 파트너였던 미국, 칠레를 추월하였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다.

2) 수입동향

품목(분야)별 수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22,320	28,689	34,151	44,707	57,413	28
자본재	5,378	7,011	8,385	10,397	12,639	22
중간재	8,630	10,377	11,893	15,371	20,227	32
자본재 부품	3,599	4,859	6,137	8,065	9,960	23
소비재	2,500	3,162	3,849	5,208	6,291	21
자동차	1,197	1,603	2,038	2,709	3,875	43
석유 등	1,003	1,545	1,730	2,845	4,318	52
기타	14	132	118	114	103	-10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 2007년 대비 증가율

금액규모 면에서 중간재, 자본재, 자본재부품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동절기 국내 에너지 부족현상을 반영해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율에서는 에너지 수입량이 52%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자동차, 소비재의 수입이 각각 43%, 21%를 초과하였다.

아르헨티나 수입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07	2008	증가율
1	870323	승용차(1,500이상)	1,708	2,650	55.2
2	271019	석유와 역청유(원유제외)	1,688	2,640	56.4
3	851712	휴대전화기	1,325	1,449	9.3
4	120100	대두	647	1,343	107.7
5	293100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446	1,031	131.3
6	880240	비행기	727	1,021	40.5
7	870829	자동차부품(자체부품)	620	800	29.1
8	260112	철광과 그 정광	322	599	86.2
9	870899	자동차부품(8701-8705류)	529	553	4.5
10	870322	승용차(1,500이하)	395	532	34.8
11	840820	엔진 (87류)	363	481	32.6
12	870840	자동차 기어박스	380	479	26.1
13	870421	화물차	364	463	27.4
14	300490	의약품	386	445	15.4
15	870422	화물차(20톤 이하)	283	419	45.5
16	851762	영상음향재생기	332	406	22.3
17	871120	오토바이(250 이하)	301	397	31.9
18	8471	컴퓨터	657	393	32.52
19	271600	전기	460	374	-18.7
20	310540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20	340	6.3

주: 순위, 비중 2008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이 '08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55%와 56% 증가하며, 전체 수입 시장의 11% 이상을 점유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석유 증가율이 56.4%, 내수 증가에 따른 휴대폰의 급속한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9.3%를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증가율
	전체	34,154	44,707	57,413	28.42
1	브라질	11,749	14,523	17,689	21.80
2	중국	3,122	2,131	7,104	233.36
3	미국	4,247	5,264	6,894	30.97
4	독일	1,545	2,131	2,533	18.86
5	파라과이	505	1,056	1,770	67.61
6	멕시코	1,111	1,337	1,595	19.30
7	프랑스	908	1,059	1,449	36.83
8	일본	933	1,200	1,378	14.83
9	이탈리아	908	1,071	1,204	12.42
10	스페인	645	813	1,054	29.64
11	칠레	672	599	951	58.76
12	러시아	244	430	755	75.58
13	한국	378	439	731	66.51
14	대만	279	330	652	97.58
15	영국	386	445	545	22.47
16	우루과이	301	458	527	15.07
17	인도	303	384	491	27.86
18	태국	403	456	484	6.14
19	벨기에	228	246	304	23.58

자료: World Trade Atlas

주: 2009년 9월 기준

2008년 국가별로는 브라질,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총 300억 달러 이상이며, 브라질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여 전통적으로 브라질에 치중한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주요 수입 대상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3) 아르헨티나-브라질간 교역현황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밀접한 통상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무역수지 2009년 2월 기준 1억불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브라질산 수입제품이 대거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산업 생산을 보호차원에서 브라질산 수입제품을 타겟으로 최저수입가격제 및 사전수입승인제도를 확대 실시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양국간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증감율
수출	5,605	6,328	8,152	10,499	13,377	4,961	-43.1
수입	7,567	10,187	11,750	14,523	17,689	4,998	-49.3
수지	-1,962	-3,859	-3,560	-4,024	-4,312	-36	-

자료: INDEC

주: 2009년 9월 기준

다. 전망

2007년 수출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고환율 정책으로 전년 대비 94억 7,700만 달러 늘어 20% 이상의 증가하였다. 수입 역시 아르헨티나의 경제 고 성장세에 힘입어 31%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교역량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수출 금액은 2007년 대비 32% 증가한 706억 달러, 수입은 28%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요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교역은 아르헨티나가 2001년 경제위기 사태를 맞기 이전인 1997년에 9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1998년 이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에는 1991년 이후 최저치인 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2008년에는 사상 최초로 양국 간 교역량이 14억 달러를 초과했다.

한-아르헨티나 최근 무역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수출	161,439	239,144	309,008	330,937	489,140	578,207	193,263
수입	435,670	421,499	371,755	556,021	731,533	914,772	324,756
수지	-274,231	-182,355	-62,747	-225,084	-242,393	-336,564	-131,493

자료: KOTIS 무역통계

나. 수출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1997년 6억 3,00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후 아르헨티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 국가부도(디폴트) 선언의 영향으로 수입시장이 붕괴되어 우리나라의 수출도 83.0% 감소 되었으나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MTI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년	증가율	2009.6월	증가율
		총계	578,207	18.2	193,263	-33
1	213020	텔레프탈산	8,019	12.9	20,140	-
2	214014	폴리에스테르수지	46,873	-21.2	13,614	-18.1
3	622900	기타동제품	0	-	12,264	-
4	821170	칼라TV부품	11,838	677.4	11,730	432.9
5	741160	볼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	49,168	155.6	9,508	-58.3
6	832110	천연색음극선관	11,391	0.2	7,434	35.1
7	436000	편직물	14,344	-21.4	7,379	-7.4
8	836110	액정디바이스	13,138	-34.6	4,957	-50.7
9	723200	금속성형가공기계	8	-92.2	4,488	56,138.50
10	742000	자동차부품	8,562	94.7	4,456	54.6
11	824100	세탁기	3,562	-18.5	4,237	37.6
12	813220	HDD	6,286	-33.6	3,877	-26.3
13	741170	압축점화식 2,500시시 이하	71,160	107.9	3,339	-93.3
14	219000	기타석유화학제품	4,728	65.6	2,976	27.5
15	228900	기타정밀화학원료	9,672	120.3	2,785	-31.9
16	310900	기타플라스틱제품	4,058	37.6	2,621	40
17	252200	인쇄용지	590	83.8	2,558	1,503.60
18	721100	섬유기계	3,992	-25.2	2,257	-5.1
19	614330	철및비합금강와이어로프	3,315	2	2,213	-2.7
20	745100	엘리베이터	2,765	29.4	2,129	85.9

자료: KOTIS 무역통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폴리에스테르수지, 액정디바이스, 편직물 등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기타 동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자동차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TV 부품, 공기 조절기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 액정 디바이스의 수출은 이전까지 2,023%로 증가하다가 2008년 -34.6%, 2009년 -72.3%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수입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수입은 2003년 4억 3,600만 달러로 급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수입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9억 1,5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동광, 대두유, 낙농제품 등으로 수출상품 생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재료 수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품목(MTI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년	증가율	2009.6월	증가율
		총계	914,772	25.1	324,756	7.3
1	113000	동광	294,157	4.7	127,233	36.9
2	13110	대두유	230,814	61.3	110,623	2.2
3	13600	사료	116	-99.7	32,138	61,700.60
4	13500	박류	257,466	98.5	18,875	-51.3
5	41900	기타어류	19,182	-15.8	7,211	-16.9
6	24340	치이즈	8,276	-41.9	4,779	5.7
7	331900	기타가죽	504	277.4	4,296	2,677.00
8	13190	기타식물성유지	4,386	34.7	2,611	147.3
9	15410	앞담배	4,460	50.2	2,519	77.9
10	43100	오징어	3,596	-1	2,047	61
11	24390	기타낙농품	2,146	22.3	1,363	11.7
12	15740	포도주	2,411	5.8	1,017	-18.9
13	229000	기타정밀화학제품	1,038	-18	1,006	63.1
14	331100	소가죽	24,606	-33.5	981	-93.1
15	226200	의약품	2,930	21.9	781	-50.6
16	15940	과일주스	2,247	15.1	696	-31.5
17	15210	초코렛	1,293	-7.8	595	-39.8
18	129000	기타비금속광물	1	-	568	104,191.60
19	45100	어육	690	-23.9	452	322,815.00
20	228900	기타정밀화학원료	1,435	31	420	-55.7

자료: KOTIS 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개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기본원칙 아래, 수입관리 제도로 네거티브 시스템(예외적으로 명시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없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납세번호(CUIT)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수출입 담당기관

1)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상공청

관세법(법령 제22415/81)에 따라 경제생산부 내 상공청이 수출입 관리를 담당한다. 수출입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절차,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Ministerio de Economía y Producción)
 - 주소: H. Yrigoyen 250(1310) C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 4349-5000/5010/5020
 - 홈페이지: www.mecon.gov.ar

2) 아르헨티나 관세청

실무 담당기관으로 행정령 제599/76호와 제695/77호에 따라 정책 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관세청(Aduana Argentina)
 - 주소: Azopardo 350 1er. Piso,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 4338-7653
 - 홈페이지: www.afip.gov.ar/aduana

3) 수입 규제 담당기관

아르헨티나 산업피해 조사를 통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는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 에서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CNCE: 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 주소: Paseo Colon 275 Piso 7, Buenos Aires , CP 1063, Argentina
 - 전화: (54-11) 4348-1710, 팩스: (54-11) 4348-1711/35
 - 홈페이지: www.mecon.gov.ar/cnce/index.htm

다. 교역관련 주요법규

1) 관세법(Código Arancelo)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관련법은 법령 22415/81호이다. 이 법은 3개 서문과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 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 문: 적용 범위, 수출입 개념 규정, 수출입 상품의 개념 규정
 - 1장(법적 주체): 세관의 조직, 기능 및 권한, 수출입자 및 기타 관계자 개념 규정
 - 2장(적용범위): 일반 규정, 적용 범위
 - 3장(수입규정): 물품의 도착 및 수입지
 - 4장(수출규정): 수출지 및 물품의 발송
 - 5장(수출입 일반규정)
 - 6장(통관관련 특별규정): 운송관련 규정, 특수물품(군수, 안보관련 차량 등) 취급 규정, 컨테이너, 소화물, 선용품, 소포, 샘플, 외교관면세품 등 취급규정, 재수입품, 국경운송, 구호물자 등 취급 규정
 - 7장(세관 적용 범위): 영해 및 대륙붕, 무관세 지역, 특별 관세지역
 - 8장(수출입 금지규정): 금지형태, 금지범위, 제한적 금지, 수출입금지 설정 및 해제
 - 9장(세제 규정): 수입관세,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세, 특혜관세, 통계세, 창고세 등
 - 10장(수출촉진 규정): 관세 환급, 기타 수출촉진관련 절차
 - 11장(상호주의 특별규정)
 - 12장(통관관련 벌칙규정)
 - 13장(관세우선 규정): 관세 우선납부 규정
 - 14장(절차 규정)
 - 15장(보완조치 규정)
 - 16장(경과조치 규정)

2) 법령 제 2248/91호

수입자유화 조치를 위해 입법해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 철폐한 바 있다. 자동 수입승인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신청을 하면 수입 통계 시스템(REDI: Régimen Estadístico de Importación)에 입력되어 자동 승인된다.

라. 수입규제

1) 수입금지 또는 승인품목

아르헨티나 정부는 △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 △ 지적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중고 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 품목 현황

품목	HS CODE	관련 규정	비고
중고 타이어	401220	법령 25626/02	-
중고 모터사이클	8711	경제부 시행령 790/92	-
중고 의류	6309	경제부 시행령 504/2000	-
중고 자동차	8407/8408	경제부 시행령 504/2000	HS 코드 8404.90.200 제외
중고 엔진	-	경제부 시행령 529/94	-
중고 의료기기	901920	경제부 시행령 529/94	-

주: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 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호에 의거해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주요 수입 제한품목 및 내용

품목	규제 내용
의약품	보건부 수입업자 및 상표등록
화장품, 식품	상품은 통관 전 등록 및 수입승인
농수산물	산 동물 및 식품(가공품 제외) 검역
통신기기	국가통신위원회(CNT) 사용허가 및 수입승인 법령 1185/90호(CNT 설치구성, 운용 및 기능관련 법규) 적용

수입제한 품목으로는 의약품 및 보건 위생제품의 경우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수입업자, 상품등록을 하여 사전승인을 취득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 하다.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은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2)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아르헨티나 현지기업이 수입규제 기관인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에 청구하여 실시한 피해사례 조사는 2000년 3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05년 17건, 2008년 6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이다.

수입규제 청구 건수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24	36	28	14	7	18	17	13	10	6	2

주: 신규조사 및 재심조사 청구포함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2009년 9월 기준

아르헨티나는 2009년 4월 기준, 총 39건(반덤핑 38건, 세이프가드 1건)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 39건 중 브라질산 드릴용 공구 등 6건에 대하여 수입규제 연장 여부를 재심 중에 있다.

수입규제 현황

(기준: 2009년 9월)

번호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발효일	기간
1	7306.10 7306.30/50	유물질용 스틸배관	일본	반덤핑	11/06/2008	5년
2	7208 7211.12/14/19 7225.30/40 7226.91	평판 열연강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반덤핑	20/10/2008	5년
3	8714.94/95/96 4013.20 4011.50	자전거	중국, 대만	반덤핑	13/11/2008	5년
4	8207.50	드릴용 공구	중국	반덤핑	30/01/2009	5년
5	3923.90	쟁반	우루과이	반덤핑	05/09/2008	3년
6	7209.15-28 7211.23 7225.50 7226.92	냉연강판	남아공,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반덤핑	11/01/2003 (연장 중)	5년
7	8415.10/83 8418.61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브라질	반덤핑	22/02/2005 (연장 중)	3년
8	4011.50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반덤핑	21/03/2003 (연장 중)	5년
9	7019.39	유리섬유 (실, 직물로 구성)	뉴질랜드	반덤핑	25/03/2003 (연장 중)	5년
10	9017.80	줄자	중국	반덤핑	18/05/2007	5년
11	7210.49/61 7212.30/50 7225.90/99 7226.94/99	아연강판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반덤핑	28/05/2003 (연장 중)	5년
12	8516.40	전기다리미	중국	반덤핑	20/10/2008	
13	6910.10/90	세라믹 위생제품 (양변기 등)	브라질, 우루과이	반덤핑	19/12/2005 (연장 중)	3년
14	2926.90 3808.10	살충제	인도	반덤핑	27/03/2006	3년
15	3907.60	PET	브라질	반덤핑	27/06/2006	3년
16	8415.101 8415.81/82/83 8418.61	에어컨	중국	반덤핑	16/08/2006	3년
17	8523.90	CDR	모든 국가	세이프가드	30/05/2007	3년
18	7019.39	유리섬유(실, 직물 구성)	남아공	반덤핑	04/04/2006	5년
19	7306.40	스테인리스 강제의 튜브	브라질, 대만	반덤핑	19/05/2006	5년
20	8482.10	볼 베어링	중국	반덤핑	31/05/2006	5년
21	8482.10	볼 베어링	중국	반덤핑	06/06/2006	5년

22	7208.10/25/26/27/36/37/38/39/40/51/52/53/54/90	평판압연제품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덤핑	06/06/2006	5년
23	3808.10	알루미늄 인화물 재질 살충제	중국	반덤핑	15/06/2006	5년
24	2933.90	QuizalofopEtil	일본	반덤핑	16/06/2006	5년
25	3808.10	알루미늄인화물 재질 살충제	인도	반덤핑	12/10/2006	5년
26	9617.00	보온병(철제)	중국	반덤핑	27/11/2006	5년
27	8207.50.11	드릴용 공구	인도	반덤핑	21/12/2006	5년
28	8516.50	전자레인지	중국	반덤핑	07/03/2007	5년
29	9504.40	유희용 카드	중국	반덤핑	27/04/2007	5년
30	7306.40/60	강제 튜브	중국	반덤핑	18/05/2007	5년
31	8714.19/92/99	휠림과 스포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반덤핑	22/06/2007	5년
32	8504.23	변압기	브라질	반덤핑	18/07/2007	5년
33	9617.00	유리 보온병	중국	반덤핑	10/10/2007	5년
34	9018.11.00	심전계	오스트리아, 캐나다	반덤핑	07/12/2007	5년
35	8714.19.00 8714.92.00 8714.99.00	휠림과 스포크	중국, 대만	반덤핑	18/01/2008	5년
36	8202.91.00/110 8202.91.00/200 8202.99.90/900	톱날	브라질, 스웨덴	반덤핑	14/02/2008	5년
37	7013.28.00 7013.37.00	유리컵	브라질, 중국	반덤핑	13/03/2008	5년
38	7315.82	철근체인	중국	반덤핑	13/02/2009	5년
39	8536.10, 8536.50, 8536.90	커넥터	독일, 중국	반덤핑	04/04/2009	5년

주: 수입규제 연장 조사 중으로 반덤핑 규제가 유효함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3) 수입사전허가제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9년 3월 4일(관보, Resolución 61) 브라질과의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규제조치 강화책 일환으로 사전수입 승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중국 및 브라질산 섬유 제품·장난감·신발·자전거·가정용 제품·타이어·오토바이 등이 이미 사전수입 승인제도 적용 제품은 4500여 개이다.

2009년 3월 4일 아르헨티나 관보(Resolución 61)를 통해 발표된 사전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제품은 200여 개 제품으로 섬유 제품, 목재가구류, 너트, 농기계류 및 트랙터·에어컨 등이다. 아르헨티나 수입업체가 이 제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9개월이 소요된다.

마. 수입최저가격제도

아르헨티나는 관보 No.31,227호를 통해 2007년 8월 30일, 품목별 최저수입가격 제도 강화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최저가격제도의 주요 검사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1604
 - 3605, 3919, 3920, 3924
 - 4011, 4202
 - 5206, 5208, 5209, 5210, 5211, 5402, 5407, 5513, 5515, 5801
 - 6001, 6006, 6101, 6108, 6109, 6110, 6111
 - 6201/09, 6211/15, 6402/06, 6907/11
 - 7020, 7306, 7307, 7321, 7610
 - 8203, 8205
 - 8301, 8302
 - 8414/15, 8450, 8470/71, 8477, 8481/82
 - 8507/9, 8516/9, 8523, 8527, 8534, 8536, 8544
 - 8708, 8711/2, 8714/5
 - 9003/04, 9006, 9017, 9021, 9202
 - 9401, 9403, 9503/07, 9613, 9617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산지 국가별 그룹(Grupo 1~Grupo21)을 나눠 해당 그룹에 대한 품목별 최저 가격 제도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국은 GR4, GR8, GR10, GR12, GR17, GR20, GR21, GR22에 해당하고, 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이 속해 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여부는 수출업자의 상업송장 허위작성 정도와 양국간 세관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발된 상업송장 허위작성 사례는 많지 않으나 세관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양국은 세관협력을 통한 세관정보 공유 확대를 위하여 2007년 말 당사자 간 협의를 시작했다. 양국 해당기관 모두 세관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최저 수입 가격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정보 공유로 수출 기업의 상업송장 불성실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최근 동향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는 2005 년 13 건, 2006 년 14 건의 피해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나 2007 년 조사 실적은 없다. 2009 년 4 월 기준, 총 39 건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중국산이 17 건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8 건 순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5 년 이후 총 12 건에 대하여 피해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는 2 건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최근 연도 한국산 신규 제소 추이: (2000) 2건 → (2001) 2건 → (2002) 없음 → (2003) 1건 → (2004) 1건 → (2005) 없음 → (2006) 없음 → (2007) 없음 → (2008) 없음

2004년 2월 조사가 시작된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하여 2005년 8월 22일 반덤핑으로 최종 판결하고, 한국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을 수용하였다. 2004년 12월 조사 개시된 한국산 'PET'에 대하여 2005년 9월 22일 반덤핑 무혐의로 최종 판결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냉연강판(12개 품목), 아연강판(8개 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고, 아직까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종료재심 중인 상태이다.

아르헨티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기준: 2009년 9월)

HS Code	상품명	대상국	조치	발효일	기간
7209.15-28 7211.23 7225.50 7226.92	냉연강판	남아공,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반덤핑	2003년 11월 1일 (‘08.1.10 발효 연장)	5년
7210.49/61 7212.30/50 7225.90/99 7226.94/99	아연강판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반덤핑	2003년 5월 28일 (‘08.5.25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	5년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주: 2009년 4월 기준

나.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9년 4월 기준): 2건

1) 규제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12개 품목(냉연강판)

- HS Code: 7209.15.00/16.00/17.00/18.00/25.00/26.00/27.00/28.00/90.00, 7211.23.00, 7225.50.00/7226.92.00
- 제소자: Siderar S.A.(아르헨티나 최대 철강업체)
- 규제일자
 - 조사개시일 및 근거: Resolución 161/2001(2001. 7.19)
 - 예비판정일 및 근거: Resolución 79/2002(2002. 4.30)
 - 최종판정일 및 근거: Resolución 17/2003(2003. 1. 8)
- 규제형태: 반덤핑
- 판정내용: 반덤핑 관세 60.46% 부과
- 규제기간: 2003. 1.13 ~ 2008. 1.12(5년)
- 규제대상국: 한국,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국가별 판정내용

국가	한국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최종 판정	60.46%	83.07%	71.22%	80.61%
예비 판정	50.58%	88.44%	182.76%	137.83%

주: 형의 판정 %

2) 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개 품목(아연철판)

- HS Code: 7210.49.10/61.00, 7212.30.00/50.00, 7225.9200/99.00, 7226.94.00/99.00
- 제조사: Siderar S.A.
- 규제일자
 - 조사개시: Resolución 21/2002(2002. 5.30)
 - 예비판정: Resolución 117/2002(2002.12.26)
 - 최종 판정: Resolución 281/2003(2003. 5.23)
- 규제형태: 반덤핑
- 판정내용: 반덤핑 관세 49.67% 부과
- 규제기간: 2002. 5.30~2008. 5.29(5년)
- 규제대상국: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등 4개국

다. 아시아제품 수입제한 조치예고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2007년 8월 29일 관보 No.31,227호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제조 또는 선적된 제품에 대한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을 발표하였다.

- 규제대상: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상품
- 대상국가: 한국, 북한,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14개국
- 대상품목: 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신발, 의류, 장난감, 오토바이, 자전거, 타이어, 튜브 등
 - 1604
 - 3605, 3919, 3920, 3924
 - 4011, 4202
 - 5206, 5208, 5209, 5210, 5211, 5402, 5407, 5513, 5515, 5801
 - 6001, 6006, 6101, 6108, 6109, 6110, 6111, 6201/9, 6211/5, 6402/6, 6907/11
 - 7020, 7306, 7307, 7321, 7610
 - 8203, 8205, 8301/2, 8414/5, 8450, 8470/1, 8477, 8481/2, 8507/9, 8516/9, 8523, 8527, 8534, 8536, 8544, 8708, 8711/2, 8714/5
 - 9003/4, 9006, 9017, 9021, 9202, 9401, 9403, 9503/7, 9613, 9617
- 규제방법: 수입승인 또는 수출국 영사관의 가격증빙서 요구
- 향후 전망: 한국산 제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는 1995 년 1 월 발효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Mercosur 협정에 의한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관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중남미통합 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WTO 회원국으로 WTO 회원국에 대하여 최혜국(MFN) 대우를 하고 있다. 멕시코와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외 국가인 이스라엘, 인디아,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특혜관세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 개국이 1991 년 3 월 아순시온 협정이 체결된 이후 협상을 진행, 1994 년 12 월 30 일 협상을 종결하고 1995 년 1 월 1 일부터 발효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통합체이다. 베네수엘라가 2006 년 6 월 가입을 확정했으며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준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의 역내관세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이다. 1994 년 '결정 제 24 호'에 의해 4 개 회원국은 경과조치로 예외품목을 선정하고, 설탕, 자동차, 섬유, 신발, 철강 등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 및 쿼터 등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나 아르헨티나의 요구에 의거 유예기간을 5 년간 연장하였다.

2)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법령 제 3869/84 호)

중남미 11 개국은 1981 년 3 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공동체와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rgación)을 설립, 발족하였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 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다.

각 회원국은 1980 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안데안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in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 개국은 1998 년 4 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 년 7 월 1 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하여 양측간 1,000 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조치에 합의하였다.

5) 개별국가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해 4,500 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등 개별국가와 협정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율

원칙적으로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 분류는 HS 코드를 기초로 한다. HS 코드는 8 단위 또는 9 단위로 되어 있고, 6 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 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 단위로 되어 있으며, 이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 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일수록 관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관세율	품 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35%), TV(21%) 등

1) 대외공동관세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 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가 아니고 2006 년 1 월 1 일까지 일반관세를 대외공동관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관세이다.

이 대외공동관세는 HS 코드 8 단위 기준으로 총 8,500 개 품목이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 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2) 주요 예외품목별 대외공동관세 변동 내용

- 철강제품(72, 73, 74, 76 및 78 류): 현행 관세율(24%)을 대외공동관세율(12~16%) 수준까지 점진적 인하한다.
- 신발류 17 개 품목: 현행 관세율(30%)을 대외공동관세율(20%) 수준으로 인하한다.
- 장난감 및 가전제품: 현행 관세율(24%, 29%)을 대외공동관세율(20%)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 수입관련 제세

구분	산정 방식
대외세(A)	관 세 CIF 가격 x 관세율 (0~20%)
	통계세 CIF 가격 x 0.5%
대내세(B)	부가세 (CIF + A) x 21.0% (자본재의 경우 10.5%)
	추가부가세 (CIF + A) x 10.0% (자본재의 경우 5%)
	영업세 (CIF + A) x 3.0%
특소세 시장가격x세율 (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1) 관세: CIF x 관세율

관세율 표에 기재된 각 세번별 세율에 따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

2) 통계세: CIF x 0.5%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 0.5% (1998 년 1 월 이전은 3%)의 통계세가 부과된다.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통계세가 면제되고,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의 경우도 통계세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IVA): (CIF + 관세 + 통계세) x 21%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본 부가가치 세율은 21%이며, 자본재 및 부품류는 10.5%가 부과된다.

4) 추가 부가가치세: (CIF + 관세 + 통계세) x 10%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며 향후 발생할 매출부가세에 대한 선납세 개념이다. 부가세와 추가 부가세는 매월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 시 매출부가세로 공제할 수 있다.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할 경우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추가부가세도 매출부가세로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정부에 지급할 여타 세금과 공제는 가능하다.

5) 영업세: (CIF + 관세 + 통계세) x 3%

수입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평균 3%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한다.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농축산업, 광업 등 1 차 산업: 1.0%
- 제조업: 1.5%
- 무역업, 유통업, 서비스업: 3.0%
- 금융업, 중계업: 5.5%

6) 특별소비세(Internal Tax): 시장판매가격 x 내국세율

주류, 담배, 보석류, 자동차, 휴대폰 등 기호품 및 고가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과율은 7 ~50%까지 다양하다.

7) 기타 제세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된다.

라. 관세환급제도

수출촉진을 위한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준다. 1960 년 법령 22415 호에 근거하여 건별 평가로 시행되어 왔으나, 1991 년 7 월 3 일부터 자동 환급제도로 전환하였다.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증명을 상공청의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환급을 받게 되고, 일단 확인을 받은 반복 수출건은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 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된다.

관세환급용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수출세 환급(DRAW BACK): 관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 내국세 환급: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마.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밀수행위는 6 개월~12 년의 형벌을 부과하고, 5,000 달러 미만의 소액 밀수는 2~10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를 방조하는 행위 또는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와 불성실한 세관신고나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상품의 선적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제도 개요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거나 △형식승인을 받거나 △관계당국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 강제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등록·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인증·등록·허가 필요사항

대분류	관계기관	세부품목	비 고
식품	ANMAT	의약, 식용 식품 전반	수입품의 경우 사전 등록 및 수입건별로 수입 허가 필요
	IRAM	통조림, 주스, 치즈, 와인, 차 등	제조우수사례(BPM), 농업우수사례(BPA) 인증 (강제사항 아님)
	INTI	식품 전반	식품품질 및 가공공정에 대한 인증 (강제 사항 아님)
	SENASA	동식물 식품 및 소모품, 농화학 폐기물	아르헨티나 검역청에서 인증보다는 검역관련 관리차원의 검사 실시
의약품	ANMAT	의약품 전반	의약품 사전등록 필요
의료 기기	ANMAT	X선 기기, 진단기기 등	의료기술국(Dirección de Tecnología Médica)에서 담당
	IRAM	의료기기 전반	IRAM 표준 4220에 의해 인증
화학	IRAM	PVC 제품, 안전유리 등	IRAM DC PA 001, IRAM DC PA 002, IRAM F 054가 있음.
완구	IRAM	완구 전반	완구 안정성 인증(IRAM F-275)
	INTI	(판매·무료증정용 불문)	완구 안정성 인증
전기 전자	IRAM	고·중압기기, 오디오, 전기제품 등	IRAM 및 INTI 표준에 따라 안전 인증

기계 금속	IRAM	유압기종기, 도로기계, 견인기기 등	안전인증
가스	IRAM	가스제품 전반	가스제품 인증유형: IRAM CD-PA-007
	INTI		아르헨티나가스공사(Energas)의 가스장비 안전표준에 의함
통신	CNC	휴대폰, 무전기, 위성통신장비 등	- 통신위원회(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제품 형식승인, 판매허가 등 담당
수송 기기	CNR	자동차, 트럭 등	- 운송규제위원회(CNR; Comisión Nacional de Regulación del Transporte) - 형식승인 및 관리 등 담당
자동차부품	IRAM	자동차부품	안전성 검사
자전거	INTI	자전거	안전성 검사
	INTI	타이어·튜브	
엘리베이터	INTI	엘리베이터 및 부품	

주: 2009년 기준

나. 인증기관

1) 표준인증 협회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 (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	---

□ 기관 개요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이다.

이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효력을 발휘한다.

IRAM 연락처

- 주소: Perú 552/556 (1068) C.F. Buenos Aires, Argentina
- Tel/Fax: (54-11)4346-0600
- E-mail: iram@iram.org.ar
- 홈페이지: www.iram.org.ar

품목에 따라 IRAM이 독립적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와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등과 공동 인증을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공동인증의 경우 금속제품 IRAM-INTI, 자동차부품 안전 IRAM-AITA, 식품 IRAM-Fundación Argentina 등이 있다.

IRAM은 자체 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품목에 따라 제3의 검사소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IRAM 인증마크



IRAM 인증분야

구분	분야	내용	비고
소비재 제품인증	화학제품	PVC 액세서리, 볼펜, 소화기 충전물질, 반사지, 브레이크 패드 및 용액, PE/PRFV 튜브 안전유리 등 안전성 인증	강제사항
	완구	완구 안전성 인증	“
	농임업 제품	목재, 복사지 등 종이제품 등	“
농식품 IRAM-Fundacion ArgenINTA (공동인증)	농식품 인증	햄버거, 달걀, 치즈, 닭고기, 차	선택사항
	BPM	제조우수사례 인증	“
	BPA	농업우수사례 인증	“
	PI	친환경적 농업에 대한 인증	“
	HACCP	식품 분야에서 위험과 관리의 임계점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
	BPM S.A.	식품부문 제조우수사례 인증	“
	P.O.	유기농 제품인증	“
전기·전자		KTL을 통해 신청 가능 (전기·전자 제품 인증방법 참조)	“
기계·금속		견인장치, 기중기 등 안전, IRAM-INTI 공동 인증	“
가스		가스관련제품 안전성 인증	“

□ IRAM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례

○ 인증관련 법령: 결정문(Resolución) 92/1998

- 저압(低壓)의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법령이다. 아르헨티나 세관은 IRAM 또는 IEC(International Electricity Committee)에서 정하는 표준을 준수하는 전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가한다.

○ 안전규격 등록절차

-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경우
 - IRAM과 협정을 맺은 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증빙서류와 함께 IRAM에 제출하고, 만약 KTL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KTL을 통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국산업 기술 시험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다.
- 아르헨티나에서 직접절차를 밟을 경우
 - 아르헨티나 회사가 직접 수입품을 IRAM에 허가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요기간: 약 6개월)

- ① 회사대표증명서 제출: 아르헨티나회사로서 외국회사의 제품을 IRAM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명시된 위임서류 제출
- ② 등록신청서 제출: 외국회사가 어떤 표준을 통해 생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첨부 필요
- ③ 신청서 검토: IRAM측에서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첫 번째 테스트 종합테스트 검사
- ④ 정밀검사: 검사계획에 따라 제품 정밀검사 실시
- ⑤ 절차검사증명서: 검사 초기단계상의 모든 절차를 마치면 90일간 효력을 가진 IRAM 검사증명서를 발행 받아 상업적 용도로 제품 취급 가능
- ⑥ 실험테스트 실행: 소비자보호/공정경쟁차관실 내의 국내 판매국 지정 테스트기관 또는 IRAM의 담당자 통제 아래 자사 테스트실에서 실험테스트
- ⑦ 검사증명서 발급: 위의 모든 절차가 마친 뒤 IRAM 증명서 발급국에 검사자료를 제출 하면 라이선스 발급
- ⑧ 사후관리: 검사증명서가 발행된 후 IRAM측에서 생산제품이 기본 안전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품질테스트를 수행

2) 산업기술청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 (INTI :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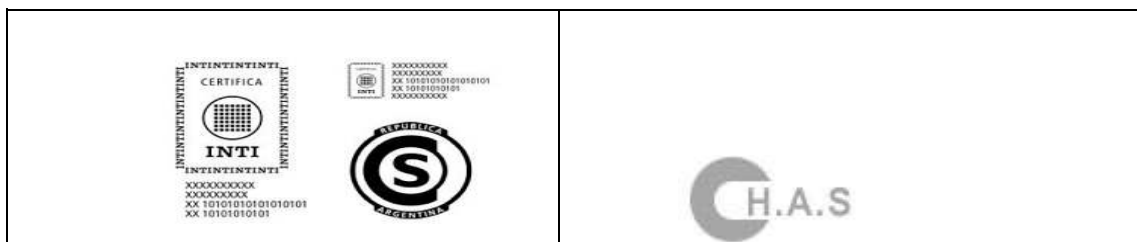
□ 기관 개요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설립근거: Consejo Directivo No. 32/2001)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ó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관계에 있다.

INTI 연락처

- 주소: Av. Gral. Paz 5445(B1650KNA) San Martin, C.C. 157
- Tel/Fax: (54-11)4724-6200/6300/6400
- Email: certific@inti.gov.ar
- 홈페이지: www.inti.gov.ar
- 인증 소요기간: 5~11개월

INIT 인증마크



INTI 인증분야

분 야	업무내용
완구	- 완구 안전성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Resolución) 163/2005
용기 (envase)	-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30/1998
시멘트	-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2/1998
신발	-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508/1999
포장지	-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아르헨티나 가스공사(Enargas) 표준
개인보호 장비	- 개인보호 용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 검사기준 및 근거: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2001
식품	-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 받음.
에너지 라벨링	-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319/1999
자전거	-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088/2004
철강	-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 사용 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404/1999
라이터	-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 튜브, 타이어	-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53/2005
기계.장비	- 플라스틱·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음.

□ INTI 인증절차 (소요기간: 5~11개월)

INTI의 경우도 자체 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품목에 따라 제3의 검사소(검사인)에게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단계	절차	내용 및 관련서류	관련부서
1단계 인증신청	1.1 최초접촉	인증을 위해 INTI 접촉 (인증신청서, 회사 및 제품정보)	INTI(고객담당부서)
	1.2 인증평가 준비	인증신청서, 검사기준 등 파악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검사목록 등)	INTI(인증담당부서)
	1.3 서류준비 신청	서류준비 및 제출	“
2단계 평가	2.1 샘플 제출	샘플 제출(견본수령증)	검사소
	2.2 검사	검사 실시(검사결과보고서)	“
	2.3 품질관리 검사	품질관리 검사(ISO 기준) (품질 검사보고서)	“
3단계 인증마크 발급	3.1 서류 심사	검사결과 등 서류 심사 (인증신청서, 제품정보, 견본수령증, 검사결과보고서, 품질검사보고 등)	INTI(인증부서)
	3.2 인증, 마크 발급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 발급	인증위원회
4단계 사후관리	4.1 제품 검사	공장 또는 시장조사 (검사보고서)	인증부서
	4.2 품질관리 검사	품질관리 검사 (ISO 기준)	“
	4.3. 인증 연장		“

3) 식약청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édica)
--	---

□ 기관 개요

아르헨티나에서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의 인증을 받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령 17/06 호에 의하면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9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 의료기기 인증절차(예: MRI)

○ 제품 구분

- 식약청(ANMAT)은 의료기기를 클래스 1, 2, 3, 4와 체내 진단기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MRI의 경우 클래스 2로 구분된다.
- 클래스 2는 다시 A, B, C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한국은 B 카테고리에 속한다.
 - A: 현지 생산품
 - B: 호주, 캐나다, 유럽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 및 이 국가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
 - C: 이외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

○ 서류 제출

- 해당 의료기기 수입 관세 지불 영수증
- 등록 신청업체의 법적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가 서명한 제품보고서 및 사용설명서

(제품군 등록 시 1개의 설명서에 각 항목 제품별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상품등록청(OAA, 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ón)과 Mercosur에서 인정하는 공식 기관에서 작성한 제품 실험 보고서
- ANMAT에서 발급한 의료관련 업체 허가서 또는 정식 생산 허가서(신청업체에 발급한다)
-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자율 판매 허가서
-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에서 자율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생산 국가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상기 국가에서의 자율 판매 허가서(A 타입) 또는 상기 국가에서 판매 증명서(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자율 판매 허가서)(B타입)
- ※ 원본 및 복사본 제출(스페인어 외 타 언어로 제작되었을 경우 공식 번역 센터에서 번역 후 공증받아야 한다.)
- 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생산업체의 판매 허가서(스페인어 외 타 언어로 제작되었을 경우 공식 번역 센터에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한다)
- ANMAT에서 제품 등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프린트 및 디스켓에 저장해 ANMAT에 제출
- 소요비용: 800 페소 (2009년 8월 기준 환율: U\$ 1= 3.84페소)
- 날인: 등록 신청 업체의 법적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에 사인 및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소요 기간: 업무일 180일(월~금, 8~9개월 정도)
- 수입 및 판매: 제품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 의약품 등록 절차

- 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 제품 정보
 - 성분, 원료 원산지, 용기, 처방 등 정보
 - 원산지, 제조지 정보
 - 아르헨티나 품질 관리 제약회사 정보 등
- 소요기간
 - 제품 등록 여부 검토 120일 이후 40일~60일 이내 제품등록 공시

의약품 등록 시 필수요건사항

필수 표기 사항	내용
제품정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의약품 분류 코드 등에 준하는 분류 코드를 갖춘 의약품
기술정보	관리 방법, 유효 기간, 제품 제조 방법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제조사명, 주소, 기술 책임자명, 제품명, 용량 및 성분, 유효기간, 보관 및 판매 방법, 원산지명, 제품허가번호 등
사용방법	제품 사용량 및 처방 등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 등

아르헨티나 식품의약청은 수입국가를 그룹별 구분해 수입기준 및 절차를 해당 그룹별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국가 경우, 수입 기준 및 절차 방식이 ANEXO II에 속하는 국가에 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의약품 수입국가 분류

그룹	해당국가
ANEXO I	미국, 일본,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ANEXO II	호주, 멕시코, 브라질, 쿠바,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중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자료: 의약행정법령 16463

ANMAT 연락처

- 주소: Av. de Mayo 869 Piso 3 (1084)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4340-0800 ex. 1503
- 팩스: (54-11)4340-0800 ex. 1510
- E-mail: tecmed@anmat.gov.ar
- Web: www.anmat.gov.ar

□ 기타 인증관련 참고사항

- 품질 인증서: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는 제품수입 시 생산업체에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한 CE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창고 허가 규정
 - 법령 28/04에 의하면 의료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ANMAT에서 제정하고 허가하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제품 취급에 적합한 환경 및 청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 2004년부터 발효됐으며 업체들이 시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주었고,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ANMAT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업체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해 기존에 수입을 하던 업체들도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을 준비하지 못한 업체들은 ANMAT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 통신위원회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 (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

- 업무: 통신기기 형식승인, 판매허가
- 주소: Perú 103 (C1067AAC) Buenos Aires - Argentina
- Web: www.cnc.gov.ar
- 참고: 실제 형식승인은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5) 운송규제위원회

	아르헨티나 운송규제위원회 (CNTR: Comisión Nacional de Regulación del Transporte)
---	---

- 업무: 운송기기 형식승인, 판매허가
- 주소: Hipólito Yrigoyen N° 250, CP (1086AAB),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 전화: (54-11) 4349-5000
- Web: www.cnrt.gov.ar

다. 미 이행 시 제재사항

- 수입통관 금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는다.
- 소비자 보호법(법 24240) 제재
 - 벌금: 500~500,000페소(이익의 3배 해당액을 벌금으로 부과)
 - 인증 위반 제품 압수, 최대 30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폐쇄, 최대 5년까지 국가계약 제한, 영업상 향유한 각종 권한 박탈 등의 제재를 받는다.
- 인증기관 제재
 - 인증기준과 다른 제품 판매, 품질관리 미흡, 승인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부착, 인증 마크 미부착 등 인증관련 규정 위반 시 건별·사안별로 심사하여 벌칙이 부과된다.

유통업체 COTO 제재 사례

- 자동차용 냉각수는 아르헨티나 생산 또는 수입품을 불문하고 IRAM 표준 41350, 41368, 41369에 의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 최대 하이퍼 마켓 중 하나인 COTO 사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용 냉각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IRAM은 이 건을 인증위원회(CGC)에 회부, COTO사에 대해 60,000페소(U\$20,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라. 효과적인 인증서 획득방안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 내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원국 발급 인증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인증서 발급 시 참고사항으로서 주요하게 활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한 인증서 역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효과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발급기관과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및 선진국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인증서 발급이 용이한 국가에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활동 전반에 대한 산업재산권 (Propiedad Industrial)과 문화창달을 위한 저작권(Propiedad Intelectual)으로 나누어지며, 산업재산권은 국립산업재산권감독국(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관할 하에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파리협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협정 가입국이다. WIPO 회원국이고, GATT 우루과이 라운드가 정한 의약품에 포함하는 특허권 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따라서 GATT 협정에 의거, 특허를 관리 및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과 상호 등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 지적소유권을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호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취약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나. 특허권

- 관련법규: 법률 24481 호 (1995), 시행령 제 260/96 호
- 보호기간: 20 년, 갱신불가, 이전 가능, 실용모델 경우 10 년
- 특허말소: 등록 후 2 년간 미사용 또는 보호기간 종료 시 효력 상실
- 외국특허: 자국 등록 후 12 개월 이내에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등록 필요, 10 년 또는 자국 보고기간 종료까지 보호

※ 특허출원: 신규 발명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허청(Administración Nacional de Patentes del 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출원을 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불특허품목(법률 24481 호, 7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다. 저작권

- 관련법규: 법률 11723 호(시행령 165/94)
- 관련부처: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산하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 보호대상: 문학, 예술, 음악, 과학 관련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권 등은 보호되지 않고 있다)
 - 보호기간
 - 음악, 문학작품: 등록자의 생존기간(상속 시에는 70 년간 연장/ 1997 년 8 월 개정)
 - 신문, 잡지: 1 년(갱신 가능)
 - 소프트웨어: 3 년
- 외국인 저작권 보호
 - 국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국립 지적재산권 등기소에 등록해야 보호된다.
 - 보호기간: 외국 저작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아르헨티나 법규 기간 내로 한정)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 아르헨티나 발명가 협회(Asociación Argentina de Inventores, AAI)
 - 주소: Ciudad de la Paz 394 (1426)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4553-6009/6351
 - 팩스: (54-11)4555-0662
 - 홈페이지: www.inventores-aai.org
 - E-메일: aai@ciudad.com.ar

라. 상표등록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은 법률 제 22362호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립산업재산권협회 (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소속 상표권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의 법적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무한정으로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 단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유효하다.

상표 등록시 등록 신청인의 법적 주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국립산업재산권협회(INPI)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상표 등록 후 의무적으로 국립산업재산권감독국을 통해 1일 동안 관보(Boletin de Marca)에 게재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법률 22362 호
- 등록처
 - 기관명: 지적재산권청 (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 주소: Paseo Colón 717 Cap. Fed.(C.P. 1063)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4344-4975/ 4967/68
 - E-mail: InfoMarcas@inpi.gov.ar
 - 홈페이지: www.inpi.gov.ar
- 신청자격
 - 자연인, 법인, 피위임자(위임장 필요), 상표등록 에이전트(위임장 불요)
 - 신청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 서류제출 후 40 일 이내에 상표권 신청을 위임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기간
 - 상표등록증 교부: 등록절차에 반대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7 개월
 - 상표권 사용: 상표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10 일 이후
- 유효기간: 상표등록 허가일로부터 10 년, 이후 갱신 필요
- 상표등록 신청서류
 - 상표등록신청서 원본 1 부 및 사본 3 부
 - 사본의 경우 원본의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복사 후 직접 서명할 것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법적 주소지를 가지고 있을 것
 - 상표의 일부 또는 전체가 특수한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복사본(facsimil)을 신청서에 붙일 것
 - 위임장(제 3 자에 위임하는 경우)
 - 정관 등 회사 증빙서류(법인인 경우)
- 상표등록 진행상황 문의처
 - 전화: (54-11) 4344-4975
 - e-mail: InfoMarcas@inpi.gov.ar

마.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및 규제되어 있다.
- 관련법규: 법률 11723 호, 법령 165/1994 호, 법 24870 호, 법 25036 호
-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민사 및 형사 조항을 함께 적용하며, 이에 저촉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Ley de Promoción de la Industria del Software):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4 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제품 수입 및 세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 적용혜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사업자는 고용주 부담 및 각종 세금의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금의 60%가 환급된다.
 - 기한은 2014 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바. 기술이전

- 관련법률: 법령 22426 호, 공시 P-328/2005 호
- 규정범위: Engineering, Advisory, Technical services
- 이전 신청: 허가사항은 아니나 사전 신고 필요
- 기관: 국립기술 이전감독국(Dirección de Transferencia de Tecnología)
 - 홈페이지: www.inpi.gov.ar/templates/transftecnologia.asp
 - 주소: Paseo Colón 717, Capital Federal(INPI 내 위치)

사.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불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송금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03년부터 로열티 등에 대한 송금을 허가하고 있다. 송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1) 통관업무 흐름도



2) 수입신고 방법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á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이 마감되면 마리아 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 검사 방법이 지정되어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3) 세관검사 방법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관검사를 한다.

-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1999년 1월 19일부터 수입품의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세관검사 방법에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세밀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으로 10일 내외가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 보증금으로 공탁한다.

4) 관세 등 세금 산정방식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통상 수입가격(CIF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가격 모니터링제(REDI)에 따라 아르헨티나 관세청이 고시하는 품목은 수입 최저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수입 시 부과되는 제세금

구분		산정 방식
대외세 (A)	관세	CIF 가격 x 관세율
	통계세	CIF 가격 x 0.5%
대내세 (B)	부가세	(CIF + A) x 21.0% (자본재의 경우 10.5%)
	추가부가세	(CIF + A) x 10.0%
	영업세	(CIF + A) x 3.0%
특별소비세		시장가격 x 내국세율 (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주 1: 특소세-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

주 2: 통계세-MERCOSUR 역내제품, 잠정수입, 면세 수입 시는 면제

(자세한 사항은 III. 무역 항의 5. 관세제도 참고)

5) 통관 서류

- 수입신고서
- 선적관련 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 ▶포장명세서(P/L) ▶수출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수입 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6) 소요시간 및 세관 업무시간

선적서류의 기재 정도와 '컨테이너'의 경우 FCL인지 LCL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경우 평균 3일, 해상화물인 경우 4~5일 정도 소요된다.

세관의 업무시간은 월~금, 08:00~13:00, 14:00~17:00이다. 세관은 품목별로 지정된 세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7) 지정 세관 이용 의무

품목별 세관지정 현황

품목번호(HS Code)	통관 세관
392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4202, 420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50-60, 5201 제외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Puerto Iguazu, Bahia Blanca, Santa Fe, Puerto Madryn
6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6911, 6912, 69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0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117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7321, 732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 Javier
82, 83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Paso de los Libres, Santo Tome, Campana
8415, 8418, 8421, 8422, 8450, 8452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8467, 8470	Buenos Aires, Ezeiza, Cordoba, Mar del Plata
8471, 8473	Buenos Aires, Ezeiza, Cordoba, Mar del Plata, Rosario, Campana
8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Santo Tome, Campana
8708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Santo Tome, Campana, Villa Constitucion, San Javier, San Luis
8711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8712	Buenos Aires, Ezeiza, Rosario
8714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9017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 Santo Tome
91	Buenos Aires, Ezeiza, Rosario, Cordoba, Campana,
940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Mar del Plata , Santo Tome
9503, 9504, 9505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96	Buenos Aires, Ezeiza, Rosario, Paso de los Libres, Cordoba, Campana,

관세청은 2008년 8월 24일 관보를 통하여 품목별 수입통관 세관을 지정 및 발표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도착지를 달리하여야 한다. 품목은 아르헨티나 소비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재수출용은 제외된다.

8) 통관절차 특별조치

1997년 3월 탈세와 세관의 부정부패의 사전방지 및 창고화물 적체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행정령(379/97)으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에 통관수속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륙지방 목적지 세관에서의 수입화물 반출은 1997년 4월, 도착지 항구 세관창고 보관 기간을 10일로 단축(일수단속 명분)하였다.

화물 운송업체는 화물 목적지 도착 시까지의 보험가입과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9) 통관운송 시 참고사항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하므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 및 수입가 신고로 통관지연 및 벌금부과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007년 8월 최저수입가격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국 주재 아르헨티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재 상사들은 최저가격제도 적용대상품목 여부가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받고 있다.

10) 등록 통관사 이용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의 선정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제도의 투명성 부족으로 세관에 따라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운송

1) 개요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항공·해상·육상 교통망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망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족하여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물동량 중 90%는 해로 또는 수로를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는데, 주요 교역 대상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는 주로 수로를 통하여 교역을 하고 있다.

2) 공항

아르헨티나에는 57개 공항이 있고 이중 27개가 국제 공항이다. 33개 공항이 현재 민영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2억 2,800 만 달러가 투자되어 공항 이용객 수를 2010년 2,300만 명, 2025년 3,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국제공항으로는 에세이사 공항과 국내공항으로는 호르헤 뉴베리 공항이 있다. 2008년 기준 공항 이용승객은 1,517만 명이었으며, 2008년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936만 명, 내국인 출국자 수는 580만 명이였다.

-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Ezeiza 국제공항)
 - 주소: Autopista Tte. Gral. Riccieri s/n (1802), Ezeiza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위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36km 지점에 위치
- Aeroparque Jorge Newberry(국내 공항)
 - 주소: R. Obligado s/n (142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위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북서쪽 시내에 위치
 - 특징: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와 이과수 왕복, 아르헨티나 국적 항공기는 국제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동 공항에서 운항

3) 항구

대서양 해변을 따라 38개의 항구와 주요 강변을 따라 25개의 항구가 있다. 수출상품은 로사리오, 바이아 블랑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라테, 캄빠냐 항을 주로 이용하며, 수입상품은 산 니콜라스, 수드, 캄빠냐, 비야 콘스띠뚜시온, 께켄 항에서 주로 처리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항구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국제항구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최고처리 용량은 1,200만 TEU이다. 라 플라타 항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남쪽으로 60 km 거리에 있는 라 플라타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로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서양 연안 에 위치한 바이아 블랑카, 께켄-네키체아, 꼬모도로 리바다비아, 부에르토 마드린 등도 주요 항구들이며 이들은 주로 어업활동의 중심항구 역할을 한다.

- 주요 홈페이지
 - 아르헨티나 항구: www.puertosdeargentina.com.ar
 -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www.puertobuenosaires.gov.ar
 - 항만관리위원회: www.consejoportuario.com.ar

4) 도로

아르헨티나의 도로 총 길이는 약 50 만 km 며, 이 중 약 40 만 km 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로다. 국도는 38,464km 로 도로 포장률이 86.4%다.

국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꼬르도바, 라 팜파, 멘도사, 산 루이스,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뚜꾸만, 살타, 후후이, 꼬리엔테스, 차코, 미시오네스 등의 13 개 주를 가로 지르며 육상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9 개의 도로건설 관련 회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도는 총 길이가 191,673km 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31 개의 노선이 있으며 그 길이는 36,582km 에 달한다.

아르헨티나의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포장연령이 25 년을 초과한 도로가 많아 지방의 경우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많다. 현재 정부는 도로망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제한으로 인하여 도로보수 및 확장은 수도권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도로사정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2007 년 운행 중인 자동차 대수는 약 900 만 대로 이 중 5%가 화물차다. 화물차의 95%는 국내 화물운송용이며 나머지 5%는 국경접경지역 국가간 화물운송용이다. 국내 운송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꼬르도바, 로사리오간의 운송 양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한다. 국도를 통한 국제 화물 운송량은 연간 2,500 만 톤 수준이며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교역에 따른 것이다.

4) 철도

아르헨티나의 총 철도길이는 35,753km 로 중남미에서 가장 광대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7 개 노선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지나고 원거리 노선은 전국 각지를 연결한다. 교통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 년 수도권 철도 이용객 수는 4.45 억 만 명, 원거리 노선 이용객 수는 348 만 명, 지하철 이용 승객은 2 억 8,739 만 명이였다.

2007 년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사르미엔토(FCDFS) 노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위치한 온세 역(Estación Once)에서 출발하며 도착지는 메르세데스 역(Estación Mercedes), 로보스 역(Estación Lobos)이다.

주요 철도 역으로는 미뜨레(Mitre), 벨그라노(Belgrano), 산 마르틴(San Martín) 노선의 출발지인 레티로 역(Estación Retiro)이 있다. 철도 화물운송은 6 개의 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7 년도에 처리한 화물은 2,492 만 7,000 톤에 달한다.

여객운송은 4 개의 민간회사와 정부에 의하여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지역 통합을 목적으로 철도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Eurnekian, Cartellone, 칠레의 Tecnicagua, Petrolera del Sur, 브라질의 Camargo Correa 사의 투자로 아르헨티나 멘도사주와 칠레 국경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철도 건설에 더해 고속전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사업예산은 40 억 달러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사리오-꼬르도바 간 약 700km 를 시속 250km 로 주행한다. 사업은 프랑스 Alstom 사가 주관하여 2010 년 완공될 예정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시장특성

- 중남미 3 위 경제대국, 스페인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GDP 면에서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3 위, 인구 3,897 만 명 시장
 - '08 년도 구매력(PPP) 기준 1 인당 GDP 14,413 달러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중남미 3 위 차지
 - 수출입 규모 면에서 2003 년 이후 연평균 20% 증가세, 2008 년 사상 최대 1,200 억 달러 초과

중남미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국가

사회경제지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남미평균
인간개발지수(HDI)	0.863	0.792	0.859	0.821	0.795
평균수명	74.6	70.8	78.1	75.3	71.7
영아사망률(100명당)	16	32	8	23	26
1인당보건지출(US\$)	1,067	597	707	582	n/a
문맹률(%)	2.8	11.4	4.3	9.0	10.8
R&D 종사자(100만 명당)	720	344	444	268	306

자료: UNDP

주: 2009년 9월 기준

중남미 주요국 경제규모 비교(2008 년)

구분	명목GDP (억 달러)	1인구매력 (달러)	인구 (백만 명)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아르헨티나	3,265	14,413	40	706	574
브라질	15,728	10,326	191	1,979	1,731
멕시코	10,881	14,560	106	2,927	3,088
베네수엘라	3,194	12,785	28	691	461
콜롬비아	2,407	8,215	48	732	779
칠레	1,696	14,510	16	696	564
페루	1,276	8,580	29	312	300
에콰도르	526	7,685	14	138	136
우루과이	323	13,295	3	59	89
파라과이	160	4,778	6	44	85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IMF, World Trade Atlas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생산 거점 및 무역장벽회피 투자지로서 유망
 -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거점
 - 무관세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내 투자진출 활성화 필요
- 남미연합(UNASUR) 출범
 - 2008 년 5 월 23 일 출범한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 MERCOSUR 와 CAN(안데스공동체)에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을 더해 총 12 개국이 참여, 국내 총생산 2 조 달러, 약 4 억 명의 인구
 -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 진출 교두보

UNASUR의 경제 규모 및 구성(2008년)

국가	인구(백만 명)	GDP(백만 달러)
아르헨티나	39.7	326,474
칠레	16.7	169,573
우루과이	3.2	32,262
파라과이	6.2	16.0
브라질	191.9	1,572,840
볼리비아	10.0	17,413
페루	28.7	127,598
에콰도르	13.9	52,572
콜롬비아	48.3	240,654
베네수엘라	28.1	319,443
가이아나	0.7	1,130
수리남	0.5	2,984
합계	32.33	2,862,959

주: 2009년 9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자료: IMF

○ 풍부한 자원 보유국가

- 광물 자원 잠재보유량 세계 6위, 전체 광물의 70%가 미개발 상태
- 대표적인 광물: 금, 동, 납, 아연, 봉산염 등
- 2007년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13억 8,000만 달러, 광물자원 개발에 14억 7,000만 달러 투자
- 주요 식량자원 생산: 해바라기 기름(생산·수출 1위), 대두유(수출 1위, 생산 3위), 꿀(수출 1위, 생산 3위), 옥수수(수출 2위), 대두(생산 3위), 소고기(생산 3위), 포도주(생산 5위) 등
- 우리나라의 안정적 자원공급처: 우리나라는 대두유(공기름) 수입물량의 85.6%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 대두박(2위), 소가죽·땅콩(3위), 치즈(5위) 등도 주요 수입품목

○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지배시장

- 아르헨티나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 중 외국계가 전체의 71.3% 차지
- 외국계 중에서는 스페인계가 압도적으로 100대 기업 중 석유, 전화, 가스, 항공부문의 4개 기업만으로 13.2% 차지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1) 내외국 비차별

외국인 투자를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반면, 특별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인플레이,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채, 만성적인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외자유치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2) 투자제한 분야

핵에너지, 방위, 방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개방되어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구, 항만 등 기간산업분야도 개방되어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하다.

또한 전자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토 최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에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 장려 및 제한업종

장려분야	제한분야
광업, 소프트웨어, 바이어연료, 임업, 관광, 자동차, 생명과학(BT), 석유·가스 탐사 등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등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개발청 Prosperar

3) 다국적기업 진출 활성화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의 자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M&A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 396호를 공포하였다. 동 법률에 의거 일반기업은 물론, 상장기업에 대한 주식구매 한도와 자본참여를 무제한 허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500대 기업의 현황을 보면 이 중 300개 이상이 외국 기업이다. 식품, 금융, 석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다. 투자허가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투자 허가 절차나 규정은 없다.

라. 투자유망 분야

1) 광업

Mining Journal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광물자원 잠재 매장량이 세계 6위(Mining Journal)로 국토의 75%가 미탐사 상태에 있고, 광물자원 개발투자 기회도도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칠레와 볼리비아와 국경이 인접한 길이 4,500 km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의 탐사 및 채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칠레와의 지리적 유사성으로 대규모 동(銅) 매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투자에 따른 내부수익률은 금 세계 2위, 동 세계 3위 등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석유·천연가스 개발

아르헨티나는 가스 생산 남미 1위, 원유 생산 남미 3위의 국가로 유전 19개 분지 중 5개 분지만 생산 중에 있으며 해상개발 및 북동지역 개발 부진 상태로 추가 매장량 확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르헨티나 석유·가스분야의 사업성공률은 42%로 높은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주)동원과 (주)골든 오일이 투자한 경험이 있다.

3) IT 개발 센터

IT 업종의 경우는 인텔 등 다국적 기업의 저렴한 고급인력을 이용하여 코르도바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스페인어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 연구소로 아르헨티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4) 가전제품 조립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는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위치한 특별관세지역으로 조립, 포장 및 가공 전문단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를 포함하여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협약에 의거, 2013년까지 이 지역에는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하다. 이 주의 우수아야(USHUAIA), 리오 그란데(RIO GRANDE) 등의 도시는 보세지역 및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현재 가전제품 조립생산에서 휴대폰, 컴퓨터, LCD TV 등의 조립생산이 가능하다.

5) 농축산업, 식품, 음료

아르헨티나는 한반도의 12.5배에 달하는 영토에 풍부한 식량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해바라기유, 대두유, 꿀, 옥수수, 쇠고기, 포도주 등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대상지이다.

6) 관광·호텔

아르헨티나 관광산업에 투자 붐이 불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수, 빠따고니아(우수아이아, 팔라파페), 멘도사 등에 투자 집중되고 있다.

7) 바이오 연료

아르헨티나는 대두, 옥수수, 사탕무 등의 세계적 생산지로 바이오 연료의 원료조달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5월 바이오 연료 진흥법을 제정해 투자업체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는 휘발유·경유 등 액체연료에 5% 이상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0년 아르헨티나 바이오 연료 생산은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0만 톤 규모의 공장설립에 2,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나, 12만~20만 달러의 소형 투자도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2.0'이 2007년 8월 전 세계 신흥국가에서 창업하기 유망한 아이템 12가지를 꼽으면서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을 두 번째로 선정하였다.

마. 투자 진출 유의 사항

1) 현지법인 설립에 장기간 소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복잡한 투자절차 및 관료주의로 현지법인 설립에 실제 1년 이상 소요된다.

2) 강성 노조 및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완전 개방되어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조의 세력이 대단하며, 노동법이 까다로워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3) 기업하기 어려운 조세 구조

부가세 환급이 최장 1년 이상 소요되고 부가세(21%), 추가부가세(10%), 소득세(3%)를 선납해야 하므로 운영자금에 과다하게 소요된다.

4) 부정부패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반부패 지수는 2.5로 108위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절차, 원자재 및 기계류 반입 등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5) 수출세·광업세 부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 및 재정확보를 위해 모든 수출상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등은 5%, 부가가치율이 낮은 원유는 45%, 천연가스는 100%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은 최고 44%가 부과되며, 광업세는 10% 부과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대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는 2002년 디폴트 선언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2004년 증가율이 177.5%나 증가했다. 2008년 아르헨티나 총 투자액은 330억이었으며,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4년 52.7억 달러 △2006년 50.0억 달러 △2007년 57.2억 달러 2008년 상반기 36.6억 달러이다.

2007-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분기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분기	2분기	상반기
2007	1,127	1,100	2,227
2008	2,542	1,117	3,659
증가율	125.6%	1.5%	64.3%

주: 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자료임.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ProsperAr)

나. 외국인 투자 특징

업종별로는 석유·가스·광업(추출활동) 33%, 사회간접자본 31%, 제조업 22%, 유통·서비스 13%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별 투자액 누계비중은 석유·광업 37%, 유통 24%, 제조업 22%, 은행 10%, 기타 7% 등으로 석유·광업이 투자 대상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로 중소형 투자보다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투자 분야인 석유·가스의 경우 Repsol-YPF, Pan American, Petrobras, Chevron Texaco, Total Austral, Pluspetrol 등이 주요 기업이다. 제조업은 아르헨티나의 식량자원을 이용한 식음료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전체 업종	11,552	100	12,605	100
광업(원유)	3,008	26	4,183	33
기간 산업	3,607	31	3,959	31
제조업	3,660	32	2,744	22
서비스업	1,186	10	1,686	13
1차 산업	48	0.4	18	0
금융업	43	0.4	15	0

주: 2008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없음

자료: 아르헨티나생산연구소(CEP)

2007년 외국인 투자는 총 1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대부분 자본형성투자는 98억 5,000만 달러, M&A는 35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투자액은 2006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자본 형성부문 투자는 9.9% 증가했다. 2005년 외국인 투자는 총 102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총 투자액 중 자본 투자는 126억 달러, M&A는 54억 달러로 두 분야의 투자가 압도적이다.

투자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투자실행액	4,265	5,263	10,028	14,224	19,165	18,122
M&A형 투자	2,071	1,635	2,864	4,588	7,613	5,425
그린필드(신규) 투자	2,194	3,628	7,164	9,635	11,552	12,605
증액	1,541	2,381	5,296	7,373	8,135	-
신규 분야 진출	653	1,247	1,868	2,262	3,417	-

주: 2008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없음

자료: 아르헨티나생산연구소(CEP)

□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이 외국인 투자 주도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광업 에너지	1차 산업	유통·서비스	금융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계	비중
계	1,947.6	5.2	412.6	10.8	2,070.5	2,303.8	6,750.5	100.0
스페인	862.5	5.2	95.7	3.4	513.9	740.6	2,221.3	32.9
미국	141.5	-	178.4	4.9	372.6	339.9	1,037.3	15.4
브라질	287.6	-	-	0.5	365.7	22.4	676.2	10.0
멕시코	-	-	8.5	-	0.3	438.2	447.0	6.6
캐나다	403.6	-	-	-	33.0	8.5	445.1	6.6
이탈리아	-	-	3.6	-	24.4	336.1	364.1	5.4
칠레	25.5	-	76.7	-	74.4	140.0	316.6	4.7
영국	28.3	-	-	2.1	173.6	87.9	291.9	4.3
프랑스	-	-	16.6	-	194.1	72.5	283.2	4.2
독일	84.0	-	0.4	-	118.6	2.2	205.2	3.0

자료: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소(CEP)

주: 2007년 자료, 2008년 업데이트 자료 없음

2007년 대 아르헨티나 주요 투자국가는 스페인, 브라질, 미국, 칠레이며, 스페인계 주요 기업은 Repsol(석유화학), Telefonica(통신), BBVA(은행) 등이 있다.

미국계 기업은 Nextel(통신), Cargill·Bunge(농업), Hilton(호텔), 브라질계 기업은 Petrobras(석유·화학), 프랑스계 기업은 Carrefour(유통), PSA(자동차) 등이 있다.

다. 주요 투자진출 계획

1) 자동차

- 이탈리아 Fiat: 1억 4,000만 달러, Cordoba 공장에 Tata 그룹과 합작으로 승용차 및 화물차 생산라인 확장
- 프랑스 Renault: 2억 달러, 중형 승용차 생산라인 신설
- 일본 Honda: 1억 달러, Zarate 지역에 신규 생산라인 건설
- 미국 Ford: 1억 5,000만 달러, 2008년 Focus 생산 및 Pick up 생산
- 미국 GM: 1억 5,000만 달러, 중형 승용차 생산라인 신설

2) 통신

- 멕시코 CIT: 2억 5,000백만 달러, 3G 이동통신망 건설
- 스페인 Telefonica: 19억 달러, 향후 3년간 통신망 확대

3) 유통

- 프랑스 Carrefour: 3억 달러, 영업망 확대 및 현대화
- 칠레 Cencosud: 5억 달러, 영업망 신설
- 미국 Walmart: 1억 달러, 영업망 확대

라. 지역별 투자유치 현황

2007년 자본형성부문 투자의 53%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주, 코르도바주를 중심으로 한 팜파지역에 집중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쿠요와 북서부 지역은 광업과 농업, 북동부 지역은 농·임업, 파타고니아 지역은 관광업과 농·목업에 집중되었다.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주	투자액	비중
팜파지역		10,589	46.1%
	부에노스아이레스주	5,877	55.5%
	부에노스아이레스시	1,658	15.7%
	산타페	1,608	15.2%
	코르도바	1,438	13.6%
	엔트레리오스	1	0.0%
	라팜파	7	0.1%
파타고니아지역		2,341	10.2%
	추뵈트	643	27.5%
	네우켄	328	14.0%
	리오네그로	141	6.0%
	산타크루스	596	25.5%
	티에라델푸에고	633	27.0%

주요지역	1,412	6.1%
산루이스	47	2.0%
산후안	1,227	52.4%
멘도사	138	5.9%
북서부지역	766	3.3%
북동부지역	401	1.7%
기타	7,462	32.5%
계	22,971	100.0%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ProsperAr)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 동향

1) 원자재·식량 공급지로서의 투자잠재국가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액은 2008년 신고건수 125건, 1억 5,704만 달러이다. 전체 해외 투자 금액의 0.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미환율을 1:1로 유지하는 태환제를 실시한 1990년대에 증가하였으나 경제침체기인 2000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며 2004년과 2005년에는 투자가 없다가 2006년 2건, 2007년 3건, 2008년 3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0까지	46	107	322,145	342	152,020
2001	2	1	4,310	2	3,255
2002	0	0	0	2	6,655
2003	0	2	13,700	0	0
2004	0	0	0	0	0
2005	0	0	0	0	0
2006	2	4	44,637	2	3,251
2007	3	6	21,772	9	5,129
2008	3	5	21,130	7	7,238
계	49	125	427,694	364	157,03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전자·광업·수산업 위주 투자

2008년 기준 아르헨티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은 총 13개사이다. 전자분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전자 3개사와 (주)대우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가 있으며 펠텍은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경영정책상 철수하였고, 에이전트를 운영 중이다.

석유탐사 분야는 (주)골든오일과 페트로 테라가 진출하여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유통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12개의 수산회사가 합작법인의 형태로 진출하였으나 현재는 한성기업, 동남 등 5개사만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법인건수	법인투자	지점건수	지점투자	지사건수	지사투자
농림어업	21	29,434				
광업	9	52,903				
제조업	13	11,015	1	1	2	1,677
건설업	1	1,805				
도·소매업	4	61,625				
서비스업	1	255			2	232
계	49	157,037	1	1	4	1,9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1968~2008년 누계기준)

3)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2002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은 2002년 하반기에 현지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수하였다. 현대종합상사,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철수하였고, 기존 기업은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1인 주재 법인(지사)으로 운영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는 아르헨티나 경기 회복에 따라 한국기업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아르헨티나 경기회복으로 2004년 현지시장 재공약을 위해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일류 생산·판매 업체인 아우디낙(Audinac)사와 제휴, 대우 브랜드 TV, VCR 제품의 현지 생산을 시작하였다.

삼성전자 등 각 법인(주재상사)은 2007년 들어 주재인원을 증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는 아리온테크놀로지 등이 지점 설립을 추진 중이다. LG전자는 LCD TV생산을 위하여 협력 파트너인 BGH에 3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삼성도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을 위하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지사 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 이다.

나. 아르헨티나 진출 기업 현황

업종	진출 업체	진출연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취급분야: 전자제품 ○ 종업원 수: 6명(한국인), 30명(외국인)
	LG전자	1986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전자제품 ○ 종업원 수: 10명(한국인), 70명(외국인)
	대우일렉트로닉스	2004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본사영업활동지원(자료수집, 바이어 발굴 및 지원) ○ 종업원 수: 3명(한국인), 2명(외국인)
	펜택	2007	○ 법인 철수 후 에이전트 운영 중
	아리온테크놀로지	설립 중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제조업 ○ 취급분야: 디지털수신기, 이동방송수신기 판매 공급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상사	대우 INT'L	1977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취급분야: 무역, 자원, M&A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5명(외국인)
자원	(주)골든오일	2004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취급분야: 원유·가스 개발, 판매 등 자원협력 사업 ○ 종업원 수: 4명(한국인), 10명(외국인)
	페트로 테라	2005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광업 ○ 취급분야: 석유 및 천연가스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15명(외국인)
수산	한성기업	1985	○ 진출형태: 생산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어업 ○ 취급분야: 수산업 및 무역 ○ 종업원 수: 2명(한국인), 6명(외국인)
	(주)동남	1992	○ 진출형태: 생산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어업 ○ 취급분야: 선박 운항 및 판매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4명(외국인)
	동아 아르헨티나	1991	○ 진출형태: 생산법인 ○ 투자형태: 합작 ○ 업종: 어업 ○ 취급분야: 선박 수리, 운항, 생산 및 판매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6명(외국인)
	가나마린	1991	○ 진출형태: 생산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어업 ○ 취급분야: 오징어 조업 및 수출 ○ 종업원 수: 1명(한국인), 4명(외국인)
	에스텔마르	1998	○ 진출형태: 생산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어업 ○ 취급분야: 생산 및 수출 ○ 종업원 수: 4명(한국인), 4명(외국인)

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자체 조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장려 및 제한

특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부문을 정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 등이다. 공업진흥법으로 신규 공장 설립 금지지역으로 수도권(부에노스아이레스)내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수도권 60 km 이내 지역, 로사리오, 코르도바 등 대도시 지역은 투자 인센티브 수혜대상 제외지역으로 정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 장려 및 제한분야

장려분야	제한분야
광업, 소프트웨어, 임업, 관광, 자동차, 생명과학(BT), 석유·가스 탐사 등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등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개발청(Prosperar)

□ 자본 및 인프라 투자촉진법 제정

○ 법령 취지

- 2007 년 10 월 시효 만기된 투자활성화 관련 법령 제 25.924 호를 보완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008 년 신규 개정하였다. 투자활성화법 제정으로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참석위원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입법 통과되었다.
- 특히 신임 경제부장관의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득작업이 법안 통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 법령 개요

- 법령명: 자본재 및 인프라 투자 촉진법(Ley de fomento a las inversiones de bienes de capital en la industria y para obras de infraestructura)
- 입법일자: 2008.2.13.(화)
- 시행기간: 3 년(2007.10.1.~2010.9.30.) 소급적용
- 시행기관: 경제부(Ministro de Economía)
- 주요내용: 자본재 가속상각허용, 법인세 감면, 부가세 조기환급, 환경대책

○ 수혜요건

- 지원한도: 인프라- 무제한, 일반 프로젝트- 연간 3 억 1,700 만 달러, 중소 프로젝트- 연 6,300 만 달러
- 신청방법: 공해방지를 위한 청정생산(Producción limpia) 또는 산업경쟁력강화(reconversión industrial sustentable) 계획서 제출을 NITI 에 제출
- 수혜대상선정: INTI (산업기술청)이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를 기초로 공해방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수준을 평가 및 지원규모 결정

나. 투자 인센티브

1) 개 요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989 년 외국인 투자가 내국인 투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0~1993 년까지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가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의 비교우위 및 대외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르헨티나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처럼 노동권, 기업운영, 자산의 매매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006 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종전의 ADI 를 확대 개편하여 투자진흥청 Prosperar 를 설립하였다. Prosperar 는 사장이 차관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며 외교 장관, 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개발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2) 일반 인센티브

□ 초기 투자비 절감 인센티브

신규 투자(green field) 및 증설투자(brown field)에 대하여 공여되는 것으로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이다.

- 투자촉진법
 - 투자관련 부가세의 환급(accelerated reimbursement) 및 가중 감가상각이 2004 년 9 월부터 허용하였다. 수출기업은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비 수출기업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감가상각은 기업의 초기 조세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본재는 대차 대조표 상에 3 년간 구입으로 기재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감가상각의 경우 통상 기간 보다 50%를 줄인다. 부가세는 구입 후 3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된다.
- 대형 산업투자 수입 특례
 - 자본재 수입 시 영세율 적용, 관련 부품의 경우 자본재 가격의 5% 이하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감면)
 -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시행령 제 8/2001 호에 따라 2001 년 3 월 23 일부터 700 개 품목에 달하는 자본재 수입관세가 면제(감면)되고 있다.
-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특례: 일반 부가세(21%)보다 낮은 10.5% 적용된다.

□ 수출 촉진 인센티브

아르헨티나 법률은 23 개 주와 4 개 특별지역 등 총 27 개의 자유 무역지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추붓, 라 팜파, 멘도사, 미시오네스, 살타, 산 루이스, 산 루이스 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 수입 관세, 통계세가 면제되며,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 요금에 대한 부가세와 국내세가 면제된다
- 환급제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 통계세, 부가세 등이 환급된다.
- 임시 수입 통관: 수출용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반입이 허용된다. 이때 재수출 담보용 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수출 시 이 증서는 취소된다.
- 보세구역 설정: 수출용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하여 무관세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 세금 환급: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 생산되고 MERCOSUR 지역 이 외로 수출되는 경우 최고 간접세의 6%까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이 환급된다.

□ 중소기업 인센티브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사회보장세 감면: 80 인까지 신규 고용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감면한다. 기간은 12 개월로 업종에 따라 감면 폭은 사회보장세율(23%)의 33~50%이다.
- 교육비 지원: 종업원 교육을 위해 연봉의 8%까지 교육비로 세금을 감면한다.
-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 금융지원: 특혜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3) 산업 분야별 인센티브

□ 광업 장려제도

광업 관련 탐사, 채굴 및 생산 과정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탐사(exploration) 투자 인센티브
 - 탐사비용 이중 공제: 광업법은 ‘광업 투자등기소’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 탐사 등 프로젝트 타당성 결정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법인세 산정 시 공제하고 ▶ 연방 소득세 법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한다.
 - 부가세 환급: 탐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를 12 개월 후 환급된다.
- 채굴(extraction) 및 생산(production) 인센티브
 - 30 년간 재무 안정: 광업 투자등기소에 등록된 광업사업은 30 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가중 감가상각: 기업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 3 년간 ▶ 장비, 건축 및 인프라의 경우 60%, 20%, 20% 비율로 각각 상각하고 ▶ 기계, 차량 및 설비 등 고정자산의 경우는 1/3 씩 각각 상각한다.
- 수입관세 면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공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면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채굴 및 생산 비용의 5%까지 소득세에서 면제 또는 공제한다.
 - 부가세 환급: 광물 생산을 위한 자본재 구입 및 인프라 투자에 부과된 부가세의 경우 광업 당국에 제출시 60 일 이내에 환급된다.

□ 임업 장려제도

임업 투자법(법령 25080 호)은 1992 년부터 산림조성을 위한 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 28080 호는 2010 년까지 산림 300 만 헥타르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30 년간 조세 안정: 임업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30 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재무안정 기간은 농·목축·수산 및 식품부가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5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소득세 공제 특별 제도: 3년간 가중 감가상각 옵션을 제공한다.
- 부가세 환급
- 보조금 지원: 500 헥타르 이하 부동산을 소유한 임업 투자자는 헥타르 당 상환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지역, 수종 등에 따라 다르다.

□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

법령 제 25922 호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생산 및 적용, 시스템 등에 대해 지원되나 유지보수, 정보 언어의 번역 및 변환,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S/W 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센티브 내역
 - 조세안정 10년: 투자 후 조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10년간 불리한 세법적용에서 면제된다.
 - 고용주세 감면: 70%까지 비환급 및 비양도 성격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이를 국세납부 시 사용 가능
 - 소득세 감면: 조사·개발, 품질인증, S/W 수출과 관련된 비용
 - H/W 및 IT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관광

호텔 신축·개조·증축, 관광관련 레크리에이션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부가세 가중 환급과 가중 감가상각 인센티브 제공한다.

□ 기타

생명과학(BT), 석유·가스 탐사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입법 중에 있다.

4) 지역별 인센티브

주 별로 공단,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인프라를 제공한다. 지역별 인센티브는 지방세 감면, 인프라, 장비의 구입, 임대 리스 등 골자로 하나 주 별 공여 인센티브가 다르고, 프로젝트 별로 달라 인센티브 공여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주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이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협상이 가능하다. 공단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다. 투자유치기관

투자진흥청(ProsperAr)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정부조직이며, 연방투자위원회(CFI)는 주정부간 협력기구이다. 양 기관은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ProsperAr)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는 경제생산부 산업무역중소기업 차관실 산하인 투자진흥청(ProsperAr)에서 총괄한다. 투자진흥청은 외국인 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도 진흥하는 국가투자진흥기관이며, 종전의 투자진흥조직인 ADI를 확대 개편하여 2006년 설립하였다.

- 활동분야
 - 핵심분야: 투자서비스 제공, 투자창출
 - 중점분야: 투자환경개선, 투자환경해외홍보
- 세부분야
 - 새로운 경제여건 및 신규 투자기회 홍보
 - 비교우위의 투자환경 홍보
 - 투자가별 맞춤서비스 제공
 - 투자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투자관련 외부행사 참가
 - 투자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투자관련 자료 발간

투자진흥청(ProsperAr) 연락처

- 주소: Florida 375 Piso 8 B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1005AAG)
- 홈페이지: www.prosperar.gov.ar
- Tel: (54 11) 4328 9510
- Email: ricardobeltramino@prosperar.gov.ar

2) 연방투자위원회(CFI)

지방정부 간 이해조정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연방투자위원회(CFI)가 관할한다. 동 위원회의 집행위는 지방정부 주지사로 구성되며, 실무위는 각 주정부의 경제장관으로 구성된다. 주요 활동은 주정부별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이다.

Consejo Federal de Inversiones(CFI) 연락처

- 홈페이지: www.cfired.org.ar
- 전화: +54 11 4317 0700

라. 정부기관

- AFIP(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
 - 주소: Av. de Mayo 1317 (C1085ABP) Ciudad de Buenos Aires
 - Tel: 4347-3208
 - 홈페이지: www.afip.gov.ar
- Administración General de Aduanas: 관세청
 - 주소: Azopardo 350 --PB-- (C1107ADD) Ciudad de Buenos Aires
 - Tel: 4338-6400

- INTA(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Agropecuaria): 농업기술청
 - 주소: Rivadavia 1439 (C1033AAE) Ciudad de Buenos Aires
 - Tel: 4338-4600/4682
 - 홈페이지: www.inta.gov.ar
-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공업기술청
 - 주소: Av. Gral. Paz 5445 (B1650KNA) San Martin- C.C. 157
 - Tel: 4724-6200
 - 홈페이지: www.inti.gov.ar
- INPI(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산업재산권청
 - 주소: Av. Paseo Colon 717 (C1063ACH) Ciudad de Buenos Aires
 - Tel: 0800-222-4674
 - Fax: 4343-5286
 - 홈페이지: www.inpi.gov.ar
- SENAS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nimal y Calidad Agroalimentaria): 검역청
 - 주소: Av. Paseo Colon 367 (C1063ACD) Ciudad de Buenos Aires
 - Tel: 4331-6041/48
 - 홈페이지: www.senasa.gov.ar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 형태의 결정

아르헨티나의 기업 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de los Sociedades Comerciales)인 법률 제 19550호로 기업설립 시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유한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외국기업 투자 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설립절차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용이하며, 대외신용도 제고 및 현지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유한회사는 주로 인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설립하는 형태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기업화 등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내국기업에 대하여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나. 타당성 조사

외국인 투자는 일반 수출입과는 달리 짧게는 5년 길게는 50년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투자진출 검토 시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시장규모, 임금수준, 원부자재 공급 여건, 수출입 여건, 투자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전망과 정치안정성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이다. 후진국의 경우 빈번한 제도 변경과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003년 이후 년 평균 8.5%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우리기업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 타당성 조사 시 인터넷이나 발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 자료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작성 시기에 따라 자료로서 자치가 없을 수도 있다. 타당성 조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기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부자재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수행하려는 제품 확보와 아르헨티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주변국가 내 수요 및 공급선 확보는 투자 타당성 조사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투자진출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정보원
1. 사전조사	
1.1 시장규모(GDP, 경제성장율, FTA)	경제생산부
1.2 경쟁동향(경쟁기업, 대체상품, 수출입 규모)	협회, 통계청
1.3 수요시장(선호제품, 소비층, 판매망)	바이어, 잡지
1.4 공급여건(원자재조달, 결제방식)	공급업체
1.5 정치안정(전쟁, 파업, 폭동, 외환통제)	KOTRA
2. 법인설립	
2.1 사업자등록(법인명, 정관, 주주)	국세청
2.2 수출입업체 등록	관세청
2.3 납세자 번호	국세청
2.4 영주권 취득	이민국
2.5 은행계좌 개설(미화, 현지화, 당좌)	외국환은행
3. 공장설립	
3.1 공장부지(임대, 매입, 운송여건)	지방정부
3.2 부지계약(대금지급, 관리비)	산업단지
3.3 건축공사(건축설계, 감리, 공사)	건축업체
3.4 기계설비 설치(설치도면, 중량)	판매업체
3.5 준공검사(위생검사)	시청, Senasa
4. 근로자관리	
4.1 근로자채용(모집광고, 급여수준, 고용 조건)	주요일간지
4.2 교육훈련	주정부, 시청
4.3 근무시간(근무시간, 휴가관리)	노동부
4.4 복리후생(사회보장제)	노동부
4.5 해고(해고조건, 해고수당)	노동부
5. 생산 활동	
5.1 기계설비 관리	판매업체
5.2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오물)	서비스기관
5.3 환경문제(규제, 부담금)	지방정부
5.4 재고관리(조달시기)	공급업체
5.5 원자재조달(공급처, 생산동향)	KOTRA

6. 영업활동	
6.1 영업망관리(수요처, 공급처, 유관기관)	KOTRA
6.2 홍보활동(전시회, 매스컴, 세미나)	언론매체
6.3 제세금(법인세, 부가세)	국세청
6.4 재고관리(원자재 조달)	공급업체
6.5 영업이익처분(해외 송금)	거래은행
7. 분쟁해결	
7.1 변호사	KOTRA
7.2 회계사	KOTRA
7.3 노동조합(가입필요성, 회비)	노동부
7.4 소송(소송절차, 관할법원)	법무부
7.5 분쟁방지(합의)	노동부
8. 현지생활	
8.1 체류허가(연장조건, 연장절차)	이민청
8.2 의료 환경(소아과, 외국인병원)	KOTRA
8.3 가족생활(학교, 식품조달)	KOTRA
8.4 여가활동(여행, 스포츠, 문화시설)	KOTRA
8.5 한인사회(대사관, 주재상사, 교민)	KOTRA

주: 법인설립, 근로자관리, 영업활동,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한 정보 입수 가능

다. 투자형태

투자형태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과 기존기업을 인수하는 M&A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Greenfield형과 M&A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Greenfield형 투자를 위한 공장 등 건물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간에 건물 건축을 허가해 주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2,500s/m을 초과하는 경우 슈퍼마켓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5,000s/m을 초과하는 대형빌딩 건축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빌딩의 경우 상하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국(Ays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M&A의 경우 2001년 4월 공포된 법령 제 396호에 의거, 기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용이해져 일반기업은 물론 상장기업에 대한 주식구매 한도와 자본참여 한도가 없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내 매출이 2억페소 이상인 기업 인수는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CND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례로 2003년 브라질 석유회사 Petrobras가 Perez Companc의 인수를 Petrobras가 보유하고 있는 송전회사 Transener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2004년 스페인 통신회사 Telefonica의 Bellsouth (Movicom) 인수를 소비자의 전화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2006년에는 칠레 대형할인점 Jumbo의 Disco 인수를 저지하여 2009년 기준 별도의 법인 형태로 Disco를 관리하고 있다.

라. 투자형태 결정

투자를 Greenfield형으로 할 것인지 M&A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M&A는 Greenfield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시장진출이 가능하며 인수대상 기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인수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소송은 평균 10년 이상 진행된다. 소송이 걸린 기업의 건물, 토지, 기계 등에 대한 처분권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업은 이와 같은 자산을 포함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대금을 감정가격보다 2배 이상 요구하여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도 많다.

Greenfield형 투자는 부지확보, 건축공사, 기계구입시 다수의 공급업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경우 지방정부와 단지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부지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충분한 협상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 수도,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산업단지의 장점이지만 일반 지역과 비교하여 원료 공급처와 완제품 수요처로부터 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자유무역지대(FTZ)의 경우 부지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고 별도의 경비가 필요 없다는 이점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방 정부별로 1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어 Greenfield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법인 종류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형태는 목적과 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세금도 다양하다. 또한, 사업가들의 법적 책임한도는 형태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 결정은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 기업의 자회사 등이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 다른 법인, 도매상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 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1)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 주식회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며,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연방정부 회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통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나타내며, 주주들은 이사를 선출해 사업과 업무를 맡긴다. 이사회의 주된 업무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고 매일 사업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다. 회사 경영진 이 참여하는 주주 총회는 결산 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소집해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자본금의 증자와 감자를 결정한다.

- 최소 2명 이상의 주주 필요하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진다. 주주는 국적 및 거주지 불문, 법인 또는 개인 가능하나 주주의 다수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이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수는 최소 제한이 없다. (1명도 가능) 단, 주식이 상장되어 공공소유인 경우는 최소 3명 이상 선임되어야 한다.
 - 최소한 2인 이상의 주주(외국인 또는 법인도 가능)
 - 최소 자본금: 12,000페소(약 4,000달러), 출자분의 최소 25%는 법인 설립 시 국책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예치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
 - 회사설립 승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아르헨티나 법인 청(IGJ: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명칭 예약
 - 회사정관: 변호사나 공증인에 의해 작성 공증한다.
 - 관보 설립개요 및 목적 공고
 - 대표이사는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 정관: 주식회사는 정관 등록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회사명칭/법인명
 - 회사 목적
 - 회사 존속기관(최고 99년) 및 소재지
 - 주주들의 성명 및 배당 지분
 - 출장 방법
 - 이사회 구성 및 감사 선임
 - 회계 결산마감 기준
 - 총회 모집 및 의결 수
 - 해산 혹은 정리
- 주식회사는 성격에 따라 정부 내 관리부서가 다르다.
 - 상장회사: 증권거래소(Comisión Nacional de Valores)
 - 비상장회사: 법무 및 인권부 산하 법인청(IGJ: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 은행: 중앙은행(BCRA)

2) 유한 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유한 회사의 특징은 50명 이하의 회원들로 참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본금은 각 회원이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며, 회원들은 지분을 임의로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 간 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유한회사 경우 대부분 회원 상호 간 신뢰할 수 있는 친분이 있다.

최소 의사 결정 기구는 사주총회이며, 회사 경영은 회원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1인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없는 만큼 모든 결정이 사주 총회에서 직접 내려지고 즉시 대표가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다. 유한 책임회사는 출자자간 계약, 자본출자 조항, 관리책임, 출자자 변경, 내부 감사요건, 청산 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나 변경 필요 시 출자사원의 다수 동의(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자본금이 2,100,000페소(약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기간이 짧고 정부의 규제나 관리가 약한 편이다. 출자사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다. 출자사원은 국적 및 거주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개인이 모두 가능하나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

3) 개인회사(Autónomo/Unipersonal)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1인 개인사업가들이 이 형태를 선택한다. 설립절차는 개인 이름으로 연방정부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며, 당일에 완결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아르헨티나 법이 인정하는 만 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단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 사전에 거주 소재지 확인증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은 후 이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이 끝나면 납세자 고유번호(CUIT)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영업활동은 물론 일반 시민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납세자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관할 시정에 영업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영업거래 규모에 따라 매월 납세금인 영업세가 정해지며 관할기관은 시청 세무서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의 전부를 갖는 동시에 영업행위에 의해 빚어지는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는 대외적으로 개인의 본명 또는 다른 가명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기업의 지사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지사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대표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하여 필요시 세무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지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운영에 관한 최종책임을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지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본사 파견자의 주재국 소속이 불분명하여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며, 비자가 없는 경우 현지 신분증(DNI)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임차, 구좌개설, 차량구입, 휴대폰 개설 등 현지 체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불가능하다.

바. 법인 설립절차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다음과 같다.



1) 기업명 중복여부 및 예약

아르헨티나 법인청에 사용할 기업명이 등록가능한지 확인하고, 양식(Formulario) 3호 ‘기업명 예약신청서(Solicitud de Reserva de Demoninación)’를 작성하여 기업명을 예약한다. 기업명의 예약 유효기간은 등록 후 30일이다.

2)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

양식 3호 ‘기업명 예약신청서’ 제출 후 양식 1 ‘법인 설립 및 수정신청서(Constitución y Modificación)’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청에 제출한다.

법인설립 제출서류

서류명	비 고
법인설립 신청 및 수정신청서	양식 1호, 가격 94페소
법인설립 최초 회의록 원본	
법인설립 최초 회의록 공증 사본 1부	공증을 받아야 함
법인설립 최초 회의록 사본 1부	여백 8cm 이거나 축소복사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개인정보 및 승인	법인설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법인설립 수수료 영수증	수수료 100페소
법인명 예약신청서	양식 3호, 가격 18페소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등의 의견서	

아르헨티나 법인청(IGJ – 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 주소: San Martin 665, Ciudad de Buenos AiresAs.
- Tel : (54-11) 4312-2427
- 근무시간: 월~금, 11:00 ~ 15:30
- 법인 수속비용: 212페소

3) 납세자번호 취득

- 법인 등록 후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으로부터 납세자번호(CUIT)를 신청하여 취득한다.
- 제출서류
 - 정관 또는 계약서(Social Contract) 사본
 - 아르헨티나 법인청(IGJ) 등록 증빙서 사본
 - 법인설립 회의록 사본
 - 대표 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서명
 - Form 460/J(개인460/F)
 - 자산 소유증명서(주소지 포함) 사본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 Tel: (54-11) 4315-9000
- 홈페이지: www.afip.gov.ar
- 근무시간: 월~금, 11:00 ~ 17:00
- 수속비용: 무료

4) 관할세무서 등록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CUIT)를 취득 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이사,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의 서명이 부기되어야 한다.

세무서 등록 제출서류

서류명	비 고
등록신청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등록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이사, 주주, 변호사 등
사업자등록번호(CUIT) 원본 및 사본 1부	
정관 또는 사회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상업주소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경찰, 등기소 발급 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
회계주소지 원본 및 사본 1부	정관 또는 사회계약서에 명기된 것

주: 등록절차가 제3자에 의해 이뤄질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자, 주주 또는 법정대표자의 서명이 부기되어야 함.

5) 제조기업 등록

제조기업 등록은 1973년 제정된 법령 19971호에 의거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 소재지의 시청(Municipal)에 등록된 기업은 제조 기업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인터넷을 통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산업청

- 전화: (54-11) 4349-3000
- 홈페이지: www.industria.gov.ar
- 근무시간: 월~금, 11:00 ~ 17:00
- 주소: Avenida Argentino Roca 651(C1067ABN)

6) 영업 허가

기업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재 지역 시청(Municipal)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는 업종별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환경평가 선행되어야 한다.

7) 자본금 예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청에 법인설립신청서(Solicitud de Inscripción)를 제출하기 전에 초기 자본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2,000페소(약 4,000달러)며 초기 자본금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자본금의 25% 이상이다. 예치은행은 국책은행인 Banco de la Nación Argentina며 자본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법인설립 수수료도 동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국립 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 전화: 0810-666-4444
- 홈페이지: www.bna.com.ar

8) 장부관리

기업법(Ley de Sociedades Comerciales)에서는 연단위의 회계장부 관리와 이사회 회의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법상 법정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 기본 장부: El libro Diario, El libro Inventario y Balance
- 보조 장부: Subdiario IVA Compras, Subdiario IVA Ventas

상법(Código de Comercio) 또한 기업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부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상법은 회계장부에 추가하여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관리도 의무화하고 있다.

사. 지사 설립절차**1) 한국 내 절차**

- 서류준비(원본일 것)

서류명	비 고
모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 포함
모회사 이사회 결의록	아르헨티나에 지사 설립 결의, 법적 소재지, 지사장(대표자)을 누구로 한다는 내용 포함
모회사 본사 정관	소재지, 대표자 정보
모회사 사업자 등록증	자본금이 있는 경우
위임장	변호사 또는 설립업무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모회사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외부감사 의견서, 변호사 발급 영업제재 무조치 증명서, 상장기업의 경우 3년간 대차대조표, 회계사 발급 회계 증명서 등

- 서류 영문번역 및 공증: 서류에 대한 영문번역 및 국내 공증사무소 공증
-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영문번역 및 공증 서류

2) 아르헨티나 내 절차

- 아르헨티나 외교부 확인
-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서류를 아르헨티나 내 공식 번역사를 통해 번역하며, 공증은 통상 공식 번역사가 처리하여 준다.
- 아르헨티나 법인청(IGJ)에 지사설립 신청서류 제출
- 아르헨티나 법인청의 지사설립 승인: 3~6개월 소요
-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등록 및 납세번호(C.U.I.T) 취득: 사무소 임대계약서 제출 필요, 등록 후 24시간 이내 처리

3) 기타 사항

□ 은행에서 지사구좌 개설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본사 명의로 미화 및 현지화 당좌구좌 (Cuenta Corriente)를 개설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영업 시 통상 1,000페소 이상의 비용은 수표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수표를 발급할 수 있는 당좌구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 비자

지사 설립 등기 및 납세번호(C.U.I.T) 취득 후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영사면담을 통해 비자를 신청한다. 지사 대표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입국허가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대표가 아닌 주재원은 입국허가서를 사전에 받아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장설립 절차

1) 개요

공장설립은 산업단지로 조성된 계획입지와 일반 지역인 개별입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계획입지의 경우 주정부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 일반적인 허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들 기관이 공장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건축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 가이드북은 일반적인 선택인 개별입지에 대한 건축절차를 기준으로 안내한다.

아르헨티나에서 공장을 신축, 개조, 증설 또는 철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는 각 주정부별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인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경우 과밀억제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 관련법령: CÓDIGO DE EDIFICACIÓN(건축법)
- 행정당국: Municipal(구청)

상기 법령에 의거 공장건축을 위한 모든 서류는 구청에 스페인어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건축법은 신개축뿐만 아니라 건물의 도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전면의 도색, 유리창 설치 등도 사전에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이 정한 제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설립 절차

아르헨티나는 연방정부기 때문에 설립 허가 절차 및 조건이 주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장건축 절차는 지역시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별 입지에서의 공장건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인 공장건축 절차

단계	고려사항
부지물색	- 개별입지 / 계획입지 - 물류환경 / 원자재 수급여건
토지확보	- 구입 / 임대 - 관련기관: 부동산등기소
환경영향 평가 Evaluación Ambiental	- 구입 / 임대 - 접수처: 소재지 구청 처리기간: 90일
건축허가신청 Permiso de Construcción	- 투자가 또는 시공사가 신청 - 접수처: 소재지 구청 처리기간: 15일
건축공사	- 건축 / 시공 / 감리 / 감독(구청) - 일괄시공/ 분할시공 소요기간: 예상기간 +2개월
준공검사 Final de Obra	- 일괄준공/부분준공 - 접수처: 소재지 구청 처리기간: 즉시
영업허가신청 Habilitación	- 제품생산 시작시기 - 접수처: 소재지 구청

3)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신청서는 소재지 구청(Municipal)에 제출한다.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5달러 정도의 인지를 구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건축허가신청서철(Carpeta de Obra liberada)
- 시공사의 건축업등록증(Inscripción del profesional)
- 채무변제증명서(Planilla para liquidar)
- 건축물통계표(Planillas de estadísticas)
- 건축도면(Plano visado por el Colegio Profesional)
- 건축계약서(Contrato visado por el Colegio profesional)
- 전기도면(Plano de Instalación eléctrica)

- 신분증사본(Fotocopia del DNI del propietario y el Profesional)
- 부동산등기확인서(Información de la dirección de catastro)

건축허가신청서철(Carpeta de Obra liberada)은 일종의 행정수수료로 구청에서 구입을 하여야 한다. 관할구청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건축허가서(Derecho de Construcción)를 발급한다.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사업주는 구청에 건축공사 감독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감독은 건축물이 승인을 취득한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건축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구청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허가신청서 작성 전에 관할 구청을 직접 접촉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비센테 로페스(Vicente López)시의 경우 상기 서류 이외 주민대표동의서(Autorización y firma de vecinos linderos)를 요구한다. 처리기간 역시 구청마다 상이하나 각 구청에서는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소요기간은 1개월 정도로 보아야 한다.

4) 환경평가(Evaluación Ambiental) – Ley Nº 11.459

환경평가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전문기관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평가증명서(Certificado de Aptitud Ambiental)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사업계획보고서(Memoria descriptiva donde se consiguen los datos referidos a la actividad industrial)
- 기계설비배치도(Proyecto de planta industrial con indicación de instalaciones mecánicas, eléctricas y todo equipo y materiales)
- 폐기물처리계획서(Adecuado tratamiento y destino de los residuos sólidos, líquidos, semisólidos y gaseosos)
- 교통환경평가서(Ubicación del establecimiento en zona apta y caracterización del ambiente circundante)
- 용수/가스/전기 조달계획서(Informe de factibilidad de provisión de agua potable, gas y energía eléctrica)
- 산재방지계획서(Elementos e instalaciones para la seguridad y la preservación de la salud del personal)
- 기타 환경 및 사고대책(Toda otra norma que establezca la reglamentación con el objeto de preservar la seguridad y salud)

환경평가증명서는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리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증명서 발급처리 기간이 30일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처리기간이 90일이나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급된 환경평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환경평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사업개시 15일 이내에 사업개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건축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구청은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단 준공검사 신청 시 도색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설계 도면
- 건물가치 평가서(Revaluación inmobiliaria)
- 하수연결 현황(Certificado de A.B.S.A. de conexión a cloacas)

6) 영업허가

영업허가는 환경평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 가능하다. 영업허가는 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도면(Plano de construcción)
- 행정당국확인서(Copia certificada por la Dirección de Obras Particulares)
- 신분증사본(Fotocopia de DNI del solicitante y N° de CUIT)
- 부동산세금변제증명서(Libre deuda municipal del inmueble)
- 유통계약서(필요 시)(En caso de tratarse de sociedades comerciales, copia del contrato social debidamente inscripto)
- 업종확인서(Una copia del legajo de categorización presentado, acompañado por el comprobante de iniciación del correspondiente trámite)
- 기계배치도(전압이 11Kw 이하인 경우 기계배치도를 제출하고 전압이 11Kw 이상인 경우 전기도면을 제출)

7) 업종별 유의사항

☐ 식음료 제조업

일반적인 식품과 음료의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은 1인당 3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요 건축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간 확보: 작업실, 포장실, 원료창고, 원제품창고
- 바닥, 벽채 및 천정: 방수 처리, 도색(필요 시)
- 자동 출입문 설치
-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확보

☐ 일반 제조 및 창고업

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한 일반 제조 및 창고업은 면적, 조명, 환기, 비상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닥: 방수처리
- 벽채 및 천정: 평면 마감 및 도색

-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확보
- 비상구 확보 및 방화대책 수립

□ 의약품 제조업

일반 제조 및 창고업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아래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실, 포장실, 원료창고, 완제품창고, 폐기물창고, 냉장실, 청정실
- 작업실: 전면 방수처리, 석조(또는 벽돌) 공사

자. 부동산 임대

아르헨티나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상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물색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거나 주요일간지의 부동산 임대광고 정보를 통하여 가능하다. 물건 확인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하고 중개업소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임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서면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부동산 중개업자, 공증인 또는 변호사가 임대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대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임대인이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권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한다.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물론 임대 부동산의 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동산 거래의 특징은 공증인의 역할이다. 공증인은 민간인 신분이나 정부 권한의 대리권자로서 계약체결 및 세금징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대금지불,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등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행위는 공증인의 임회 또는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확인 사항

- 임차 부동산 주소 및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빌딩 안 사무실 또는 점포의 경우 층수와 호실 등 기재)
- 임차면적(m²)
- 계약금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 기간
- 임대료 지급 방법
- 시설 상태 및 수리여부
-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빌딩 안 사무실 또는 점포일 경우 관리비 등 제세공과 처리 여부)
- 보증인 설정
- 위약 및 계약 해제 사항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서류

- 임차인의 신분증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 체결시 회사 정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권한 위임장)
- 1인 혹은 2인의 보증인: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아르헨티나 각종 보험사들은 정부의 보험 최고관리국이 승인한 “월세지불 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전 양해가 필요하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 6개월분의 월세를 선납 하여야 한다.
- 보증인의 재산 증명 서류(부동산 문서)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소요 비용

- 보증금: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2개월분을 요구한다. 임대 계약일 만료 후, 모든 계약의무 이행 확인시 2개월 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총 임대 금액의 3~5%(상가 권리금 포함)
- 등기부 열람 비용
- 공증인 인증 비용

4) 임대 기간

- 법률로 정해진 임대 기간은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이며, 상업 목적의 부동산일 경우 최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고 10년까지 정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임대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경과 후 60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혹은 전문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위약금으로 1.5개월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임대기간 1년 경과 후 해제하게 될 경우 1개월 분의 월세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임대기간의 연장은 상호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3개월 미만 연장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장기간 연장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신규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최초 임대 시 지급한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구분	서비스 기관명	주소	전화
법인설립	최병수 합동 법률 사무소	Av. Nazca 648, Piso 2	(54-11)4612-2260/4716
법인설립	임정신 종합법률 회계사무소	Moron 3228 1층	(54-11)4611-6554/6470
법인설립	양호인 변호사	Maipu 1300 11층	(54-11)4318-9917
회계	전승훈 공인회계사	Azcuenaga 396 7층 A	(54-11)4952-9156 /1199
회계	Dr. Jorge Patricio Dennin	Paraguay 729, Piso 6 Of. 25	(54-11)4901-8658
번역	차의남 번역사무소	Asamblea 1132, 11층H	(54-11)4923-4149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여건

1) 지리적 여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아르헨티나의 칠레와의 국경, 안데스산맥에서는 금, 은, 동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생산되고 있다. 산맥 이외의 지역은 해발 1,000m 이하의 초원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대서양의 해안선은 4,665km로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생산 인프라

아르헨티나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통신비용이 저렴하여 투자 인프라 구축이 다른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호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보존량 및 화력발전량이 감소해 에너지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자본을 포함한 110억 페소(약 37억 달러)를 투자하여 가스관, 송전탑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입지 선택 방법

1)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ADI) 및 주정부 사전 접촉

공장 설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산기지 유치를 위하여 세제 등의 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도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유휴 시설의 활용과 고용창조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초기단계에 경제부 산하의 아르헨티나 투자개발청(ProsperAr: Agenci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을 접촉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에 인구의 1/3 이 밀집해 있어 상권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업종은 코르도바 주에 밀집해 있고, IT 업종의 경우도 인텔 등 다국적 기업은 코르도바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는 특별관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에 밀집해 있다.

치즈 등 유제품 생산기업은 산타페와 코르도바 인근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 지역은 광활한 목초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낙농기업의 선호 지역이다.

3)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 입주 우선 검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활발하기 때문에 동 단지 내에 입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업 공단 입주를 통해 공장을 유치, 운영하는 것도 여러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주요 입지별 비교

입지	특별관세지역	우대관세지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
지역	Tierra del Fuego (Tierra del Fuego)	Pilar (La Pampa)	La Plata (Buenos Aires)	San Francisco (Cordoba)
특성	제조, 재포장	제조, 재포장	보관, 재포장	제조
인프라	자유무역지대, 공단 기능	자유무역지대, 공단 기능	없음	제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완비(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세제	법인세, 부가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 감면(영업세 제외)	관세 및 사회보장세 미부과	관세 미부과	비과세
참고	내수 및 수출	내수 및 수출	수출 중심	내수 중심
	부가가치세율 60%이상 HSCODE 변경(실제 미적용)	부가가치세율 60% 이상 HS CODE 변경	부가가치세율 60% 이상 HS CODE 변경	부가가치세율 60% 이상 HS CODE 변경

다. 자유무역지대

아르헨티나 현행법상 23 개 주와 4 개 특별지역에 보세 지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티에라 델 푸에고의 경우는 주 전체가 특별관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플라타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항구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 km 떨어져 있는 입지를 활용하여 물류 중심의 보세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다. 이 외 코모도리바다비아, 라 팜파, 산 루이스, 멘도사 등의 주요 지역에 보세 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라.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 지역

티에라 델 푸에고(TDF: Tierra del Fuego) 지역은 남미공동시장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한 특별관세지역이다. 이 주의 우수아이아, 리오그란데 등의 도시는 보세지역 및 산업 단지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남미공동시장의 원산지 규정협약에 따라 브라질 마나우스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는 제3국산으로 간주되어 아르헨티나 내수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Audinac 사 등이 TDF 지역에서 현재 가전제품, 휴대폰, 오디오,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을 조립생산하고 있다. 한국 가전 3사의 현지 위탁조립 생산공장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Tierra de Fuego 에서 생산된 제품은 규정상 부가가치율 60% 이상 또는 HS Code 변경이 있는 경우 아르헨티나 제품으로 인정되며 단순 포장, 재포장, 분할, 혼합 등 단순작업은 제외된다. 그러나 원산관리 미흡으로 부가가치율이 부족한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브라질의 특별관세지역인 Manaus 의 경우에도 같다.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Tierra del Fuego 특별관세지역은 1972 년 제정된 법 19640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국세가 감면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세 면제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시 관련세금 환급

Tierra del Fuego 입주기업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만 부담한다. 입주가능 품목은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과 아르헨티나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입주는 프로젝트별로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7321.11/81/90
- 8403.10/90, 8414.51/60/90, 8419.11/19/90, 8421.12/91
- 8433.11/90, 8450.11/12/19/90,
- 8501.10/20/40, 8509.10/20/40/80/90
- 8516.10/29/31/32/40/60/71/79/90

TDF 지역 주요 생산기업현황

업체명	제조상표	제조상품	비고
Audinac	Daewoo, JVC, Audinac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생산 중
Newsan	Sanyo, AIWA, Noblex, Philco, Fisher, Pioneer	TV, 에어컨	생산 중
Radio Victoria	Hitachi, TCL, RCA	TV, 에어컨, 오디오, 비디오, 전자 레인지	생산 중
Electrofueguina (Fravega)	Admiral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생산 중
Philips	Philips	TV, 스테레오	생산 중
Motorola/Brighstar	Motorola, Sagem	핸드폰	생산 중
BGH	LG, BGH, Alpine, Fedders	에어컨, 전자레인지, 스테레오	생산 중
Ambassador Fueguina	Sharp, Ken Brown	TV, 스테레오	생산 중
Garbarino	(Samsung)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오디오, 비디오	건설 중

공단명: TIERRA DEL FUEGO FREE INDUSTRIAL ZONE

소 재 지		TIERRA DEL FUEGO주(아르헨티나 최남단의 섬으로 주를 형성하고 있음)			
부지면적		조성주체 주정부			
공단성격		연방정부 법률 19,640호에 의거 설립된 산업자유지대로 무관세수입지역 전자제품 전문 생산공단			
입주비용		대부분의 토지가 주정부 소유로 주정부와 토지매입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조성현황,		상시거주			
교 통	항만	USHUAIA 항구			
	철도				
	공항	USHUAIA 공항			
	도로				
전력		52,801KVA			
용수		제한 없음			
통신		전화선 가설에 애로 사항 없음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인력조달 양호			
		임금수준: \$ 800/월(대졸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60여 개 사가 공단 조성법에 의거 입주			
한국입주 기업명단		대우전자(Audinac 사가 대우전자 상표로 생산 중) (LG는 공장은 유지하나 2004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음)			
입주자격 및규제현황		없음			
규제현황 우대조치		부품류 무관세 수입가능			
입주 여건에 대한 KBC 의견		전자제품 전문 조립생산단지로 부품류에 대한 무관세수입 시장을 목표로 한 전자조립업체 입주유망			
공단 연락처		업체명	Casa de la Provincia de Tierra del Fuego		
		주 소	Sarmiento 745. PB. Cap. Fed. Argentina		
		전 화	54-11-4322-7324	담당	Mr. Horacio Reyenda

공단명: Zona Franca La Plata

소 재 지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Edificio Ensenada, C.C. Nro. 1 (B1925BUA), Ensenada,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부지면적		70ha					
입주비용		사무실: \$ 5페소/m2 토지: \$1.80/m2 * 입주 시 4개월 보증금, 최소 계약기간 1년.					
입주가능시기		상시거주					
교통	항만	La Plata Ensenada항구					
	철도						
	공항	EZEIZA 국제공항에서 80 km					
	도로	La Plata-Buenos Aires도로, 지대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현지 EDELAP 전력회사의 SUB STATION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공급 양호					
용수		300,000 lts/일/ha					
통신		디지털 9,999라인으로 시설 양호, 고속 인터넷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인력조달 양호					
		임금수준: \$ 500~700페소/월(공원), \$800~1,000페소/월(경영직원, 대졸 초임, 연금세 등 포함) * 달러환율: U\$1= \$3페소					
외국기업 입주 현황		국내외 기업 총 180개사 입주 (식품, 약품, 화학, 사출금형 회사들이 있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특별한 입주자격이나 규제현황은 없음.					
우대조치		전력, 수도, 전화세 등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60km거리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중 유일하게 소득세 면제					
공단 연락처		업체명	Buenos Aires Zona Franca La Plata S.A				
		주소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Edificio Ensenada, C.C. Nro. 1 (B1925BUA),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	54-221-468-0000	팩스	54-221-468-0014	담당자	Mr. Paulo Spata

마. 주요 산업공단

공단명: PARQUE INDUSTRIAL PILAR

소재지		RUTA 8, km 60, PILAR.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부지면적		920ha 조성주체 LAGO VERDE S.A. (개인기업)					
공단성격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법률 제 10547호 및 1904/90, PILAR 시조례 1231/92에 의거 설립된 사설일반공단					
입주비용		US\$ 12/m2, 30%를 선불로, 입주계약 시 잔액 70%를 지불해야 함.					
조성현황		상시거주					
교통	항만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서 60km, Campana 항구에서 65km					
	철도	5 km 거리에 철도선					
	공항	EZEIZA 국제공항에서 50km					
	도로	8번 국도에서 3km, 공단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현지 EDENOR 전력회사의 SUB STATION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공급 양호					
용수		240,000 lts/일/ha					
통신		디지털 1,000라인으로 시설 양호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인력조달 양호					
		임금수준: \$ 800/월(대졸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기업 총 131개사 입주(식품, 약품, 화학, 사출금형 회사들이 있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부동산세 면제(7년), 소득세 면제(7년), 지방세 면제(7년)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60km거리로 입지양호					
공단연락처		업체명	LAGO VERDE S.A				
		주소	Av. Santa Fe 3996 Piso 14 Of. 115 (1425) Cap. Fed. Argentina				
		전화	54-11-4831-6220	팩스	54-11-4831-4402	담당자	Pres.Meyer Oks

공단명: PARQUE INDUSTRIAL SAN FRANCISCO

소 재 지		Calle 13 No. 4769 Casilla De Correo 211 (2400) San Francisco, Pcia. Cordoba				
부지면적		184ha 조성주체 주 정부 법령에 의한 사설공단				
공단성격		71년 10월 연방 및 주 법률에 의거, 설립 인가된 사설공단				
입주비용		US\$ 0.70 -1.00/m2, 부지매입 후 공장건설				
조성현황		상시거주				
교 통	항만	Santa Fe 항구에서 130 km				
	철도	Ferrocarriil Gral. Belgrano				
	공항	Cordoba주 국제공항에서 200 km, Santa Fe 공항에서 130 km				
	도로	158번 국도에서 3.5 km, 공단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6,890KVA, 전력 공급 양호 (5,000Kw/h)				
용수		공급시설 양호				
통신		디지털 100라인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인력조달 양호				
		임금수준: \$ 1,500/월 (대졸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기업 총 36개사 입주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부동산세 면제, 소득세 면제, 산업세 면제(10년), 인지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CORDOBA주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Cooperativa de Provision de Electricidad Y Otros Servicios			
		주소	Calle 13 No 4769 (2400) San Francisco, Pcia. de Cordoba, Argentina			
		메일	parqueindustrial@arnet.com.ar			
		전화	54-3564- 421803	팩스	54-3564- 421803	담당자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조현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년 4 월에 노동법(법률 제 25877 호)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수습기간을 180 일에서 90 일로 축소
- 수습기간인 근로자는 15 일전 통지 조건으로 해고 보상금 없이 해고 가능
- 5 년 이상 근속 근로자 해고 시 2 개월 전 통지 필요(5 년 이하는 1 개월 전 통지)
- 해고 보상금은 근무 연수 당 1 개월 분 급여 지급(5 년 근속인 경우 5 개월 분 급여)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1,317 개의 공식노조와 공식 등록이 안 된 1,104 개의 비공식 노조가 있다. 노조 가입자만 1,320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원의 60%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파업건수는 경제위기가 영향으로 2002~2003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경제회복이 본격화되자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연도 파업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238	358	285	122	249	824	501	593	457

자료: Centro de Estudios Nueva Mayoría

주: 2009년 9월 기준

나. 고용계약 기간

고용계약은 특별한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신계약'으로 간주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승인된 단체협약으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승인된 단체협약에 의해 6개월인 수습기간이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 급여 및 임금 수준

- 최저 임금: 월 1,240 페소(2009.8월기준, 1달러 = 3.84 페소)
- 보너스(aquinaldo): 월 급여 이외 연 2회(6월, 12월) 월 급여의 50% 지급 의무

단체협약에 의한 평균급여

(단위: 페소)

업종	2003.5월	2004.12월	2005.12월	2006.12월	2007.12월	2008.12월
식품	552	874	1,271	1,512	1,762	2,296
은행(민간 외국계)	656	1,123	1,664	2,280	-	-
은행(민간 내국계)	606	1,031	1,553	2,141	2,878	3,765
신발	595	823	1,159	1,334	1,710	2,029
트럭운전	954	1,259	1,794	2,173	2,568	3,162
유통업	627	720	1,021	1,215	1,494	1,846
건축	455	575	1,036	1,261	1,579	1,887
건물관리	714	844	1,081	1,330	1,568	2,066
요식업	669	883	1,366	1,566	1,871	2,483
신문잡지	593	819	1,165	1,415	1,725	2,072
알루미늄제조	599	764	1,065	1,305	1,569	2,011
자동차제조	715	905	1,260	1,568	1,888	2,421
전자제조	598	678	1,088	1,334	1,606	2,058
플라스틱	647	973	1,352	1,630	1,967	2,462
보건(진료소)	612	731	841	1,198	1,711	2,139
지하철	1,154	1,250	1,686	2,393	-	-
직물(근로자)	489	813	1,071	1,306	1,503	1,858
여객수송(UTA)	1,023	1,102	1,587	1,959	2,450	2,963
유리(수제품)	698	1,082	1,207	1,426	1,627	2,041

주: 업종별로 최저 평균임금임

자료: 아르헨티나 노동부 (www.trabajo.gov.ar), 2009. 9월 통계 기준

실제 평균 급여

(단위: 페소)

구분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계		776	827	1,072	1,281
성별	남성	836	890	1,133	1,362
	여성	636	676	928	1,089
연령	24세 이하	405	464	664	798
	25~34세	687	722	971	1,190
	35~49세	880	924	1,212	1,475
	50~59세	1,078	1,115	1,299	1,486
	60세 이상	756	936	1,156	1,317
가정 내 위치	가장	930	984	1,239	1,502
	배우자	709	751	1,038	1,208
	자녀	466	532	754	886
	기타	520	556	757	887
교육 수준	초등 미졸업	422	440	592	720
	초등 졸업	514	591	811	934
	중고등 미졸업	554	647	840	1,007
	중고등 졸업	724	799	1,024	1,203
	대학 전문대 미졸업	838	923	1,221	1,511
	대학 전문대 졸업	1,681	1,543	1,856	2,244
고용 형태	사주	1,651	1,757	2,166	2,487
	자영업	584	713	880	1,018
	봉급자	775	803	1,044	1,248
	- 사회보장 등록자	985	1,000	1,238	1,488
	- 사회보장 미등록자	439	504	667	769
업종	제조업	799	914	1,069	1,370
	건축	505	546	755	976
	유통업	570	645	894	1,020
	호텔 요식업	638	679	849	1,028
	물류	818	851	1,166	1,415
	금융 부동산	1,104	1,103	1,509	1,645
	공무원 군인	1,063	1,161	1,370	1,792
	교육	776	845	1,243	1,478
	사회보건 서비스	917	1,100	1,242	1,728
	가정 서비스	331	347	428	458
	기타 통근 등 서비스	767	861	1,029	1,214
회사규모	5인 이하	572	667	856	999
	6~40인	909	850	1,112	1,343
	40인 이상	1,049	1,120	1,402	1,716
직종	전문직	2,152	1,973	2,362	2,948
	기술직	1,050	1,166	1,457	1,708
	영업직	623	703	952	1,110
	무자격	404	461	605	722

자료: 아르헨티나 노동부(www.trabajo.gov.ar) 2009년 9월 기준 통계

라.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 근무시간: 주당 최고 48 일 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7 시간 교대 의무
 - 1 일 최대 9 시간, 위험직종의 경우 6 시간
- 초과 근무수당
 - 주중 초과 근무: 50% 추가
 - 주말(토요일 오후 1 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100% 추가

마. 휴가일수(Calendar day 기준)

- 정기휴가(연간 Calendar Day 기준):
 - 근무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휴가일은 14 일이고, 6 개월 미만이 경우 휴가일은 근무일 20 일마다 1 일로 산정한다.

근속연수	5년 미만	5년~10년	10년~20년	20년 초과
휴가일	14일	21일	28일	35일

- 법정휴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노동법에 따라 2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은 회사 고용회계사나 변호사가 산정해 준다.
- 휴가급여 산정식: [(월 급여 x (30 일-휴가일)/30 일) + (휴가일 x 월 급여 x 120%)]
- 출산휴가: 90 일(출산 전 30 일, 출산 후 60 일)로 이후 무급으로 1 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병가: 3~6 개월

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 고용주 23.0%, 근로자 11.0% 이고, 고용주가 근로자 부담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액의 합은 4,800 페소가 최고로, 이를 초과할 때는 4,800 페소만 지급한다. 고용주 부담액은 23.0%이나 행정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24.0%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회보장세 중 의료보험 부담액(9%)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민간 의료보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율 내역

구 분	고용주	근로자	참고
연금기금	11.7%	10.0%	14.88: 매출 48백만 페소 이상
가족수당	4.4%	-	5.56%: 매출 48백만 페소 이상
실업수당	0.89%	-	1.11%: 매출 48백만 페소 이상
의료보험	6.0%	3.0%	
산재보험	0.5~5.0%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계	23.5%	13.0%	

자료: KPMG

사.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구두로도 채용 조건 합의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정기 근로조건의 계약은 계절적 또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한해 체결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연간 6개월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계약 시 신원명세서, 건강진단서 등 일반적인 내용은 보통 생략하지만 확실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노사관계가 우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해고

모든 근로자는 2004년 4월 발효된 노동법 제 25877호에 의거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횡령, 폭력 또는 심각한 오류행위 등에 연루되지 않은 한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는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서 해야 하며 해고 사전통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해야 한다.

- 수습기간의 근로자: 15일 전 통지
- 5년 미만 근속 근로자: 1개월 전 통지
-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2개월 전 통지

해고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 물색을 위하여 1일, 2시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 휴가를 축적하여 1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직원 해고 시 크고 작은 소송의 제기로 해고가 상당히 어렵다. 소송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 근무 연수 1년당 1개월 분의 급여 보상금
- 사전 통지기간에 대한 급여
- 미지급 상여금, 휴가보상금
- 보상금에 대한 이자

해고 보상금 지급 후 추가적인 소송 및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노동부

- 명칭: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홈페이지: www.trabajo.gov.ar
- 전화: 0800-410-666-4100
- 주소: Av Leandro N. Alem 650, Capital Federal

8. 조세제도

가. 개 요

아르헨티나 조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연방정부), 주세(주정부) 및 시세(시청)로 구분되며 납입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관세를 제외한 세금을 징수하는 총괄기관은 국세청(AFIP)이고, 직접 징수기관은 관할 세무서(DGI/Dirección General Impositiva)이다.

조세 구분

구 분		기본세율	비 고
국세 (國稅)	소득세	법인소득세 35.0% 개인소득세 9~35%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부가가치세	21.0%	식품 등 10.5%, 통신 등 27.0%
	금융거래세	0.60%	
	재산거래세	1.50%	
	추정최저소득세	1.0%	
	개인재산세	0.5% / 0.75%	7만 페소 기준 차등 적용
주세 (州稅)	매출세	1~3%	산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
	인지세	0.5~2.5%	
	부동산세	주마다 다름	
시세(市稅)	* 영업허가세 등		각 시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유치청(ProsperAr) 투자가이드 취합

주: 2009년 9월 기준

나. 주요 세금 내역

1) 국세(國稅)

- 법인세
 - 세율: 35.0%
 - 과세대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법인
 - 과세소득: 법인이 거주자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형태로 징수한다.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아르헨티나 국적자(귀화 외국인 포함), 영주권 또는 12 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 조합, 재단 등이 포함된다.

- 개인소득세
 - 세율: 9.0~35.0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과세대상: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개인
 - 과세소득: 거주자는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해 부과
-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 세율: 21.0%(1995년 4월 18%에서 인상)
 - 단, 통신, 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하여 27.0%,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는 10.5%를 적용한다.
 - 수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는 부가세가 환급된다.
- 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
 - 세율: 0.6%
 - 2001년 4월 법률 제 25413 및 제 25414 호에 의거 신설된 세금으로 급여구좌 및 대출구좌 금융거래 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금융거래세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기간 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재산거래세
 - 세율: 1.5%
 -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니다.
- 추정 최저소득세(Impuesto a la ganancia mínima presunta)
 - 세율: 1.0%
 - 관세특혜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고에 위치한 자산, 광업투자에 따른 자산 등 별도로 법이 정하는 경우는 이 세금이 면제된다.
- 개인재산세(Impuesto sobre los Bienes Personales)
 - 세율: 358,050~700,000 페소 0.5%, 700,000 페소 초과 0.75%
 -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주자는 해외재산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주식의 경우는 거주자는 1년 이상 보유 시 면제된다.

2) 주세(州稅)

- 매출세(Impuestos sobre los Ingresos Brutos)
 - 세율: 주 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 어업, 광업) 1.0%, 2차 산업(제조업, 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 유통)에는 3.0%가 부과된다.
- 인지세(Impuesto a los Sellos): 0.5~2.5%(거래성격에 따라 세율 다르다.)
- 부동산세(Impuesto Inmobiliario): 주 정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

다. 기타 제세금

- 수입관세: 품목에 따라 5.0~35.0% 부과
- 수출세: 수출 품목에 따라 5.0 % 이상 부과

- 추가 부가세: 10%(수입통관 시 선납세로 부과)
- 내국세: 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에 내국세 부과(수입품의 경우 내국세율이 20%일 경우 CIF 가격의 39~40% 부과 효과)
- 사회보장세: 고용주 23%, 근로자 11% 부담(세부내용은 7. 노무관리 바. 사회보장제도 항목 참조)

아르헨티나에서 요구하는 납세 및 신분증 종류

명칭	설명	발급기관
C.U.I.T. (Clave Unica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AFIP)
C.U.I.L. (Clave Unica de Identificación Laboral)	개인납세자번호	국세청(AFIP)
C.D.I.(Clave De Identificación)	개인 고유번호	국세청(AFIP)
D.N.I.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영주권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C.I. (Cédula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경찰(Policía Federal Argentina)
L.E. (Libreta de Enrolamiento)	구(舊) 영주권	DNI 발급 이전에 군 입대 대상 남성 파약을 위해 사용한 신분증
L.C. (Libreta Cívica)	구(舊) 영주권	DNI 발급 이전에 성인 여성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분증
Pasaporte	여권	CUIT, DNI 등이 없는 외국인

라. 외국기업(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 개요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지사는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3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실송금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 국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단, 배당금은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다.

지사가 없는 외국기업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품 수입의 경우 해외기업(본사)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기업이 제품의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과세율

해외 차입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자본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은 15.05%를 원천징수하며 기타 자금은 35%를 원천 징수한다.

6개월 이하 체류 예술가·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총소득의 70%를 순소득으로 추정하여 24.4%를 원천 징수한다. 정부가 단기 고용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35%를 순소득으로 추정하여 12.25%를 과세한다.

3) 이중과세 방지협정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아르헨티나와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 국가는 2009년 기준 호주 등 18개 국가이다. 비협정 국가의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세 초과 분에 대한 35%, 지급이자 15.05%, 저작권 로열티는 12.5%, 기술 지원 로열티는 26.40%를 원천 징수한다.

이중과세방지 국가별 최대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호주	10	12	10
오스트리아	15	12.5	15
벨기에	10	12	10
볼리비아	계약기준		
브라질	계약기준		
캐나다	10	12.5	10
칠레	계약기준		
덴마크	10	12	10
핀란드	10	15	10
프랑스	15	20	18
독일	15	15	15
이탈리아	15	20	18
네덜란드	10	12	10
노르웨이	10	12.5	10
스페인	10	12.5	10
스웨덴	10	12.5	15
스위스	10	12	10
영국	10	12	10

자료: 국세청

주: 2009년 기준

마. 띠에라 델 푸에고 특별 관세지역의 세금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은 1972 년 제정된 법 19640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국세가 감면된다. 띠에라 델 푸에고 입주기업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만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세금 환급

바. 개인에 대한 세금

1) 개인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년도말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재산을 포괄하여 부과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보유재산만을 기초로 하다. 외국인이 근로의 목적으로 5년 이하 거주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내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305,000페소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과요율은 0.5%에서 1.25%까지이다. 해외에서 유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부과한 세금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을 통합하여 최고 35%를 부과한다.

소득수준별 소득세율

(단위: %, 페소)

소득금액(페소)	세율	최대금액
10,000이하	9%	900
10,000초과 - 20,000이하	14%	900+2,800
20,000초과 - 30,000이하	19%	3,700+5,700
30,000초과 - 60,000이하	23%	9,400+13,800
60,000초과 - 90,000이하	27%	23,200+24,300
90,000초과 - 120,000이하	31%	47,500+37,200
120,000이상	35%	84,700+

자료: 국세청

주: 2009년 9월 기준

3) 소득 공제

200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수준별 기초 및 부양가족 공제금액을 확대되었다. 연봉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가족부양 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초공제: 7,500 페소
- 배우자 공제: 4,000 페소 (비근로 배우자)
- 자녀공제: 4,000 페소 (24 세이하 비근로 자녀)
- 기타 부양가족: 3,000 페소 (년 7,500 페소 미만 부양가족)
- 특별공제: 36,000 페소

소득수준별 기초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금액 범위

소득범위(페소)	감면율
91,000이하	100%
91,001이상 - 130,000이하	50%
130,001이상 - 195,000이하	30%
195,001이상 - 221,000이하	10%
221,001이상	0%

자료: 국세청

주: 2009년 9월 기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의료비와 주택자금(Mortgage)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인공제를 제외한 주요 공제내역을 아래와 같다.

- 생명보험 996.23 페소 한도
- 장례비 996.23 페소 한도
- 연금보험
- 의료실비 총소득액의 5%한도
- 약값
- 주택금융 20,000 페소 한도
- 기부금 총소득액의 5%한도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제도 현황

2001 년 12 월 태환제 폐지로 외환관리가 강화되었다. 달러표시 예금을 금지하고 페소화 거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외환시장은 상당히 후퇴되었다. 2003 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Hot Money 통제를 위한 장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5 년 6 월에 공보 30672 호에 의거 발효된 법령 616 호에 의거 모든 입금 또는 송금 외국환은 아래와 같은 통제를 받는다.

- 모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는 중앙은행에 신고
- 민간의 해외차입금은 만기가 1 년 이상일 것
- 거래외국환은 1 년간 은행 30% 무이자 예치
- 국내로 유입된 외국환은 1 년 후 해외 송금이 가능

특히 동법의 영향을 받는 거래는 i) 거주자의 해외차입금, ii) 비거주자의 금융자산 및 제 2 금융시장을 통한 채권 매입 등이다. 그러나 i) 외국인직접투자 자금, ii) 무역거래 자금, iii) 공인거래소를 통한 증권 및 채권 매입 자금은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관리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de Argentina)이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당 3 페소 이상의 환율 유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고환율 유지 정책은 수출확대를 통한 외환 확보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가 목적이다.

아르헨티나 외환 관리제도는 과실 송금에 대해 제한은 없으나, 외환의 유입과 송금 분야별로 규제 및 완화 대책이 중앙은행의 지침 또는 통지문 형태로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홈페이지(www.bcra.gov.ar) 영문정보 또는 KOTRA KBC 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외환 규제 주요 사례

2002 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라 외환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120 일 이내에 페소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수출업자는 환전 시 매도환율로 환전하고 원자재 구입 등으로 달러화 필요 시 매입환율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차를 부담하여 한다. 수입업자는 소비재 등 수입시 수입물품이 아르헨티나 항구 도착 전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아르헨티나로 송금된 자금을 국내에 1 년 이상 보유하여야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주자-비거주자 간 외환거래는 중앙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Loan 은 만기가 1 년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달러구좌에 예치해야 한다.

다. 외환송금

1) 투자자금 송금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또는 거주자의 해외투자 금액이 5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은행은 외환거래 사실을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일반 송금

투자자금이 아닌 일반자금은 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배당금 등의 송금

모든 배당금, 잉여금, 로열티, 수수료 등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금 시 입금처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4) 수출입대금 송금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사전승인은 필요 없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 도착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대금은 60 일 이상 은행에 예치한 후 인출이 가능하다.

5) 암시장을 통한 송금

상기와 같은 규제 때문에 환전소를 통한 해외송금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환전소인 HALEC 은 통상 0.1%의 송금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주고 있다. 환전소를 통한 해외송금은 음성자금(Negro)이기 때문에 공식 송금증명서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6) 과실송금

모든 투자자금은 2005 년 5 월 공포된 법령 292 호에 의거 1 년 이상 아르헨티나에 머물러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50 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송금의 경우 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 기업의 과실송금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송금액이 이익송금(Profit remittance) 임을 증명해야 한다.

7) 해외차입금 상황

해외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2003년 5월 공포된 규정 3944호에 의거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차입금은 만기 1년 전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차입금은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되고 현지화로 환전되어야 한다. 차입금은 만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8) 수수료 및 로열티 송금

로열티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송금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03년부터 로열티 등에 대한 송금을 허가하고 있다. 송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빈틈없이 주지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은행

은행명	홈페이지	비고
Citibank	www.argentina.citibank.com	미국계
HSBC	www.hsbc.com.ar	영국계
Nación	www.bna.com.ar	국책은행
Macro	www.macro.com.ar	지점망 최다
BBVA	www.bancofrances.com.ar	프랑스계
Provincia	www.bapro.com.ar	BsAs(Buenos Aires)주정부운영

라. 자금조달

1) 개요

아르헨티나의 자금시장은 2001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02년 태환정책의 포기 급속히 위축되었다. 하지만 2003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증가율은 2009년 기준까지 매년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자체 자금을 이용하는 성향이 강해 GDP대비 기업대출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칠레의 30%, 브라질의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아르헨티나 기업 중 은행자금을 이용하는 비율은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은행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대출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금이용을 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50%에 달하는 은행수수료와 0.6%의 금융거래세도 은행자금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자금 대출은 현지화인 폐소화 대출로 제한되며 달러화 대출은 수출과 관련된 분야로 국한된다. 이는 태환제도 폐지에 따라 금융구조를 현지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에 기인한다.

예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연동이자 지급, 은행 지급준비율 확대 등 중앙은행의 장기예금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상태인데 2001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예금 지급 동결 사례가 그 원인이다.

2) 단기 금융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은 단기금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영업수익 확대를 위하여 당좌대월(Overdraft), 매출채권(Receivables), 팩토링(Factoring), 수표할인(Cheque discount)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30일 정기 대출 금리는 15.8%며 1년 정기대출은 11.5%로 실질 인플레이션이 20%임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당좌대월의 경우 사전에 은행 과 합의 하지 않으면 30일 정기 대출 금리의 평균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주요 이자율 현황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Call	6.7	7.6	9.2	12.4
중앙은행 1년 정기	8.9	11.3	10.3	12.2
30일 확정금리	4.7	7.0	10.2	15.8
1주일 변동금리	5.0	6.2	8.3	11.0
30일 Prime rate	7.1	9.5	16.0	27.8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주: 2009년 9월 기준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수표를 재발행해야 한다. 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청구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수표는 은행 및 증권시장을 통해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수표 할인수수료는 11.4% 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 아르헨티나에 대한 전대라인을 개설하고 있어 국제금리수준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담당은행은 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Banco de la Nación이다.

3) 장기 금융

장기금융시장은 아르헨티나 은행의 장기대출 기피로 해외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7년 기업의 대외채무는 467억 달러로 금융기관의 외채 50억 달러보다 무려 9배가 많은 금액이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YPF정유, Telefonica통신, Petrobras정유, Santander은행 등인데 이들 상장회사는 각 지분보유율이 50%가 넘는다.

정부보증을 받으며 국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IBRD, World Bank, IFC, IDB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르헨티나 산업은행 Banco de la nación은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 자본투자비용 지원(Creditos para Capital de Trabajo)
 - 기존 생산 및 영업시설 개보수 및 확장 비용지원, 5 년
- 국제 박람회 참가지원
 - 박람회 등의 참가에 따른 비용지원, 2 년
- 중소기업육성 지원
 - 중소기업 구조개선 비용지원, 소요자금의 80%한도, 5 년
- 시설구입 자금
 - 기계 및 설비 구입 자금 지원, 소요자금의 70%한도, 5 년

4) 융자신청 절차

아르헨티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구좌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영주권(DNI) 사본
- 세무사업자등록증(CUIT) 사본
- 공공요금납부증명서 1 매(전기, 수도, 전화 등 주거지 확인용)

외국인의 경우 신용대출보다는 공장과 설비를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이 일반적이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자산명세서 1 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 재무제표 1 부
- 월별 매출 명세서 1 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것
-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서 1 부
- 최근 3 년 법인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 최근 3 개월 사회보장세 납세증명서 1 부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1부씩 제출한다.

- 일반자영업자: 영업허가증(habilitación municipal) 시청 발급
- 전문직종사자: 자격증(título o matrícula)
- 농축산업자: 상표등록증(boleto de marca)
- 건축업자: 건축업등록증(Reg. Nac. De Construcción)

상기 예는 La Pampa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용 서류며 은행에 따라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5) 주요 정책자금 사례

(단위: 천불)

담당기관	용도	금액	지원기간	이자율
연방투자위원회(C.F.I.)	수출지원 중소기업대상	150	18개월	Libor+2%
연방투자위원회(C.F.I.)	생산활동 중소기업대상	250	7년(2년거치)	8.5%
중소기업청(SePYME)	프로젝트추진	3,000	3~10년	8.9%
중소기업청(SePYME)	생산 및 서비스 활동	30	48개월(6월거치)	7%
중소기업청(SePYME)	수출진흥 운영자금 미화자금 지원	1,000	84개월(36월거치)	협의결정
중소기업청(SePYME)	시설자금	250	54개월(18월거치)	시중이자율의 50%
수출입은행(BICE)	투자자금	100	5년	Libor+7.5
수출입은행(BICE)	시설자금 국산시설대상	800	5년	9.0%
수출입은행(BICE)	환경개선자금 국산시설대상	1,000	8년(2년거치)	Libor+α
National은행	수출지원	FOB 80%	6개월	협의결정
National은행	투자자금	70%	5년	협의결정
Santa Cruz주정부	프로젝트 지원	80%	10년(2년거치)	중앙은행 고시금리
La Pampa주정부	시설자금 신기계구입대상	60	48개월(6월거치)	7%
BsAs주정부	시설자금 생산활동지원	1,000	5년	8.5%

자료: 연방투자위원회,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일반적인 특성

1) 중남미 3위 경제대국

국내 총생산(GDP)·교역 규모 면에서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3위고, 2009년 기준 3,936만 명 시장으로 남미 스페인어권 국가의 중심축이다. 2008년 구매력(PPP) 기준 1인당 GDP는 브라질보다 높은 14,413 달러로 중남미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지역 1인당 구매력은 칠레 14,510달러, 우루과이 13,295달러 브라질 10,326달러이다.

2) 풍부한 광물·에너지·식량자원 보유국가

광물·에너지는 미개발 상태이지만 광물 자원의 잠재보유량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식량자원 생산지로 해바라기 기름(생산·수출 1위), 대두유(수출 1위, 생산 3위), 꿀(수출 1위, 생산 3위), 옥수수(수출 2위), 대두(생산 3위), 소고기(생산 3위), 포도주(생산 5위)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아르헨티나 수출의 53%가 농축산물 및 광산물이다. 우리나라는 대두유(콩기름) 수입물량의 85.6%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대두박 (2위), 소가죽·땅콩(3위), 치즈(5위) 등도 주요 수입품목이다.

나. 시장 특성

1) 중남미 지역시장의 교두보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으며, 특히 브라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내 투자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남미연합(UNASUR)

2008년 5월 23일 남미판 EU, 남미연합(UNASUR)이 출범했는데 남미공동시장과 CAN(안데스공동체)에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이 더해 총 12개국이 참여한 국내 총생산 규모 2조 달러, 약 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조직으로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의 완성체이다.

남미 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남미 국가의 지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르헨티나로의 투자진출은 남미공동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연합(UNASUR)에 가입된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2) 공산품 수입 의존 시장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의존도는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79%, 가전·통신기기 60%, 의료·광학기기 62%, 일반기계 51%, 기초 화학제품 36%, 수송기기 34%, 섬유류 18%, 플라스틱 제품 15% 등이다.

3)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지배시장

1989년 메넴 정권은 시장개방, 공기업 민영화, 자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력, 통신, 원유생산, 상수도, 항공, 공항운영, 고속도로 등 주요 공기업 민영화에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아르헨티나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 2,317억 달러 중 외국계 기업의 매출액은 1,653억 달러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 중에서는 스페인계가 압도적이다. 100대 기업 중 석유, 전화, 가스, 항공 부문의 스페인계 4개 기업 매출액은 307억 달러로 13.2%를 차지하고 있다.

4) 대형 유통망 확대

소매상 중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까르푸, 코토, 월마트, 디스코 등 다국적 대형 유통망의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이다.

최근에는 중국계 연쇄점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기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4,800개로 전체 소매유통의 30%를 장악하고 있다.

5) 경제위기 여파와 경쟁 심화로 가격시장화

2001년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및 중산층 빈곤화 등의 영향으로 저가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편중 현상으로 저가시장과 고가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고가품 시장의 경우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산 제품은 현지시장에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어 고가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전략이 요구된다.

다. 무역거래

□ 외상수입 보편화로 인한 수출자 신용 제공 필요 시장

아르헨티나는 관행적으로 외상거래를 하다가 디폴트 이후 대부분 현금, L/C 거래에 응해 왔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90일 D/A 등 외상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L/C의 경우 개설 수수료가 업체신용도에 따라 2~5%에 달해 대부분 기피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금 일부(20~30%)를 T/T로 송금하고, 잔금은 CAD(cash against documents)로 하는 경우도 많다.

라. 주요 경제정책

1) 고환율 정책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증가 및 수입억제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증대하고 대미 환율을 3.0 페소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정부는 물가상승 위험 요소보다도 환율 방어를 통한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최대의 수출입 대상국인 브라질에 대한 제품대비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브라질 헤알(Real)화의 환율변화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재정흑자 유지

아르헨티나 정부는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재정흑자를 실업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운용과 고환율 정책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1 차 상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추가세입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공공서비스 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3) 수입대체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장려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수입 대체를 통한 재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강화하였다.

4) 투자 및 외환보유고 정책

내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BT, 광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전기, 천연가스, 석유 등의 경우 가격동결 정책 시행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고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 매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수입규제 강화 추세

국내산업보호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10월 기준 한국산은 철강, 섬유 등 3개 품목 수입규제 중이다. 2007년 9월 최저수입가격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저가품의 현지시장 진출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아르헨티나 경제 침체 영향에 영향을 미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브라질산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위한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2008년 10월 발표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국내산업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9년 3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전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섬유 제품, 목재 가구류, 너트류, 농기계류 및 트랙터, 에어컨 제품 등 200여 개 제품을 발표하였다.

2. 물가정보

(1 US\$ = 3.80\$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식품류	쌀 1kg	5.45
	계란 12개	10.50
	쇠고기 등심 1kg	17.50
	돼지고기 등심 1kg	26.80
	우유 500ml	4.15
	식용유 1L	8.20
	생수 1L	2.5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9.5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1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5.00
	김치찌개 1인분	35.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1,63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1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89,000
	무연휘발유 1L	3.30
	자동차 등록비	1,5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68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8.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0.90
	시내버스 기본요금	1.10
	택시 기본요금	3.8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2.9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0.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4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1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4,9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60,042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64,6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73,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57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04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92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8,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5일
	출산휴가일수	90일
	연간 국경일수	13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4.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오프라인 정보입수의 한계

-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장 먼 국가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 한계가 있다.

2) KOTRA 바이어발굴 서비스 활용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참조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KBC에 바이어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 시장조사: 바이어조사, 시장동향, 에이전트조사, 합작파트너조사 등
- 마케팅지원: 세일즈출장지원, 전시회참가지원, 지사화사업 등
- 투자지원: 투자환경조사, 투자상담지원, 법인설립지원 등

3) KOTRA 자료실의 아르헨티나 바이어 정보 활용

Directorio de Importadores Argentinos CD(America Edita 발간): 매년 아르헨티나 수입상 정보 CD를 구입하여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업가이드(Guia de la Industria): 매년 분야별 제조 및 무역업체 명단인 산업 가이드 디렉토리를 구입하여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언어 장벽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검색 엔진과 홈페이지의 내용이 대부분 스페인어 판이어서 언어상의 문제가 있고, 이 외의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가입과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요사이트

- Datos Virtuales(www.datosvirtuales.com)
 - 중소기업에 위한 무역정보, 업체자료,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 Interpymes.net(interpymes.net)
 - 중소기업 디렉터리로 전시회, 이벤트, 강의 정보를 제공한다.
- Paginasamarillas(www.paginasamarillas.com.ar)
 - 텔레포니카 전화 회사가 운영하는 옐로우 페이지이다.
- Feriasy Congresos(www.feriasycongresos.com.ar)
 - 전시회, 각종포럼 캘린더로 전시 회별로 참가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 NOSIS(www.nosis.com.ar)
 - 수입 바이어리스트 및 관세청 통계 정보 제공하고 있다.

3) 전문 전시회 참관 또는 전시회 참가업체 디렉터리 활용

- 전시회 참가업체의 경우 각 전시회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활용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홈페이지(www.kotra.or.kr/buenosaires)의 전시정보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다. 기타 정보 자원

1) 거시경제 통계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www.indec.gov.ar
 -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 등 각종 통계 제공
- 아르헨티나 경제부: www.mecon.gov.ar
 - 관보 및 각종 경제정보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www.bcra.gov.ar
 - 금융정보/통계, 경제현황 및 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2) 정부기관

- 아르헨티나 투자진흥공사(ProsperAr): www.proserar.gov.ar
 - 아르헨티나 투자현황 및 비즈니스 정보
- 아르헨티나 수출진흥기관(Export-Ar): www.exportar.org.ar
 - 해외수입업체정보, 수출통계, 세계 입찰정보 등
-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소(CEP): www.cep.gov.ar
 - 내외국인 투자통계, 아르헨티나 산업 현황 분석 자료 등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www.mecon.gov.ar/cnce/index.htm
 - 아르헨티나 반덤핑 규제 현황 등
- 아르헨티나 국세청: www.afip.gov.ar
 - 서비스안내, 수입/수출업자검색, 수입자 등록수속 등
- 아르헨티나 입찰기관(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www.argentinacompra.gov.ar
 - 정부입찰 총관기관

3) 수출입 통계

- Mercosur On Line: www.mercosuronline.com
 - 아르헨티나 외 남미공동연합(MERCOSUR) 수출입 통계 사이트
- 관세통계 사이트: www.tarifar.com
 - 아르헨티나 수출입관세 사이트

4) 상품정보

-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협회(ADEFA): www.adefa.com.ar
 - 자동차 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 등
-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협회(AFAC): www.afac.org.ar

- 아르헨티나 플라스틱산업협회: www.caip.org.ar
 - 산업현황, 생산업체 디렉터리, 기술안내 등
- 아르헨티나 기계공구협회: www.carmahe.com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협회: www.cessi.org.ar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이트
- 아르헨티나 의약품생산 협회: www.safybi.org.ar
 - 의약품 생산현황, 시장동향
- 아르헨티나 의류산업 협회: www.ciaindumentaria.com.ar
- 아르헨티나 의료업체 리스트: www.gpys.com.ar

5) 경제 월간지

- Mercado: www.mercado.com.ar
 - 경제동향 및 시장동향 분석
- Apertura: www.apertura.com
 - 마케팅중심 및 시장동향분석 월간지
- Maquinas y Equipos: www.araguasherrero.com.ar
 - 기계, 장비, 공구 등의 시장동향 분석 월간지
- Panorama Minero: www.panoramaminero.com.ar/home.htm
 - 광업전문지

6) 자원 정보

- 아르헨티나 광업청: www.mineria.gov.ar/nnhome.asp
-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energia3.mecon.gov.ar/home/
- 아르헨티나 석유가스협회(IAPG): www.iapg.org.ar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아르헨티나 바이어 상담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1년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가능성을 문의해야 한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전에 레터로 방문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인은 다른 중남미에 비해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있다.

□ 식사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생선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선호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 쇠고기로 생선은 부활절 등에 제한적으로 먹는다.

스테이크,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음식이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은 매우 불편해 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선물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 고리, 봉투 칼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을 권하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선에게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한다. 7월 20일은 ‘친구의 날’이다.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e-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인사

아르헨티나 현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인 경우 가볍게 포옹하고 오른쪽 볼을 맞대는 ‘운 베시또(un besito)’ 인사법이 일반적이다. 초면인 경우 악수를 교환하여도 무난하다. 친해지면 ‘운 베시또’도 시도해 보자.

□ 복장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여타 중남미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타이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색을 추천한다.

2) 바이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

□ 첫 대면에 자연스러운 주제의 이야기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으뜸가는 축구 강호로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치켜 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라는 의미)라는 도시 이름처럼 아르헨티나는 공기가 매우 상쾌해서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칭찬한 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상담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 이 외에도 탱고, 마떼(mate), 아르헨티나 국기 등도 가벼운 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신국가로 바이어 판단하기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이민 국가’이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정치·경제·종교적인 이유로 이민한 이탈리아·스페인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 국가로부터 이민도 붐을 이루었다. 현재 인구 약 3,900만 명 중 90% 이상이 유럽계 이민 후손으로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강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로부터 거만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최근에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인근 국가로부터 저임 노동력 유입이 많고, 중국(7만 명), 대만(2만 명) 등 아시아계 이민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르헨티나인은 출신국에 따라 업종이 전문화되어 있고 상관습도 다르다. 스페인, 이탈리아 계는 산업 전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 외의 국가 출신은 특정업종에 전문화되어 있다. 예컨대, 2만 명 내외의 한국인의 경우는 봉제업과 의류 도소매업에 교민의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 상담 스타일도 다른데 스페인·이탈리아계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Si (yes)’는 계약 또는 주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KBC 경험으로 볼 때 꼼꼼한 바이어일수록 계약 가능성이 높았다. 중동계 바이어는 ‘가격(비용)이 머리에 있다(costos en la cabeza)’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치밀한 상담준비가 필요한 반면,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독일·영국·북유럽계 바이어는 사전조사가 치밀하고 분석적이다.

출신 국가별 종사 업종 현황

-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제조, 유통 등 전 업종에 진출
- 유대인: 직물 수입 및 유통, 라디오, TV 등 언론, 부동산
- 아랍: 신발, 피혁산업
- 중국: 200㎡ 이하 소매점(4,800개 이상)
- 한국: 봉제, 의류 도소매업
- 일본: 화훼
- 볼리비아: 봉제

□ 바이어 특성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번 거래를 시작하여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쫓고 들어오기도 어렵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거래를 오래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이다.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라 아시아 등 신규 거래선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단 샘플을 받아 본 바이어는 수 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하며, 그 결과 제품에 대해 신뢰를 갖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보편적인 성향이다. 첫 거래에서 대량으로 오더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잠재 시장을 잃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며,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으로 거래를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수입상은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시장조사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기 때문이다. 에이전트십 부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점으로 이해가 되며 구두로도 쉽게 부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선정 시 독점 권한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한번 거래를 시작하여 일단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를 얻으면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 및 품질 등의 조건으로 거래처를 바꿀 의사가 있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게 이를 먼저 알리고 만약 기존 거래처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 시장특성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 감소 탓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단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기능)의 차별성을 부각한 설득이 필요하다. 바이어에 따라서는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바이어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

□ 수입관행

2001년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 감소 탓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를 요구한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지 상관행상 꼭 'Contract Sheet'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기해야 한다.

제반 선적서류 작성에 대해 바이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 등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07년 9월 최저 수입가격제도 강화로 price list 등에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지체 비용이 커진다. 더욱이 일부 선금 송금 후 선적하고 잔금은 선박 도착 직전에 내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류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다.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 기재하면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문제 발생 시 현지 바이어(특히 유대인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진다. 특히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한다. 바이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후 문제 발생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하기 어려운 조세제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자는 막대한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우선 ‘수입대금 통관 이전 지불’ 규정이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고시에 의하여 HS 코드 8단위 기준 1,356개 품목은 현지통관 이전에 수입대금을 완불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 통관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 통계세(0.5%),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 소득세(3%)를 선납해야 한다. 전자제품과 같이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심하다. 수입자가 유통업체에 90일 후 결제조건을 제시할 경우 3개월 분의 수입대금과 세금이 운영자금으로 잠기는 셈이 된다.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는 사후에 신용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 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대표적 악법으로 거명되는 ‘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도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수표 입출금 시 0.6%의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세수 중 수표세는 부가세, 소득세, 수출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아 폐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매출액으로 회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 기업은 매출액, 종업원 수로 회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업하기 어려운 복잡한 조세제도로 유력기업도 회사를 분사하기 때문에 1개 회사를 보면 외형이 작아 보인다

3)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 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자.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한국식 ‘술 한잔’은 피하자.

아르헨티나에서 “술 한잔(una copa) 하자”고 하면 동성연애자로 취급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식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분위기와 뉘앙스에 따라 상대가 남성인 경우 동성연애자, 여성인 경우 ‘작업을 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녁식사를 초대할 경우는 정중하게 저녁을 초대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해야 한다.

□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틀린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알레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향을 지르고 돈 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동 행위를 인격 모욕적인 행위라고 KBC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4) 재미있는 사회 엿보기

□ 아르헨티나인의 자화상

유엔개발계획(UNDP)의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기회의 시기’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인은 자 화상으로 허풍쟁이, 부패, 남을 도와줌, 거만하다는 순으로 자신을 평가하였다.

아르헨티나인의 자기평가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허풍쟁이(9%), 부패(9%), 거만(8%), 게으르다(7%), 개인주의(5%) ○ 긍정적: 남을 도와줌(9%), 부지런함(4%), 도전정신(3%) ○ 기 타: 축구(5%), 마떼(4%), 국기(4%), 탱고(3%) |
|---|

□ 가족경영 중소기업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적으로 가족경영 위주의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다. 이는 1990년대 초 메넴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조치의 영향이다. 아르헨티나 기업에서는 부자(父子)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거래선과 관계를 유지한다. 동 KBC에서 바이어를 초대하면 둘에 하나는 부자가 함께 나온다. 따라서 기업경영은 전문경영보다는 가업 수준으로 대물림 되고 전통적으로 해당업종에는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모계 회사의 구매정책에 따라 좌우되며 ‘관료주의’가 있다.

나.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1) 거래제의 시 우선 E-메일로 가볍게 접촉하자.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e-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제품·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BC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현지 활동명인 ‘KOTRA-Oficina Comerical de la Embajada de Corea(KOTRA -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로 기재한다.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 인지도 및 거래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을 때에 회사 소개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샘플을 포함한 거래 관련 일체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홈페이지·e-Book 등의 형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선호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검토결과 문의는 1주일 뒤에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 예상일에서 대략 1주일 이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료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게 되면 거래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팩스 또는 e-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에 정성을 다하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종이로 인쇄된 자료를 파일에 철한 형태(바인더)로 회사소개서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회사소개서를 팩스 한두 장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에게 회사소개서를 보낼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국가별 바이어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좀 더 상세한 회사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제품소개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자세한 제품 관련자료와 함께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약간 두꺼운 파일 형태로 편철해 제공하는 것이 좋다.

과거 한국의 한 업체가 제작한 7장짜리 제품소개서를 가지고 오퍼를 하였더니 바이어 측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자세한 내용의 제품소개서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물론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전달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의 얼굴과도 같은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를 제대로 만들어 제공할 때에 바이어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의 철저한 준비는 중요하다.

다. 전화통화 시 유의할 사항

1) 국제전화 고비용으로 기피

아르헨티나에 인터넷 전화 등이 보급되어 국제전화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존의 높은 국제전화 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는 국제전화를 기피하고 있다.

2) 담당자와 통화 시 인내 필요

아르헨티나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후에는 영업 때문에 자리에 없는 담당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독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비서에게 외출 중 또는 여행 중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비서와는 친분 형성 필요

아르헨티나 업체에서는 현지 비서들의 입김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와의 친분 형성에 못지않게 바이어 사무실의 비서와도 친해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말 것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업무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타입으로 바이어에게 전화로 재촉하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매일 전화를 함으로써 조금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2일 혹은 3일의 간격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

5) 바이어와의 거래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

아르헨티나인들과 거래할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곧바로 회신하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락을 취해야 한다.

바이어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에 신경을 쓰면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용언어 및 연락 시간대

1) 바이어 20%가 영어를 구사

KBC가 접촉한 경험으로는 수입상 중 20% 내외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거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거래제의 교신이나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과 관련해 통화할 때에는 가급적 스페인어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바이어와 오전에 연락하자(한국과 -12시간 시차)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통화 시 가급적 현지시간으로 오전 시간 중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담당자는 오전에 잠깐 회의를 가진 후 12시까지는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KBC의 경험으로도 오전시간에 담당자와의 연결 확률이 오후시간보다 높았다.

50% 이상의 아르헨티나 기업은 팩스를 전화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팩스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날 데 팩스, 뽀르 파보르(Señal de Fax, Por Favor)"라고 말하면 팩스 신호음이 들리면서 송신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화라인이 많은 회사도 팩스 전용선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유의 사항

1) 고관세 부과 및 남미공동시장 역내국과 관세율 차이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연합 회원국들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 3사도 매출액의 80~90%를 멕시코, 브라질 투자기업에서 구매 중이고,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입 규제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대상으로 냉연강판(12개 품목), 아연강판(8개 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고, 아직까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종료재심 중인 상태이다.

한국은 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간 관세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통관규제(Canal Morado)

1999년 1월부터 수입품의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방지 목적으로 적갈색 통관(Canal Morado) 절 차를 추가하여 세밀한 서류 및 물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최저 수입가격 제도

관세 포탈 행위를 근절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재도입하여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억제를 위하여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조 치에 의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입사전허가제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9년 3월 4일(관보, Resolución 61)브라질과의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규제조치 강화책 일환으로 사전수입 승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중국 및 브라질산 섬유 제품·장난감·신발·자전거·가정용 제품·타이어·오토바이 등이 이미 사전수입 승인제도 적용 제품은 4500여 개이다.

6) 형식승인 취득에 장기간 소요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의 형식승인 취득 시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특히 유럽, 미국 등에서의 형식승인증빙서를 요구함으로써 선진국 실적이 없는 제품의 경우 사실상 현지시장 진출이 불가하다.

나. 투자진출 유의 사항

1) 빈번한 법규 개정

투자진출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규의 투명성이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관련법규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법규가 빈번하게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투자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만 아니라 현지에서 투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법규 변경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위주의 경제정책

포퓰리즘으로 지칭되는 대중정치의 근원은 아르헨티나다. 현 정권 역시 항상 근로자의 입장에 서 법규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근로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반면 해고비용은 매우 높으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발생 시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 발생 소지가 많아 항상 이에 대비해야 한다.

3) 신뢰성이 부족한 통계 수치

현재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현안은 물가안정이다. 물가는 서민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외채 이자율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실질인플레이션의 50%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통계수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실감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4) 정부를 사칭한 브로커의 접근

정부 정책이 투명하지 못한 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많다. 특정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조세 특혜를 주겠다고 하며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인맥을 사칭하는 브로커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보통 브로커 측은 철저한 비밀을 요구하지만 수많은 브로커 중에 목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 재국 대사관, KOTRA 등을 통하여 브로커와 브로커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사전 검증은 받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서는 안 된다.

5) 장시간 소요되는 법인설립 기간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절차는 법규상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제한도 없으며 요구사항도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서류요구, 담당창구직원의 휴가, 전산망의 미작동 등으로 1개월 정도 예상했던 시간이 6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글자 하나가 잘못 표기되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6) 복잡한 조세제도

아르헨티나에는 수출세, 금융세, 추가부가세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금이 많다. 당초 세금 부과목적은 2001년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정부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이 삭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투자타당성 조사 및 투자자금 회수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세금 항목에 대한 보다 많은 주 의가 필요하다. 아직 양국 간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7) 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는 암시장

대부분의 후진국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음성(현지어 Negro)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관행을 간과할 수 없다. 언더밸류를 비롯하여 탈세, 급행료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신정부가 집 권한 이후 음성거래는 축소되고 있지만 투자 진출 시, 음성거래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8) 스페인어 중심의 사회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며 영어 구사인구는 많지 않다. 모든 공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고 인터뷰 등도 스페인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현지에서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지어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영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무역 성공 및 실패사례

1) 성공 사례: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 틈새 시장 진출

- 디지털 방송 수신기(일명 Set Top Box)의 경우, 주요 시장인 독일, 영국 등의 서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시장 점유율과 이익의 폭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 이에 중소기업인 A 사는 방송사 직납시장의 주요 타깃으로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 동유럽·러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가의 위성/케이블 방송사를 설정하여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중 중남미의 이머징 마켓 개척에 나서 성공했다.

□ 정보 선정

- 방송사 직납시장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한발 빠른 정보 입수이다. 어느 국가의 어떤 방송사가 언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지, 최종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게 되는지 등등 경쟁사보다 빠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방송사의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다. A 사는 인터넷, 전시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도중, KOTRA KBC 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M사에서 디지털 방송 프로젝트를 위해 STB 공급사 선정을 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A 사는 KBC 의 도움으로 M 사의 경영진과 교신을 시작하여 디지털 프로젝트의 STB 공급자로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 공격적인 시장 진출

- 방송사 직납시장에서는 한번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한다고 해서 단순 가격, 납기, 결제 조건 등의 영업적인 요소만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공격적이고 끊임없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투자 요소로 중소기업의 경우 중도 포기하기 쉽다. 특히, 남미처럼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A 사는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타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진을 파견, 첫 제품 샘플을 기술진들이 직접 들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M 사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약 1 개월 간의 초기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장기간의 기술진 파견을 통해 기술지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성공하였다.

□ 발로 뛰는 CEO

- A 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M 사의 경영진과 미팅을 진행하여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쟁사의 경우, 남미같이 지리적으로 먼 곳은 지역 영업담당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 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장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M 사의 경영진에 상당한 호감을 주었고 거래 성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결국 2 만 달러 수준의 Trial PO 를 접수하여 선적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진을 아르헨티나 현지에 파견하여 한 달이 넘는 장기 체류를 통해 첫 선적된 제품이 M 사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끊임없는 적합성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적합성 테스트의 성공으로 최초로 100 만 달러 규모의 정식 수주를 받아, 본 물량을 공급해 남미 아르헨티나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다.

2) 실패 사례: 바이어 사전동의 없이 다른 모델 선적

- 국내 A 사는 아르헨티나 T 사와 수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바이어가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사전통보 없이 선적하였다. 바이어 주문모델이 설비교체로 인해 단종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 바이어는 수출자에게 모델 변경을 항의하고 전량 반송을 요청하였다. 바이어는 변경된 모델은 자사가 현지 거래선에 약속한 사양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 건으로 인해 수출자는 클레임은 물론 바이어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

나. 투자 성공 사례

□ 성공사례: 철저한 시장조사로 미래의 손실을 예방

- 철저한 시장조사
 - A 사의 경우 2005 년부터 현지 투자진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입지를 물색하다 2007 년 말에서야 투자를 결정했다. A 사 대표는 2 년간의 기회소득은

상실하였지만 조기 투자를 결정했다면 주정부 인센티브를 적게 받았을 것이고, 치즈 생산량 계획 착오로 더 많은 손실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더 많은 인센티브 획득
 - 투자진출 예정지역 주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 협상에 임하는 진지함과 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일종의 인센티브다.
- 한국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
 -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KOTRA 와 같은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지만 주재국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을 대동하는 경우 협상이 한층 유리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주재국 고위급 정부 인사를 직접 면담하기는 쉽지 않다. 경험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통하여 방문을 주선하거나 공공기관 직원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주정부에서도 의사결정권자가 상담테이블에 나와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성공사례: 현지 법 맞는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

- 현지 관습을 따른다.
 - 아르헨티나는 탈세와 뒷거래가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관료가 간접적으로 이와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친 장부조작은 과실송금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에 기여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주재국 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외국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
- 장기 계획
 - 외국투자는 장기 경영이다.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대량의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단기에 사업 철수가 어렵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영주권 종류 및 신청

1) 영주권 종류

아르헨티나 이민법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영주권이 있다.

□ 영구영주권

영구 거주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해당자는 가족 연고 이민자로서 연고 가족이 시민권 소유자나 영구 영주권자일 경우와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아서 3회 이상 갱신을 한 사람이 포함된다.

□ 임시영주권

가족 이민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발급일로부터 12개 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데, 3회 갱신 후에는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 단기체류권

단기 체류의 경우 발급되며, 해당 외국인에게 국내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해당자는 입국 도장과 비자 사증이 들어있는 자국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자는 방문객, 관광객, 선원, 단기시장 조사원, 15일 미만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등이다.

2) 영주권 수속

□ 사업자 이민

- 국내 법인체의 임원 임명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법인체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서, 세무 자료, 노동 관계 서류 외
- 외국인 이력서
- 입국시 국내 거주지 관련 서류
- 비자 발급 해당 영사관 지정서

□ 투자 이민

- 이민법상 지정된 금액 100.000 페소(약 3 만달러) 이상의 투자 증명 서류
- 현금 예치 증서
- 현물 투자 증명 서류
- 투자 계획서
- 기타

□ 취업 이민

- 최소 1 년 이상의 근로 계약서
- 고용주의 외국 근로자 사용자등록 인증
- 고용주의 세무 자료 및 사업자 등록서, 기장, 노동 관계 서류 등
- 입국시 국내 거주지 관련 서류
- 외국 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명시서
- 이력서
- 비자 발급 해당 영사관 지정서

□ 이민 수속 절차 진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모든 서류 원본 또는 사본 공증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의 번역 공증은 아르헨티나 국내 번역사를 통해야 한다.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민 수속 후 이민청에서 서신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민청에서는 수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민 초청장이 발급 되어도 이민청은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이민청에 서류 진행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영주권 신청비용은 15 페소이며 수속기간은 90 일이다.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영주권 수속 그리고 영주권 수령 등 최소 3 회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영주권 신청

□ 임시 영주권 신청

투자 이민, 사업자 이민, 직계 가족 이민, 목회자 이민, 연구원 및 특별 기술자 이민 등의 등급에 포함된 이민 신청자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과 동시에 3개월 기간의 한시적인 영주권이 발급되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갱신을 해야 한다.

이민법상으로는 3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현지 이민청에서는 1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만을 발급하고 있다.

□ 영구 영주권 신청

투자 이민자나 취업 이민자, 연금 이민자 등의 경우 임시 영주권을 3회 갱신한 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연고 가족이 아르헨티나 시민권 소지자나 영구 영주권 소지자일 경우 바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국립주민등기소(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에서 신분증(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민청에서 발급한 영주권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국립주민등기소

- 명칭: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RENAPER)
- 홈페이지: www.mininterior.gov.ar/renaper
- 주소: calle 25 de Mayo 155
- 전화: (54-11)4393-0566

나. 주택 및 사무실 구하기

1) 영주권 등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영주권(DNI) 또는 적법한 비자 등 법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 2~3 개월 단기체류 외국인의 아파트 임차는 예외다.

시민권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2년 이상 지속 체류한 모든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시민권 취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아르헨티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자, 국내 황무지개간 계획자, 아르헨티나 국적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매매와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임대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한다. 최근에는 일부 건물 소유주가 직접 원매자나 임대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빈부차가 극심하여 소수의 부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번거로운 거래관계를 직접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하는 건물에는 매매(venta) 또는 임대(alquila)라는 간판이 건물에 돌출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착한 것이며, 연락처는 부동산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이다.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원매자는 주인과 직접 대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협의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행하게 된다.

3)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높고, 보증금은 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임대 총액의 5.0%(부가세 별도)이고 보증금은 2개월 해당금액이다. 매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3~4%(부가세 별도)이다.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연장 시(예: 3년 임대 후 추가 3년 연장 시)에도 추가 연장기간에 대하여 부동산업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4) 2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임대 시 세입자는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주인 또는 세입금액에 따라 보증인은 1~2명이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부동산은 보증인 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다. 보증인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 1년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사례도 많다.

다. 은행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은행 구좌 및 신용카드 개설 시에는 시민권, 영주권 등 적법한 신분증명서, 납세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주재원으로 현지에 신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AMEX 등의 아르헨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내에 은행구좌 개설은 굉장히 까다롭고 당좌구좌의 입출금 시 금융거래세(0.6%) 부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좌개설 및 수표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라. 전화 및 휴대전화 신청

전화 및 휴대전화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및 법인 등기부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영주권(DNI)을 요구하고 있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의 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충전식 Prepaid전화의 사용비율이 높다.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경쟁이 치열하므로 국제전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마. 생필품 조달

아르헨티나의 경우 육류,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하여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은 없다. 생필품 조달은 집 근처의 소매점 구매 위주에서 점차 대형할인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할인 매장으로는 아르헨티나 대형 슈퍼마켓인 코토(Coto),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Carrefour), 월마트(Wal Mart), 줌보(Jumbo), 노르테(Norte)가 주요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계 소매점(일명 Autoservicio)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만 4,800개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이며, 작은 가게인 키오스코(kiosko)가 곳곳에 있어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 한국산 식품 및 생필품 조달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 계절이 반대이나 기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대부분의 곡물과 채소류는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교민 수는 2만 명 내외로 이민역사는 42년이 되어 한국식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조미료 및 기호식품 등은 교민업체가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가격은 한국과 비교하여 고가이지만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입이 용이하다.

한국 식품과 생필품은 한인촌인 백구지역-현지 지명으로 바호 플로레스(Bajo Flores)-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의류 및 섬유 상가 밀집지역으로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베자네다(Avellaneda)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한인촌과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중국인 촌에서도 한국 생필품의 일부를 구입할 수 있다.

바. 레저·스포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서울의 1/3 크기로 인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포함하여 광역 부에노스아이레스(Gran Buenos Aires)라고 부르며,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반경 600~800km의 평원을 끼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산이 약 8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바다도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은 대부분이 초지로 축구장이 산재해 있어 서민들은 축구를 즐기며, 중산층 이상은 골프와 경마, 상류층은 승마, 폴로, 바다낚시, 사냥, 스키 등을 즐긴다. 골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여건이 좋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스포츠는 축구다. 마라도나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를 배출해 축구 관련 TV,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잡지 등이 많이 있다.

사. 치안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2001년 말에 발생한 경제침체 영향으로 치안상태도 악화되었다.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사건, 강도, 살인 사건 등이 주류로 대법원 판사, 현직 장관 등도 집 부근에서 강도를 당하는 등 치안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 부근도 강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는 도심이나 변두리, 인적이 드문 도로로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다.

외국인의 경우 택시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콜택시나 레미(Remis, 콜택시의 일종으로 일반 개인 승용차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 자녀 교육여건

1) 아르헨티나 학제

1993. 4월 연방교육법 제정에 따라 유치원(Inicial), 초·중등과정(Educación General Basica - EGB) 9년, 고등과정(Polimodal) 3년, 대학과정(Superior)으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종전 초등과정(Primaria) 7년의 의무교육 및 중등과정(Secundaria) 5년이다.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과정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이 대부분 무료이며, 유치원 5세 과정 및 초등과정(EGB) 9년은 의무 교육이다.

학 제

Inicial	Educación General Basica			Polimodal	Superior
(유치원 과정)	(초, 중 과정)			(고교 과정)	(대학 과정)
2003-04-05	1 · 2 · 3	4 · 5 · 6	7 · 8 · 9	1 · 2 · 3	전공마다 이수과정 다름
연령별	EGB 1	EGB 2	EGB 3	최저 3년, 기본 5년	전문대 및 대학
	의무교육(10년, 5세 유치원 과정 포함)			직업 선택 전 교육	전문직업 교육

대학의 경우는 철저한 학점제로 운영되어 졸업 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다. 학기는 3월 초에 개학하여 12월초에 종료하며 방학은 겨울방학이 7월에 2주, 여름방학이 12, 1, 2월 에 약 10주이다.

2) 주요학교

□ 링컨스쿨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Lincoln School	Andres Ferreyra 4073 (1636) La Lucila B.A. Argentina	(54-11) 4790-2117

링컨스쿨(www.lincoln.edu.ar)은 미국계 학교로 외국 상사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자녀가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교이며, 초, 중,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이상은 완전히 영어로만 교육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은 가능하나 현지 교육법에 의한 학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학은 8월부터이고 익년도 7월에 종료하며 겨울방학은 6, 7, 8월에 7~8주, 여름 방학은 12, 1, 2월에 8주가 있다. 수업료는 2007년 고등학교 기준 기부금 6,000 달러, 등록금 1,520달러, 연간 수업료 15,200달러로 비싸다.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Instituto Coreano Argentina(ICA)	Av. Asamblea 1840(1406), Cap. Fed., Argentina	(54-11) 4633-8598 4631-6027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전일제 학교로서 1995년 한국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 기관이며, 교지는 3,500㎡, 교사 연건평은 830㎡, 교실 수는 22개, 특별교실 4개 강당, 식 당 등이 있다.

교육은 한국어·스페인어 병행이며,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수도 160명에 달하고 있다.

□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Colegio Nacional de Buenos Aires	Bolivar 263 (1066) Cap. Fed. Argentina	(54-11)4331- 0733/0734/9290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유명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지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매년 취학하기 위해 일년 동안의 입학 시험 과정을 거친다.

자. 병원 및 의료보험

교민과 상사 주재원의 경우 OSDE, Swiss Medical 등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 브로커를 통해 가입하면 되고, 월 보험료는 연령과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나 2009년 기준 3인 가족 OSDE 플랜 310의 경우 월 1,465페소(382 달러) 수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유명 종합병원은 독일병원(Hospital Aleman), 스위스병원(Swiss Medical) 등이 있다. 응급사태 발생 시 구급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경우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출장가이드

가. 기 후

1) 기후분포: 열대부터 한대까지 다양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광활하고 남북이 3,694 km 에 달해 지역별로 열대·온대·한대의 다양한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역별 기후특성

지역	기후
북부 및 동북부	열대 기후로 고온 다습(우기: 10월~3월)
안데스 산맥	산맥의 고도에 따라 아열대성에서 한대 기후 분포
중부 해안	온대로 여름에 고온 다습(여름인 1월 평균기온 25℃이고, 겨울에는 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중부 팜파스	해안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은 최고 38℃까지 상승
남부 파타고니아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온대 기후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섬	남극에 가까워 한대 기후를 보이며, 비와 눈이 자주 내림. (평균기온: 여름 8~10℃ / 겨울 0~2℃)

2) 계절: 한국과 정반대

주요 도시별 평균기온

(단위: ℃)

도시명	연 평균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Buenos Aires	18.0	24.9	23.1	12.9	11.7	15.5	19.6
Cordoba	17.6	24.8	21.8	11.3	11.1	17.0	20.6
Mendoza	17.3	27.0	22.5	9.6	8.1	15.7	20.7
Posadas	21.9	27.3	26.1	16.2	16.6	20.8	22.8
Trelew	14.2	23.1	19.8	7.8	6.4	11.8	16.4
Ushuaia	6.6	10.5	9.2	4.5	2.3	3.5	8.8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요 도시별 강수량

(단위: mm)

도시명	연강수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Buenos Aires	1,087.9	268.4	28.1	99.1	46.2	22.8	95.8
Cordoba	752.9	47.2	130.2	30.1	29.0	4.0	139.5
Mendoza	284.1	39.0	45.2	85.4	19.7	6.9	3.9
Posadas	1,283.8	52.5	48.0	51.2	46.2	139.9	247.0
Trelew	207.4	4.3	8.0	9.4	30.9	5.0	16.0
Ushuaia	455.9	45.2	35.0	38.7	44.8	48.0	27.9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어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다.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으나, 봄과 가을은 짧은 편이다. 여름은 습하고 더우며 평균 25℃ 정도이고,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은 겨울에 영상 기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으나, 습도가 평균 70%를 넘어 한국의 초겨울 날씨와 비슷하다. 바릴로체와 멘도사 지역은 겨울에 눈이 내리며, 스키로 매우 유명한 곳이다.

광활한 국토로 지역별 강수량이 상이하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진다.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919 mm 이며, 연평균 1,400 mm 이상의 지역에서 200 mm 이하의 사막까지 다양하다. 우기는 11~3 월까지이며, 건기는 4~10 월까지이다.

3) 부에노스아이레스(연방수도) 및 수도권 기후

연 평균 기온이 18℃로 전형적인 온대 기후이며, 여름(최고 29℃)은 무더우나 겨울(최저 5℃)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라 플라타(La Plata) 강에 인접하고 있어 습도가 매우 높으나, 내륙으로 갈수록 건조해진다. 연 평균 강우량은 1,087.9mm 이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시차는 12 시간으로 한국이 12 시간 빠르다. (한국이 오후 21 시일 때 아르헨티나는 오전 9 시) 서머타임 제도는 2007 년 12 월~2008 년 3 월까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008 년 12 월~2009 년 3 월에도 실시되었다. 아르헨티나 전국이 동일 시간대이고, 브라질 및 우루과이(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의 주요 도시와 동일 시간대에 속해 있다.

2)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9:00~18:00 이며, 세관 등 관공서는 근무시간이 다르다. 점심시간은 12:30~14:00 이며, 주 5 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근무시간

구분		근무일	근무시간
관공서	일반 관공서	월~금요일	9:00~18:00
	세관	월~금요일	10:00~17:00
	세무서	월~금요일	8:00~16:00
	운전 면허소	월~금요일	7:30~13:00
은행, 환전소		월~금요일	10:00~15:00
상점		월~토요일	9:00~20:00
회사		월~금요일	9:00~18:00
쇼핑센터		월~일요일	10:00~22:00

다. 주요 단위(도량형)

제반 도량형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한다. 길이는 미터(m), 질량은 그램(g), 시간은 초(s), 온도는 섭씨를 기본단위로 한다. 토지 넓이는 헥타르(ha)가 많이 쓰이고, 1 헥타르는 10,000 m², 3,000 평이다.

길 이

단위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	0.0109	0.0328	0.3937	0.01	1
1 m	0.0006	1.0936	3.2808	39.37	1	100
1 인치	-	0.0278	0.0833	1	0.0254	2.54
1 피트	0.00019	0.3333	1	12	0.3048	30.48
1 야드	0.0006	1	3	36	0.9144	91.438
1 마일	1	1760	5280	63360	1609.3	160930

무 게

단위	파운드(lb)	온스(oz)	톤(ton)	킬로그램(kg)	그램(g)
1 g	0.0022	0.03527	0.000001	0.001	1
1 kg	2.20459	35.273	0.001	1	1000
1 톤	2204559	35273	1	1000	1000000
1 그레인	0.00014	0.00228	...	0.00006	0.06479
1 온스	0.0625	1	0.000028	0.02835	28.3495
1 파운드	1	16	0.00045	0.45359	453.592
1 돈	0.00827	0.1223	0.000004	0.00375	3.75
1 근	1.32279	21.1647	0.0006	0.6	600
1 관	8.2672	132.28	0.00375	3.75	3750

넓 이

단위	평	평방자	에이커 (acre)	제곱야드 (yd2)	제곱피트 (ft2)	아르 (a)	제곱 미터(㎡)
1 제곱미터	0.3025	10.89	0.00024	1.1958	10.764	0.01	1
1 아르	30.25	1089	0.02471	119.58	1076.4	1	100
1 제곱피트	0.0281	1.0117	0.000022	0.1111	1	0.000929	0.092903
1 제곱야드	0.25293	9.1055	0.000207	1	9	0.00836	0.83613
1 에이커	1224.2	44071.2	1	4840	43560	40.468	4046.8
1 평방자	0.02778	1	-	0.10982	0.98841	0.00091	0.09182
1 평	1	36	0.00081	3.9537	35.583	0.03305	3.3058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종류

□ 관광·상용비자: 90 일까지 비자 면제(No-Visa)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03.12.27 부터,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2004. 7. 1 부터 비자 없이 90 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거주비자

상사 주재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의 경우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은 1 년이고, 1 년 이후에는 매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의 갱신 허가를 받음으로써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 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하다.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천우빌딩 5층 534, 우편번호 140-861
 - 전 화: (02) 797-0636(영사), (02)798-1145(상무)
 - 팩 스: (02) 792-5820
 - e- 메 일: embarcor@kornet.net
 - 홈페이지: www.embajadaargentinaencorea.org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2) 입국절차

입국심사를 실시하나 특별한 규제는 없다. 입국심사 후 신호등 시스템을 거쳐 세관검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파란 불이 켜지면 세관검사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나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T/C 등을 소지하여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출국절차

미국 항공사의 경우 검색이 까다로우므로 공항에 3시간 이전에 도착해야 한다. 출국할 때 공항세로 1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항공권 티켓에 일반적으로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국 시에도 출국심사를 실시한다.

4) 방역

특정 지역에서의 출입국자 또는 특정 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마. 환율/환전

1) 통화단위: 페소(Peso: \$), 센타보(Centavo)

- 1 페소=100 센타보
 - 1992. 1. 1 부터 화폐 개혁을 실시하여 화폐 단위를 아우스트랄(Austral)에서 페소(Peso)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 지폐: 2, 5, 10, 20, 50, 100 페소 등 6종
 - 동전: 1, 5, 10, 25, 50 센타보, 1 페소 등 6종

2) 환 전

은행·공항·환전소에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이 가능하다. 공항소재 환전소 또는 은행의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시내 환전소,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택시요금 등 소액의 경우 달러 사용이 어려움으로 환전이 필요하고, 플로리다 거리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거리나 상점에서는 달러화 지불도 가능하다.

3) 신용카드

현지식당,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식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므로 페소 또는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 항공편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직항은 없으며 3 국을 경유해야 한다. 미주 노선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외 유럽, 대양주, 남아공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항공 노선	특 징
○ 미국 / 캐나다 경유 - 서울-LA-상파울루(산티아고)-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뉴욕(아틀란타)-부에노스아이레스 - 서울-토론토-상파울루-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장 일반적인 노선 LA 직항편 없음.
○ 유럽 경유 - 서울-파리/로마-부에노스아이레스	
○ 뉴질랜드 경유 - 서울-오클랜드(뉴질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간상 가장 빠른 노선이나 수하물 무료 한도가 1인당 2개 23 kg로 작음.
○ 남아공화국 경유 - 서울-쿠알라룸푸르-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부에노스아이레스	말레이시아 항공 취항

2) 공항

- 에세이사(Ezeiza) 국제공항: 시내 중심가에서 36km 로 40~50 분이 소요된다.
- 호르헤 뉴베리(Aeroparque Jorge Newberry) 국내공항
 - 우루과이, 이과수 및 국내 주요도시를 연결한다.
 - 시내 중심가에서 20 분 내외 소요되며 간혹 국내선의 경우도 에세이사(Ezeiza)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도착과 출발 공항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항↔시내교통편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공항에서 시내까지 35km 로 출국장을 나오면 REMIS 또는 RADIO TAXI 라고 쓰인 스탠드에서 행선지를 말하고 해당금액을 지불한 후 택시 티켓을 받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택시에 탑승하면 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요금은 25 달러 내외이다.

3) 시내교통

□ 택시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이용이 가장 쉬운 편이며 운전사에게 거리이름과 번지만 주면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 요금은 앞 좌석 상부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은 3.80 페소(약 1 달러)이고, 거리 시간 병산제로 0.38 페소씩 추가되는데 통상 2 km 정도 거리에 15 페소(5 달러) 정도이다. 요금 지급 시 팁 지불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소액의 잔돈 정도를 주면 된다.

□ 레미스(REMIS)

자가용 영업차로 레미스 회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콜택시처럼 집이나 호텔에 도착한다. 미터기는 없고 요금은 거리에 따라 사전에 정하는데 택시보다는 안전도가 높아 현지인들의 이용도가 높다. 최근에는 택시 강도사건이 증가해 택시를 거리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레미스 또는 콜택시(Radio Taxi)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없다.

□ 지하철(Subte)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5 호선까지 운영되고 있고 방사선형으로 도심으로만 집중되어 있어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하다.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의 1 회 요금은 1.10 페소이고, 시간이나 거리 제 한이 없으며,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다. 2002 년부터 6 번째 노선(H 노선)을 건설 중이고, 현 노선 중에는 A, B 노선을 확장 중에 있다.

□ 버스

구간에 따라 요금이 상이(일반요금 1.10 페소)하며, 노선이 복잡하여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쉽지 않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지하철과 버스 간에 환승 제도가 없으므로 갈아탈 경우에는 요금을 새로 지불해야 한다.

4) 통신

□ 시내전화

스페인계 Telefonica 와 프랑스계 Telecom 이 유선 전화망을 양분하고 있다. 시내 전화 요금은 도수제와 거리에 따른 요금체계 등 이중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곳은 시외전화 요금이 적용된다. 공중전화의 기본 요금은 25 또는 50 센타보로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형태이며, 시내 중심지에서는 공중 전화기의 이용이 쉽다. 국제 전화 시 할인시간은 저녁 8 시부터 아침 8 시 사이이다.

□ 전화 및 PC 방(Locutorio)

아르헨티나 시내 및 주택가에 전화 및 PC 방(Locutorio)이 많이 생겨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통화료는 공중전화와 같으며 국제 전화의 경우 시간에 따라 특별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 휴대폰

무선전화 회사로는 Movistar, Personal, Claro 등 3 개사가 있다. 휴대폰은 임대료가 어렵고, 충전식 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통까지 12 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국에서 로밍한 핸드폰은 대부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

□ 국제전화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나 호텔 내 국제전화 요금은 높은 수준이다. (10 분 통화에 서울 통화기준 100 페소 이상 소요)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국	일반전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00-82-11(핸드폰 앞자리)-전화번호
	한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001(또는 002)-00-54-11-전화번호
		휴대전화	001(또는 002)-00-54-911-전화번호
국내 전화	시내통화(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15-전화번호
	시외통화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역번호 + 15 + 전화번호

주: 주요도시 지역번호-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국제전화는 콜백이나 전화카드 사용을 추천할 만하며,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또는 현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불 전화카드의 경우도 호텔에서는 연결 요금으로 통화당 10 페소 이상을 징수하므로 전화카드는 일반 공중전화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 호텔/식당**1) 호 텔**

아르헨티나 호텔요금은 2002 년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저렴하지 않다. 싱글 1 박 기준 특급 호텔은 200~400 달러, 상급호텔은 100~180 달러, 일반 호텔은 70~100 달러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요금에 부가가치세 21%가 별도로 부과된다.

호텔 별 요금은 정상요금으로서 KBC 를 통해 예약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 특급호텔

○ 호텔명: ALVEAR PALACE HOTEL

- 주소: Av. Alvear 1891, (C1129AAA)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08-2100
- 팩스: 54-11-4804-0034
- 예약: 54-11-4804-7777
- Email: reserv@alvear.com.ar / info@alvearpalace.com
- Home page: www.alvearpalace.com
- 요금: 440달러(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시내 중심에서 북쪽으로 15분 거리에 명품점과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200실 규모의 초특급 호텔이다.

○ 호텔명: HOTEL INTER-CONTINENTAL

- 주소: Moreno 809, (C1091AA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40-7100

- 팩스: 54-11-4340-7199
 - 예약: 54-11-4340-7101
 - Email: buenosaires@interconti.com.ar
 - Home page: www.buenos-aires.intercontinental.com
 - 요금: 260달러(싱글, 트윈/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315실 규모로 '95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Av. de Mayo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 호텔명: SHERATON BUENOS AIRES
- 주소: San Martin 1225 (110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18-9000
 - 팩스: 54-11-4318-9346
 - 예약: 54-11-4875-4661
 - 요금: 179달러(싱글, 트윈) + 부가가치세 (21%)
 - Home page: www.sheraton.com/buenosaires
 - Email: reservas@sheraton.com.ar
 - 비고: 객실 742실 규모로 라 플라타(La Plata)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시내 쇼핑 거리인 플로리다(Florida)에 가까이 위치한 호텔로 전시회 및 워크숍 등이 많이 개최 된다.
- 호텔명: FOUR SEASONS HOTEL BUENOS AIRES
- 주소: Av. Posadas 1086 (101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1-1200
 - 팩스: 54-11-4321-1201
 - 예약: 54-11-4321-1710
 - Home page: www.fourseasons.com/buenosaires
 - Email: reservation.bue@fourseasons.com
 - 요금: 310달러(싱글, 트윈/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세계에서 최대 노퍽을 자랑하는 7월 9일 대로(9 de Julio)와 도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변에 위치하고 있다.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춘 호텔중 하나로 과거에는 하얏트 호텔이었다. 고급식당과 Patio Bullich 쇼핑센터가 근처에 있다.
- 호텔명: HOTEL EMPERADOR
- 주소: Av. Libertador 42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131-4000
 - 팩스: 54-11-4131-3900
 - 예약: 54-11-4131-4005/6/7
 - Email: info@hotel-emperador.com.ar
 - Home page: www.hotel-emperador.com.ar
 - 요금: 150달러(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리베르타도르 대로(Av. Libertador)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호텔로 스페인계 체인 호텔 중의 하나이다. 주변에 Four seasons 호텔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 호텔명: HOTEL HILTON
- 주소: Av. Macacha Guemes 351 (1106) Puerto Madero, Cap. Fed., Buenos Aires
 - 전화: 54-11-4891-0000

- 팩스: 54-11-4891-0001
- 전화 예약: 54-11-4891-0101
- 팩스 예약: 54-11-4891-0100
- Home page: www.hilton.com
- Email: reservation.buenosaires@hilton.com
- 요금: 260달러(싱글, 트윈) + 부가가치세(21%)
- 비고: 2002년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 상급, 비즈니스 호텔

- 호텔명: HOTEL PANAMERICANO BUENOS AIRES
 - 주소: Carlos Pellegrini 551 (1009),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48-5000
 - 팩스: 54-11-4348-5250
 - 예약: 54-11-4348-5100 / 5200
 - Email: hotel@panamericanobuenosaires.com.us
 - Home page: www.panamericanobuenosaires.com
 - 요금: 156달러(트윈, 더블/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최대 거리인 7월 9일 대로(9 de Julio) 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로 주요 상권, 정부부처, 금융센터 등과 가깝다.
- 호텔명: ARGENTA TOWER HOTEL & SUITES
 - 주소: Juncal 868 (106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5-4100
 - 팩스: 54-11-4326-7090
 - 예약: 54-11-4326-0506
 - Email: reservations@argenta-tower.com.ar / info@argenta-tower.com.ar
 - Home page: www.argenta-tower.com.ar
 - 요금: 308.50페소 (Studio Suites, 32m², 거실, 식당 1인~2인용) 세금 포함
 - 비고: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아파트형 신축 호텔이다.
- 호텔명: SHERATON LIBERTADOR HOTEL
 - 주소: Av. Corodoba 690 (105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1-0000
 - 팩스: 54-11-4322-9703
 - 예약: 54-11-4321-0021/0022
 - Home page: www.sheraton.com.ar
 - Email: reserva@libertador-hotel.com.ar
 - 요금: 175달러(싱글, 트윈 /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없다. KBC와 도보 3분 거리이다.
- 호텔명: MELIA BUENOS AIRES BOUTIQUE
 - 주소: Reconquista 94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91-3800
 - 팩스: 54-11-4891-3834
 - 예약: 54-11-4891-3821 /3827/3817

- Email: reservas@meliabuenosaires.com.ar
- Home page: www.meliabuenosaires.solmelia.com
- 요금: 140 달러(싱글, 트윈 /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1999년에 새로 문을 연 스페인 Melia 호텔의 체인으로 중형 비즈니스 호텔로서 상가 및 은행가에 인접해 있다.

○ 호텔명: PESTANA BUENOS AIRES HOTEL

- 주소: Carlos Pellegrini 877 (C1009AB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5239-1112 / 1100
- 팩스: 54-11-5239-1141
- 예약: 54-11-5239-1101
- Email: reservas@pestanabuenosaires.com
- Home page: www.pestana.com
- 요금: 115 달러(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21%)
- 비고: KBC와 도보 3분 거리이다.

□ 일반 비즈니스 호텔

○ 호텔명: AMERICAS TOWER HOTEL

- 주소: Libertad 1070, (101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15-7900
- 팩스: 54-11-4815-9466
- Email: reservas2@grupoamericas.com.ar
- Home page: www.grupoamericas.com.ar
- 요금: 싱글 76달러/트윈 98달러(조식포함) + 부가가치세(21%)

○ 호텔명: GRAND BOULEVARD HOTEL

- 주소: Av. Bernardo de Irigoyen 432 (C1072AAJ)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5222-9000
- 팩스: 54-11-5222-9010
- 예약: 54-11-5222-9020
- Email: ventas@grandboulevardhotel.com
- Home page: www.grandboulevardhotel.com
- 요금: 100달러(싱글, 트윈 / 조식 포함) 세금 포함

○ 호텔명: HOLIDAY INN EXPRESS

- 주소: Av. L. N. Alem 77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11-5200
- 팩스: 54-11-4311-5757
- Email: reservas.arc@talbot.cl
- Home page: www.holidayinnexpress.com.ar
- 요금: 150 달러(싱글, 트윈/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21%)
- 비고: 알렘(Alem) 거리의 대형 비즈니스 빌딩들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2) 식 당

□ 한식당

한국의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는 41년으로 교민이 4만 명을 넘기도 하였으나 1998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 여파로 2002년 이후에는 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식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한인촌(일명 백구)과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아베자네다(Avellaneda)에 위치해 있다. 시내에는 비원 식당이 유일하다. 한식당은 메뉴로 주문하는 식당의 경우 찜개 기준 1인분 가격은 22페소(7.2달러) 선이고, 정식 식당(정액으로 음식 제공, 음료 제외)은 1인분에 35페소(11.5달러) 선이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대원정	Castañares 2030	4633-4480	해물탕, 아귀찜(화요일 휴무)
궁전식당	Asamblea 1829	4631-4747	한정식(월요일 휴무)
비 원*	Junin 548	4372-1146	한정식(일요일 휴무) / 시내위치
해운대	Thorne 1471	4924-9485	소갈비 전문
서울회관	Balbastro 2055	4633-4480	한정식
한오백년	Pumacahua 1629	4632-2691	설렁탕, 순대국
장 터	Saraza 2054	4633-7936	설렁탕, 순대국
도 모	Saraza 2020	4631-1576	한국식 일식요리
대성각	Carabobo 1334	4633-3829	한국식 중식요리(수요일 휴무)
늘 봄**	Babacay 3236	4612-9072	탕류

주: * 표는 시내, ** 표는 아베자네다, 이 외 식당은 한인촌(일명 백구)에 위치

□ 현지 식당

아르헨티나 현지식은 갈비구이인 아사도(asado)가 유명하다. 고급식당은 고급호텔이나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 지역과 코스타네라 노르테(Costanera Norte)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La Bourgogne	Ayacucho 2027 y Av. Alvear	4805-3857	프랑스식최고급 식당
CabañaLasLilas	Av. Alicia Moreau de Justo 516	4313-1336	아사도(스테이크)전문
Happening	Av. Alicia Moreau de Justo 310	4319-8712/8	아사도 전문
TOMO I	Carlos Pellegrini 521	4326-6698	프랑스식 식당
Hereford	Av. Rafael Obligado s/n	4706-3882/3	아사도 전문
Aquellos Años	Av. Rafael Obligado s/n y La Pampa	4784-8681	아사도 전문
Sorrento	Av. Alicia Moreau de Justo 410	4319-8731	지중해식 식당
Sinclair	Sinclair 3096	4899-0283	스페인식 식당
Katrine	Av. Alicia Moreau de Justo 138	4315-6222	프랑스식 전문

□ 일식 및 중식

일식과 중식의 경우 아르헨티나인의 어류 소비 부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급식당이 없는 편이다.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YUKI	Pasco 740	4942-7510	일식 고급 식당/영업: 19:30~23:30
Nihonbashi	Moreno 2095 y Rincon	4951-7381	일식 고급 식당 월요일 휴무/ 영업: 19:30~24:00
Jardin Japonesa	Av. Casares 2966	4800-1322	일식 전문 식당/ 일본 정원 내 위치

아. 관공서 관행

1) 근무시간

정부 부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 단, 운전면허·세관 등 민원 부서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 관행

아르헨티나 인구의 95% 이상이 백인이다. 유럽 이민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식보다는 서구적인 색채가 강하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이다. 관공서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정장 차림이다. 남자의 경우 진한 색조의 정장을 즐겨 입는다. 아르헨티나 관공서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서 줄서기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취득에 반나절 이상 소요)

자. 공휴일

2009년 공휴일

일자	요일	명칭(스페인어)	명칭(한글)	비고
1. 1	목	Año Nuevo	신정	
3.24	화	Día Nacional de la Memoria por la Verdad y la Justicia	진실과 정의의 날	
4. 2	목	Día del Veterano y de los Caidos en la Guerra de Malvinas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전몰자 추념일	법령26110호에 의거 지정
4.9~210	목, 금	Jueves Santo, Viernes Santo	부활절-성금요일	
5. 1	금	Día del Trabajador	근로자의 날	
5.25	월	Día de la Revolucion de Mayo	혁명기념일	
6.15	월	Inmortalidad del General Manuel Belgrano(Día de la Bandera)	국기의 날	원래 6.20(**)
7. 9	목	Día de la Independencia	독립기념일	
8.17	월	Inmortalidad del General Jose de San Martin	산 마르틴 장군 서거일	(**)
10.12	월	Día de la Raza	인종의 날	(*)
12. 8	화	Inmaculada Concepcion de Maria	성모수태일	
12.25	금	Navidad	성탄절	

주: * 표시의 국경일(인종의 날)은 법률 23555호에 따라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될 경우 그 주의 월요일로 바뀌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경우 다음 주의 월요일로 변경된다. ** 표시의 국경일(국기의 날, 산 마르틴 장군 서거일)은 법률 24445호에 따라 그 달의 세 번째 월요일로 지정한다.

□ 출장기간 선정 시 유의사항

아르헨티나 현지 출장기간 선정 시 연말 및 여름 바캉스 시즌(12월 중순~3월 초), 부활절 주간(4월 초), 겨울 휴가(8월) 등은 현지 출장방문 시기로는 부적합하다. 아르헨티나 공휴일은 아니나 바이어가 유대인 또는 이슬람인 경우 출장기간 선정 시 해당 공휴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유대인 공휴일: 9.13(토)~9.14(일) 유대인 신정, 9.22(월) 대속죄절(Yom Kipur)
- 이슬람 공휴일: 1.20(화) 이슬람 신정, 10.13(월) 라마단 종료일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 기후 및 의복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의 남반구에 있어 계절이 정반대이다.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다. 월별로 12~2월은 여름, 3~5월은 가을, 6~8월은 겨울, 9~11월은 봄으로 출장이나 여행 시 이에 맞추어 의복을 준비하면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은 사계절이 있다. 겨울철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나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 전기규격

가정·사무용 전기는 200V, 50Hz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자제품 연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3 나이프(knife) 모양이다. 한국(220V 원형)이나 미국(110V 1자형)의 연결구가 있는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 별도의 커넥터를 준비해야 한다.

2) 여행 여건

□ 치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나라였으나, 2001년 말부터 경제 침체와 국가부도 사태에 따른 빈민·실업자 증가로 은행 및 슈퍼마켓 강도,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살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외출 시 신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택시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단체로 이동해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지에는 낮에 외출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나, 새벽 또는 야간에 혼자 도보로 산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이 필요한 경우 2~3명 이상이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의 경우 치안이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가품이나 과다한 현금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항공권·고가품·현금 등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택시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 이용이 가장 쉽고 편하다. 택시 운전사에게 거리 이름과 번지만 알려 주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 택시 요금은 앞 좌석 위에 설치된 미터기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팁은 가방을 들어 주는 등 특별한 호의를 받은 경우에 소액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팁 문화

- 호텔: 침대 위에 1 달러(또는 2 페소) 정도 놓으면 된다. 포터의 경우 보통 1 달러 정도 (또는 2 페소) 주면 되고 가방 수가 많은 경우 1 달러 정도 더 주면 된다.
- 현지식당: 음식값의 다과에 따라 5~10%

□ 식수

- 출장자나 여행객은 생수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마실 필요가 있다.
- 생수는 가스가 없는 sin gas(썬 가스)와 가스가 있는 con gas(콘 가스)가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 아르헨티나 비상연락 전화

소방서(화재) 100, 경찰 101, 의료 및 구조요청 107, 일반안내 110, 시간안내 113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대사관	Av. del Libertador 2395	4802-8865/9665
KOTRA KBC	Av. Cordoba 950 Piso 2 Of. A	4393-3110
재아 한인회	Balbastro 615	4926-0567
한아경제인연합회	Av. Nazca 388 Piso 1	4611-6624
아베자네다 상조회	Aranguren 3219 Piso 3	4637-1086/87
온세 상조회	Castelli 109	4952-8857

한국인 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종합병원(MIK)	Av. Juan B. Alberdi 3255	4637-8006
Korean Medical	Nazca 388 5p	4611-3184

언론사

언론사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일보	Av. Carabobo 845/57	4631-0061
한국일보	Hortiguera 1779	4924-8500/8502

한국인 여행사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대림여행사	Carabobo 1624	4633-7666
대한여행사	J.D. Peron 2481 P.1	4954-5880
미래로여행사	Zuviria 2100	4633-5995/6049

주요 항공사

항공사	주소	전화번호	
		예약	공항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8	4330-3000	
Air Canada	Av. Cordoba 656 PB	4327-3640	
Air France	San Martin 344 P23	4317-4700	4480-0524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881	4318-1111	
Copa Airlines	C. Pellegrini 989 Piso 2	4132-3535	5480-4630
Lan Chile	Cerrito 866	4378-2222	4480-0021
Malaysia Airlines	Suipacha 111 P 14	4312-6971	
Mexicana	Av. Cordoba 755 Piso 1	4000-6300	5480-0256
United Airlines	Eduardo Madero 900 PB	4316-0777	
Varig	Av. Cordoba 972 P.3y4	4329-9200	

다. 기타 유용한 정보

1) 쇼 핑

□ 물가

아르헨티나의 공산품 가격은 1991년부터 미화 환율이 1:1로 고정되어 대부분의 제조 업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물가가 높았다.

아르헨티나 물가 수준은 2002년 평가절하 이후 이전보다 낮아졌다. 육류·과일 등 기초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로 낮은 편이나 공산품 특히 수입 제품은 고관세·부가가치세(21%)·추가 부가세(10%)·내국세 등의 부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이다.

□ 쇼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쇼핑장소로 우리의 명동과 비슷한 지역인 플로리다(Florida)와 라바예(Lavalle) 거리가 유명하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거리는 자동차 없는 거리로 직각으로 만나고 있다. 쇼핑몰·극장가·패스트푸드점·전자 제품점·의류 가게·가죽 제품점·서점·식당 등이 몰려 있고 외국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최근 고급 쇼핑센터는 시 외곽 또는 고급 주택가 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플로리다(Florida) 거리와 코르도바(Cordoba) 대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Galerias Pacifico' 쇼핑센터는 고급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점이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다.

쇼핑센터나 전문상점 중 'Tax Free'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세금환급 용지를 받아 공항(Ezeiza)에서 출국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

2) 특산품

아르헨티나 특산품으로는 가죽제품·암염·꿀(로열 제리)·장미씨 오일 등이 있다. 가죽 제품은 쇼핑센터나 시내 곳곳의 가죽제품 전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암염과 꿀은 중량

화물로 운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어서 제3국으로 반출입 시 통관이 쉽지 않아 관광객이 구매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파. 관광명소

1)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4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관광 명소로는 시내 중심지이자 상가 밀집지인 센트로(Centro), 대통령 궁 등이 위치한 몬세라트(Monserrat), 유럽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레콜레타(Recoleta), 초기 도시의 형성지인 보카(Boca), 벼룩시장이 열리고 옛 정취를 그대로 지진 산 텔모(San Telmo) 등 5 개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센트로(Centro)

- 7월 9일 대로(Avenida 9 de Julio)
 -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로 세계에서 도로 폭(140m)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벨리스코
 - 7월 9일 대로에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에 세워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 콜론극장(Teatro Colon)
 - 파리 오페라 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극장으로 꼽히는 예술의 전당으로 1908년 건설되었다. 600명의 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무대와 2,700석의 객석 (입석까지 최대 4,000명)을 자랑하고 있다.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므로 유럽의 일류 극단이 피서를 겸해서 공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플로리다 거리(Calle Florida)
 - 산 마르틴 광장에서 5월 대로(Avenida de Mayo)와 만나는 곳까지의 약 1 km의 상가 거리로 유명 의류점,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등이 밀집되어 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 몬세라트(Monserrat)

- 5월 광장(Plaza de Mayo)
 - 식민지 시대부터 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광장의 중앙에 독립 기념비가 서있고 주요 거리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에 면해 있어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모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의 무대이자 증인이라고 하겠다.
- 대통령 궁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
 - 1873년 당시 사르미엔토(Sarmiento) 대통령 이 여당의 빨간색과 야당의 흰색을 조합한 장미색을 양 정파 간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색칠한 데 연유하고 있다.
 - 스페인 로코코 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 까지 건설되어 역대 대통령의 공식 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쓰이기도 했고, 10 만 명이 전국에서 운집한 가운데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연설을 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 5월 광장(Plaza de Mayo) 북쪽의 대성당(La Catedral)에는 독립의 영웅 산 마르틴의 묘가 있고, 서쪽에는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카빌도(Cabildo: 총독부)가 있다.

□ 레콜레타(Recoleta)

파리의 거리를 옮겨 놓은 듯하다'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 풍의 건물, 식당, 유명 브랜드 의류점 등이 산재해 있고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하다.

각 거리마다 동상이나 조각들이 산재해 있고 레콜레타 문화센터, 국립 미술관과 에비타(Evita)의 무덤이 있는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가 소재하고 있다.

○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 엘 그레코, 모네, 고갱, 고호 등 중·근세 유럽 유명작가와 아르헨티나 일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면적 9,750 ㎡의 2층 박물관으로 1만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

-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 깊은 묘지로, 이 중 70여 개의 묘는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에비타(Evita) 무덤이 있는 레콜레타는 아르헨티나 유명인사의 가족 묘지로서 조그만 대리석 묘원에는 누대의 유골이 함께하고 있다. 에비타(Evita)의 무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 않아 막상 도착하면 실망하기 쉽다.
- 에비타로 불린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영부인은 사생아로 태어나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냈지만 여배우가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다. 빼어난 미모와 영화 같은 인생 편력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 보카(Boca) 지역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최초의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지였으며, 18세기 이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항구였다.

보카 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최고 축구 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의 홈 구장이 있다. 화려한 원색으로 치장한 카미니토(Caminito) 거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층 집단 주거지로 야간에는 치안이 나빠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산텔모(San Telmo)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역사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시 당국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리 형태, 건물 등을 옛 모양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펜사(Defensa) 거리와 브라질(Brazil) 거리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레사마(Lezama) 공원은 1536년 돈 페드로 데 멘도사(Don Pedro de Mendoza)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처음 세운 곳

이다. 그 후 이 지역은 부두 노동자의 주거지로 변모하였으며, 1871년 황열병의 창궐로 폐해진 바 있으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계속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레고 광장(Plaza Dorrego)에서 벵룩시장이 열리고 있다. 인근에는 골동품 상가가 밀집해 아르헨티나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발카르세(Balcarce) 역 부근에는 Michelangelo, La Ventana 등 유명 탱고클럽이 밀집해 있다.

□ 기타 지역

- 국회의사당(Congreso Nacional)
 -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고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이다.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tor Meano)가 설계하여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년에 완공되었다. 5월 대로를 통하여 대통령 궁(Casa Rosada)과 연결되어 있다. 광장에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이다.
- 팔레르모 공원(Bosque de Palermo)
 - 세계 3대 공원 중의 하나로 총 면적 7.7 km²의 부지에 경마장(Hipodromo), 장미공원(EI Rosedal), 동물원(EI Zoológico de Buenos Aires), 식물원(Jardín Botánico), 골프장, 테니스 코트가 있어 시민들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주변에는 각국 대사관과 고급 맨션이 나란히 지어져 있는 고급 주택가가 있다.

2) 지방 관광명소

□ 마르 델 플라타(Mar de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0 km 떨어져 있는 해안 휴양도시다. 고급호텔, 카지노, 놀이 공원,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2005년 11월에는 미주정상회담이 개최된 곳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자동차로는 5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이 소요된다. 연중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나 성수기는 12~2월 여름철이다.

□ 이과수 폭포(Las Cataratas de Iguazu)

1984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유산이라 지정되었다. 이과수 폭포는 캐나다의 나이아加拉,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와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힌다. 영화 '미션'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과수 폭포는 남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밀림 속에 있는 폭포로 브라질 쪽과 합해 약 300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 중의 폭포라 할 수 있으며,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답고 장엄한, 문자 그대로 세계 제일의 폭포이다.

크기는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웅장하다. 높이는 물론 폭포의 길이도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더 긴 4 km에 이른다. 폭포 자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에 걸쳐 있다.

이과수란 과라니어로 ‘큰 물’을 의미한다. 17만 헥타르의 이과수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이곳은 평균 70m의 높이를 가진 275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함께 어우러져 초당 5,000㎥의 물을 쏟아낸다.

둘레만도 4.3km에 달하는 이과수폭포는 파라과이, 브라질과 국경을 이루는 곳이기도 한데 흑자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본 이과수 폭포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보나 장엄하며 물줄기가 매우 크고 거세어 오솔길을 따라 폭포 밑으로 접근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과수 폭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300 km 떨어져 있으며, 항공편으로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항공 사정상 당일 관광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관광을 위하여서는 2박3일 정도가 소요된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양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항공로를 상파울루-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 편으로 하는 것도 시간 및 예산 면에서 유리하다.

□ 바릴로체(San Carlos de Bariloche)- 남미의 스위스

남미의 스위스란 별칭을 갖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항공으로 2시간 소요된다. 파타고니아의 관문 바릴로체는 아르헨티나 최고 관광지로 인근의 도시 산 카를로스과 함께 스키와 스포츠의 중심으로 유명한 곳이다.

나우엘 우아피 호수, 만년설로 덮힌 산과 울창한 산림이 발달하고 있다. 시내명소로 시청과 파타고니아 박물관이 있으며 유람선을 이용하여 빅토리아 섬, 마들 산림, 푸에르토 블레스트 도시까지 환상의 여행을 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스키, 승마, 낚시, 레프팅,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호수 유람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경 도시 푸에르토 프리아스에서 출국절차를 마치고 칠레로 육로 입국이 가능하다.

□ 살타 주의 ‘구름 기차(Tren de las Nubes)’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 길의 하나로 꼽히는 ‘구름으로 가는 기차’의 길이는 총 1,350km 이고 왕복시간은 15시간이다. 도중에 29개의 다리와 21개의 터널, 13개의 고가 교량 등을 통과하며, 매우 높은 곳을 달리기에 구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구름으로 가는 기차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기차는 식당시설, 숙박시설, 의료진, 가이드, 비디오 룸, 음악 감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 아콩카구아(Aconcagua)

아콩카구아는 잉카 문명권의 공용어인 깨추아 말로 ‘흰 수호신(파수꾼)’을 뜻하고, 볼리비아와 페루의 인디언인 아이마라족 말로는 ‘돌의 수호신’을 의미한다.

아콩카구아 산은 아르헨티나 서부에 위치한 멘도사 주의 라스 에라스(Las Heras)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경선을 형성하지 않는다. 아콩카구아 산은 지구 좌표 상으로는 서경 59~69°, 남위 32~39°에 위치한다.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로스 오르코네스 계곡(Valle de Los Horcones Inferior)과 경계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라스 바카스 계곡(Valle de Las Vacas)과 접하고 있다.

아콩카구아 산 주위에는 5,000미터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우뚝 서 있다. 오르코네스 수페리 오를 계곡에 쿠에르노(5,450m), 카테드랄(5,200m), 보네테(5,100m), 데로스 데도스(5,000m) 등이 위치하고 있다. 오르코네스 인페리오 계곡에는 미라도르(5,800m), 이바오에스(5,200m), 알마세네스(4,800m) 등이 위치하고 있다. 데라스바카스 계곡에는 아메기노(5,800m), 피츠제랄드(5,300m), 산타 마를라(5,100m)가 있다.

□ 칼라파테(Calafate)와 페리토 모레노 빙하(EI Glaciar Perito Moreno)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빙하 국립공원이다. 읍살라 빙하의 경우 칼라파테에서 유람선을 이용하여 접근한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의 경우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호수 남부의 육지면에 있는 폭 4Km의 빙하로 호수면 위로 60m 우뚝 솟은 파란 빙하가 약 200km²의 대지를 덮고 있다. 간혹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빙하가 호수위로 부서져 내리며 대자연의 신비를 연출한다.

□ 우수아이아의 비글해협과 남극(Canal de Beagle y La Antartida)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섬 남쪽에는 비글 해협이 있다. 1829년 4월부터 1830년 8월에 걸쳐 영국해군 '비글' 호와 '어드벤처' 호가 그 부근의 수로를 조사할 때 '비글' 호의 갑판 사관인 머레이가 발견했다.

마젤란 해협을 중심으로 남미 대륙과 떨어져 있으며 칠레와 절반 정도로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명소로 파그나오 호수와 라파타이아 국립공원, 옛날 감옥, 박물관이 있다.

우수아이아는 스키와 낚시 애호가들의 천국이다. 독수리, 펭귄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대성 식물이 자란다. 티에라 델 푸에고 주의 우수아이아 항구에서 관광 유람선이 운항하며 다리섬, 새섬, 비글운하, 물개섬, 빙하, 등대 등을 관광한다.

우수아이아가 티에라 델 푸에고 섬 남쪽연안에 있어 지금은 비글 해협과 남극을 관광하는 관광선의 출발지가 된다.

비글 해협은 티에라 델 푸에고 섬(Isla Grande del Tierra del Fuego)과 그 남쪽의 칠레 영토인 커다란 섬 두 개, 곧 동쪽의 나바리노 섬과 서쪽의 호스테 섬 사이에 있는 동서 방향의 해협이다. 위도로는 마젤란 해협이나 르매르 해협보다도 남쪽이다. 길이가 약 200km이며 폭이 평균 3.7km 정도이다. 동쪽이 거의 직선이나 서쪽에서는 북서 수로와 남서 수로로 나누어진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전시회 & 행사정보

- **Exposicion Internacional de la Construccion y la Vivienda**
(아르헨티나 국제 건축주택 박람회)
 - 일자: 2009년 6월 2일 ~ 6월 6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batev.com.ar

- **Exposicion de Laboratorios, productos, servicios e insumos para farmacias**
(아르헨티나 국제 의약품 박람회)
 - 일자: 2009년 6월 5일 ~ 6월 7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entro Costa Salguero 전시장
 - 홈페이지: www.expofarmcia.com.ar
- **Salon Internacional del Automovil de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국제 자동차 박람회)
 - 일자: 2009년 6월 19일 ~ 6월 24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elsalondelautomovil.com.ar
- **Feria Inter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Madera y el Mueble**
(아르헨티나 국제 목재기술 박람회)
 - 일자: 2009년 7월 7일 ~ 7월 11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fitecma.com.ar
- **SEGURIEXPO 2009**
(아르헨티나 국제 전자보안장비 박람회)
 - 일자: 2009년 8월 12일 ~ 8월 14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seguriexpo.com.ar
- **Exposicion Internacional de Articulos para Ferreterias, Sanitarios, Pinturerias y Materiales de Construccion** (아르헨티나 국제 공구 박람회)
 - 일자: 2009년 9월 3일 ~ 9월 6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entro Costa Salguero 전시장
 - 홈페이지: www.expoferretera.ixmf.com
- **Feria Internacional de Productos, Equipos y Servicios para la Salud**
(아르헨티나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 일자: 2009년 9월 10일 ~ 9월 12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entro Costa Salguero 전시장
 - 홈페이지: www.expomedical.com.ar
- **EXPOCOMM 2009**
(아르헨티나 국제 전자통신 박람회)
 - 일자: 2009년 9월 22일 ~ 9월 25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expocomm.com.ar
- **Exposicion Internacional del Envase y Embalaje**
(아르헨티나 국제 포장 및 식음료기계 박람회)
 - 일자: 2008년 9월 22일 ~ 9월 25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entro Costa Salguero 전시장
 - 홈페이지: www.envase.org

○ **Bienal Internacional de la Industria Eléctrica, Electrónica y Luminotécnica**

(아르헨티나 전기-조명 전시회)

- 일자: 2009년 11월 3일 ~ 11월 9일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biel.com.ar

○ **AESHOW 2009**

(아르헨티나 국제 전자 박람회)

- 일자: 2009년 11월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La Rural 전시장
- 홈페이지: www.aeshow.com.ar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정부기관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www.presidencia.gov.ar
 - 정부조직도, 각료이력, 대통령실 업무, 일반 경제지표
- 아르헨티나정부 온라인: www.info.gov.ar
 - 중앙정부 각부처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 접속가능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 www.buenosaires.gov.ar
 - 시 소개, 시청 조직도, 간부이력, 각종행사 및 계획
- 아르헨티나 경제부: www.mecon.gov.ar
 - 관보 및 각종 경제정보
- 아르헨티나 외무부: www.mrecic.gov.ar
 - 각종 서비스 및 수출/투자 안내 등
- 아르헨티나 교육부: www.me.gov.ar
 - 교육시스템, 장학금, 인터넷 학습, 학습지침 등
- 아르헨티나 보건부: www.msal.gov.ar
 - 건강관련 뉴스, 통계, 수속절차 안내등
- 아르헨티나 정보통신부: www.secom.gov.ar
 - 통신관련 뉴스, 법률 및 기타 통계등
-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www.secyt.gov.ar
 - 과학 기술 관련 잡지, 관련 뉴스, 정부 방침등
- 아르헨티나 관광부: www.turismo.gov.ar
 - 유명 관광지 소개

- 아르헨티나 문화부: www.cultura.gov.ar
 - 음악, 영화, 전시회 등 기타 문화 행사 소개
- 아르헨티나 관세청: www.afip.gov.ar
 - 서비스 안내, 수입/수출업자검색, 수입자등록수속 등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www.indec.mecon.gov.ar
 - 경제사회통계, 자료검색, 발간서적안내/서비스
-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재단 (Invertir : www.invertir.com)
 - 아르헨티나 투자현황 및 비즈니스 정보
- 아르헨티나 수출진흥재단 (Export-Ar): www.export-ar.org.ar
 - 해외 수입업체 정보, 수출통계, 세계 입찰정보 등
- 아르헨티나 국립공업기술청 (INTI): www.inti.gov.ar
 - 기관소개 및 활동자료, 기술자문/상담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www.bcra.gov.ar
 - 금융정보/통계, 경제현황 및 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아르헨티나 상업회의소 (CAC): www.cac.com.ar
 - 회원사/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 등
- 아르헨티나 공업연맹 (UIA): www.uia.org.ar
 - 수출업체 디렉토리, 각종 서비스, 행사계획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 www.cace.org.ar
 -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 아르헨티나 전자기계산업협회: www.cadiem.org.ar
 - 회원대상 전시회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아르헨티나 전자산업협회: www.cadie.org.ar
 -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생산업체 포털사이트
-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협회: www.adeffa.com.ar
 -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 등
- 아르헨티나 플라스틱산업협회: www.caip.org.ar
 - 산업현황, 생산업체 디렉토리, 기술안내 등
- 아르헨티나 기계공구협회: www.carmahe.com
 - 회원, 생산/수입업체, 해외전시회, 시장상황 정보 등

- 아르헨티나 정보통신협회: www.cicomra.org.ar
 - 컴퓨터, 통신산업 기술발전, IT 산업현황 등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협회: www.cessi.org.ar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이트
- 아르헨티나 의약품생산협회: www.safybi.org.ar
 - 의약품 생산현황, 시장동향
- 아르헨티나 의류산업협회: www.ciaindumentaria.com.ar
 - 의류 생산업체 디렉토리, 의류생산 동향
- 아르헨티나 슈퍼마켓협회: www.cas.com.ar
 - 슈퍼마켓 공급업체 디렉토리, 시장현황
- 아르헨티나 건축협회: www.camarco.org.ar
 - 건축경기 현황, 포럼, 세미나 안내, 월간지